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주 제 : '3.1운동 세대'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
-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 최 : 전북사학회

후 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주시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13:00~18:30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주 제 : '3.1운동 세대'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
-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 최 : 전북사학회

후 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주시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13:00~18:30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주 제 : ‘3.1운동 세대’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
-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 발표순서

제1부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

1부 사회 : 홍성덕 (전주대)

- 주제 1 : 독립운동에서 세대적 의미와 전북의 3.1운동 1 쪽
발표 : 윤상원 (전북대)
- 주제 2 : 1920-30년대 전북의 독립운동과 ‘3.1운동 세대’ 15 쪽
발표 : 김주용 (원광대)
- 주제 3 : 전시체제기 전북의 비밀결사운동과 ‘3.1운동 세대’ 33 쪽
발표 : 변은진 (전주대)

제2부 해외에서 활동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2부 사회 : 윤상원 (전북대)

- 주제 4 :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65 쪽
발표 : 송 잔나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 주제 5 : 일본 지역에서 활동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93 쪽
발표 : 李圭洙 (히토츠바시대학)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공지사항

회원분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가 변경되신 분은 전북사학회 메일 (jha-mail@naver.com)로 연락해주셔야 학회의 다양한 소식과 학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에서 세대적 의미와 전북의 3.1운동

- 윤상원(전북대 사학과)

<목차>

1. 들어가며
2. 전라북도의 3.1운동
3. '3.1운동 세대'의 탄생과 의미
4. 맺음말

1. 들어가며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안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은 그 때문에 일제의 지속적인 수탈 대상이었다. 군산의 개항으로 시작된 일제의 전라북도 지역 수탈은 강점 이후 10년간 점차 확대 강화되어 1919년 3.1운동이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전개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한말 의병들의 항쟁은 비록 미완의 운동으로 끝났으나 일제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 저항의 기억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1919년에 폭발하였다.

전북 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운동의 주도세력이 천도교와 기독교 계통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다른 지역과 다른 전라북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역사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전북 지역은 1894년 농민전쟁의 본산지로 이후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3.1운동 당시 기독교와 함께 천도교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3.1운동을 불교적 입장, 개신교 교회사적 입장, 민족종교인 천도교적 입장, 3.1운동에 참여한 개개인의 입장 등에서 방대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내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또는 각 지역적 차원에서 3.1운동과 관련한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3.1운동 관련 연구서가 출간되었다.¹

하지만 3.1운동의 역사성을 파악할 때 전체적 맥락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각 지역의 3.1운동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전라북도의 3.1운동을 다룬 단행본 역시 전북

1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대표적인 연구서는 “39명의 학자가 선보이는 2019년 유일한 ‘3.1운동’ 100년의 기록”이라고 자평하며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에서 엮은 3.1운동 100주년 총서인 『3.1운동 100년』 1-5권이다.

지역의 3.1운동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3.1운동 전체상을 다룬 책²이나 전라북도 독립운동사를 다룬 책³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는 지역이나 기관의 역사를 다룬 단행본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왔다.⁴

전북 지역의 3.1운동을 다룬 연구논문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나왔다.⁵ 또한 전라북도에서 주목할 만한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 대해 다룬 연구논문도 있다.⁶ 이외에도 개신교의 전북지역 3.1운동 주도과 참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⁷ 반면에 천도교 측의 자료는 거의 인멸되어 자세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⁸

한편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60권 중 18-21권 4권이 3.1운동을 정리하였다. 이 중 19권과 20권이 지역별 3.1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20권의 6장으로 전북지역의 3.1운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전북 지역 3.1운동 연구를 총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3.1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개통하였다. 이는 3.1운동 관련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통해 지역별 3.1운동의 양상을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사(下) - 독립운동사 3권』,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주)민문고, 『3.1운동 - 독립운동총서 2권』, 1995.

3 광복회 전북지부, 『전라북도독립운동사』, 1989;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모탑 건립위원회, 『전북지역독립운동사』, 신아출판사, 199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지역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흐름출판사, 2015.

4 기전여자고등학교, 『기전80년사』, 대흥출판사, 1982; 신흥90년사편찬위원회, 『신흥90년사』, 대흥출판사, 1990; 옥구문화원, 『옥구지방항일운동사』, 옥구문화원, 1993;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시, 1997; 예수병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 예수병원 100년사』, 1998; 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쿤란출판사, 1999.

5 최근무, 「전북지방의 일제하 항일학생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박용순, 「전북지방의 3.1운동」,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김숙자,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의 대일항쟁」, 『전북학연구』 제1호, 전라문화연구소, 1997; 정옥균, 「전북의 3.1운동과 기독교」, 『익산 3.1만세운동』, 익산 4.4만세의거 기념사업회, 2000; 유원아, 「전북지역 3.1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병규, 「호남지방의 의병,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 - 전북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제17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5; 김기주,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제37집, 호남사학회, 2009;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제26호, 동학학회, 2012; 김혜진,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종수,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집, 대한민국 육군본부, 2015.

6 양재연, 「군산, 옥구 지방의 항일운동」,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우상, 「전북 임실 지방의 3.1운동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을경, 「일제강점기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12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조규태, 「일제강점기 전북 고창인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제19집, 역사와 교육학회, 2014.

7 정옥균, 「전북지역 개신교 초기교회의 형성과정 그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대회, 「1893 - 1945년 전주 서문의 교회의 성장 과정과 민족 운동」,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조재승, 「전주신흥학교의 항일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재근, 「남장로교의 전주 신흥학교 · 기전여학교 설립과 발전(1901-1937)」,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2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진지훈, 「미국남장로교선교회와 전주서문교회」, 『성경과 고고학』 제91집, 한국성서고고학회, 2017.

8 박창건, 「3.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 『신인간』 제458집, 천도교중앙총부 신인간사, 1988.

9 김진호, 박이준, 박철규, 『국내의 3.1운동2 -남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 3.1운동의 전체적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3.1운동에 참가했거나, 3.1운동을 통해 각성을 했거나, 3.1운동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이 이후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음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들을 ‘3.1운동 세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전라북도의 3.1운동

1) 독립선언서 배포 경로

잘 알려진 바대로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였고,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 보성사에서 인쇄되었다. 보성사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의 1인인 이종일의 집인 경운동에 보관되었다가 오세창의 총책과 이종일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¹⁰ 독립선언서의 배포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등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천도교에서는 인종익, 안상덕, 김홍열, 이경섭 등이 각 지방을 맡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로 하였고, 기독교 측에서는 김창준, 이갑성, 오화영, 함태영 등이 배포 책임을 맡았다.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책임을 맡았으며, 학생들을 통한 배포는 이갑성이 맡았다.

전북지역의 독립선언서 배포의 경로는 총 세 루트로 알려져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경로 중 천도교의 인종익과 기독교의 이갑성, 함태영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경로인 천도교 계통을 통한 배포는 호남지역의 배포를 맡은 인종익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종익은 2월 28일 오전 7시에 이종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전주에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독립선언서 2천매를 받았다. 인종익은 오전 11시 남대문을 출발하여 대전에서 1박을 한 후 3월 1일 새벽 6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이리에 도착하여, 11시 전주행 경편열차로 갈아타서 12시경 전주에 도착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인종익은 즉시 전주역 앞 고사정에 자리한 천도교 전주교구로 갔다. 사전에 연락받은 교구장 김봉년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금융원 김진옥에게 독립선언서 1,800매를 전달하고 독립선언서를 3월 3일까지는 전라북도 각지에 골고루 보급하라고 시달하였다.¹¹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천도교 전주교구는 전주대교구 관할인 임실을 비롯하여 진안, 장수, 김제, 고산 등지의 천도교 교구에 전달하였다. 김진옥은 독립선언서 200매를 휴대하고 천도교 임실교구로 가서 교구장 한영태에게 전달하고 3월 2일 밤중에 배포하라는 인종익의 지시사항을 전하였다. 또한 200매를 이리 천도교구장 이종달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천도교 조직을 통해 전북 각지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는 기독교 측에도 전달되었다.¹²

10 이병헌, 『3.1운동 비사』, 396-397쪽.

11 『인종익 신문조서』(1919년 3월 4일, 3월 11일)

12 『독립운동사』 3(삼일운동 하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494쪽.

두 번째 경로는 개신교를 통한 배포이다. 이 경로는 군산으로 들어간 것인데, 군산 영명학교 출신인 김병수에 의한 전달 경로이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에 재학 중이던 김병수는 세브란스병원 제약실에 근무하던 이갑성을 만나면서부터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갑성은 김병수가 민족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군산 지방 연락책임자로 선정하여 독립선언서 전달 임무를 맡겼다. 2월 말 군산에 도착한 김병수는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 이두열, 고석주, 김수영 등을 만나 서울에서 기독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이두열, 김수영 등은 학생이던 양기철, 전세종에게 선언서를 등사하도록 하여, 3월 1일부터 4일까지 영명학교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 7,000매를 등사하였다.¹³

세 번째 또한 개신교를 통한 경로이다. 기독교계 함태영은 당시 천안의 양대 소학교 교사로 있던 전주 기전여학교 출신 임영신에게 독립선언서를 주어 전주로 보냈다. 임영신은 전주에 와서 서문교회와 신흥학교, 기전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주어 전주의 3.1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2) 만세운동의 전개과정

전북의 3.1운동은 군산에서 3월 5일 만세를 시발로, 3월 6일 김제, 3월 13일, 14일 전주, 3월 16일 태인, 3월 23일 임실, 4월 3일 남원 덕과면, 4월 4일 남원, 익산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익산과 남원에서는 사상자도 많이 나왔다. 전북 지역의 3.1운동은 3-4월에 집중되었으며, 5월부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북지역의 3.1운동 전개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북 지역 3.1운동 일지¹⁴

날자	장소	참가인원	사상자 수	검속자 수	비고
3. 5	군산부	1,000		90	만세시위, 석방요구
3. 10	익산군 여사면	200			만세시위
3. 10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다수			보교 생도 만세
3. 12	임실군 읍내	3,000			만세시위
3. 13	전주군 읍내	2,000		300	만세시위
3. 14	전주군 읍내	600	10	16	만세시위
3. 15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00			만세시위
3. 15	고창군 무장읍	수백		10	만세시위
3. 16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150			만세시위
3. 16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0			만세시위

13 『대정8년 형공 265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4. 30)

14 이 일지는 『독립운동사』 3(삼일운동 하편)(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 16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100				만세시위
3. 16	정읍군 태인면	3,000			80	만세시위
3. 17	전주군 초포면	20			1	만세시위
3. 18	익산군 금마면	수백			2	만세시위
3. 19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다수			10	만세시위
3. 20	순창군 읍내	200	사망(10)		10	만세시위
3. 20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수백				만세시위
3. 20	김제군 수유면 월평리	수백			10	만세시위
3. 21	고창군 읍내	100			100	만세시위
3. 22	장수군 반암면 노단리	다수				만세시위
3. 23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30				만세시위
3. 23	전주군 읍내	수천			20	만세시위
3. 23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2,000			10	만세시위, 주재소, 면사무소 습격
3. 23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수백				만세시위
3. 23	정읍군 읍내	100				만세시위
3. 24	전주군 삼례면 삼례리	수백				만세시위, 삼례역 습격
3. 25	진안군 읍내	수천				만세시위
3. 26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수백			10	만세시위
3. 28	익산군 금마면	수백				만세시위
3. 30	부안군 읍내	수백				만세시위
3. 30	군산부	1,000				만세시위
4. 1	무주군 읍내	수백				만세시위
4. 2	정읍군 읍내	1,000			4	만세시위
4. 3	남원군 덕과면	800			20	만세시위
4. 3	진안군 주전면 주양리	60			10	만세시위
4. 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수백				만세시위
4. 4	남원군 읍내	3,000				만세시위, 석방요구
4. 4	익산군 이리	1,000				만세시위
4. 4	김제군 만경면	600				만세시위
4. 5	군산부	1,000				만세시위
4. 7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다수				만세시위
4. 8	익산군 용안면 화백리	수십				만세시위
4. 12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수십	부상(8)			만세시위
4. 13	진안군 마령면 시장	수백	부상(6)			만세시위
4. 18	부안군 줄포면	수백				만세시위
4. 23	금산군 읍내	수천				만세시위
4. 25	금산군 제월면 제월리	200				만세시위
4. 28	금산군 읍내	수백				만세시위
4. 30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200			9	만세시위
4. 30	금산군 진산읍	200			7	만세시위

전라북도에서 3.1 만세시위는 군산에서 시작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브란스의전 학생 김병수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영명학교 교사들은 3월 6일 군산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3월 5일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주동 인물들이 군산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다. 이에 체포를 면한 양기준, 유한종 등은 거사일을 하루 앞당겨 바로 그날 옥구군 개정면 구임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에는 영명학교 교사들의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학부모들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여 군산경찰서를 비롯한 각처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¹⁵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만세시위는 전주에서 전개되었다. 전주의 3.1운동은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천도교 신자들의 연합으로 주도되었다. 기독교, 천도교 계열 인사들이 주축으로 전주 장날인 3월 13일 남문시장에서 할 것을 계획하였다. 기전학교 학생들은 최국현(崔國鉉) 장로 집에 숨어 있었고, 평화동 쪽에서는 신흥학교 학생들과 천도교 사람들이 몰려오기로 하였다. 장날인 3월 13일 12시 정오 인경을 신호로 일제히 일어났다.

3월 13일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 학생들이 일본 경찰들의 경계망을 뚫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마니 안에 숨기고 남문 시장까지 가지고 왔다. 이때 큰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최경애(崔敬愛), 최금수(崔金洙), 함연춘(咸然春), 정복수(鄭復壽), 송순이(宋順怡), 김신희(金信熙), 최요한나(崔堯漢羅), 임영신, 강정순(姜貞順), 김순실(金淳實), 김나현(金羅賢), 김공순(金恭順) 등의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고흥진(高衡鎭), 김병학(金炳學) 등의 신흥학교 학생들이었다.

결국 3월 13일 인경 소리를 신호로 천도교인, 개신교인을 비롯하여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때 청년 김정희(金錠熙)는 ‘아(我) 2천만 동포에 고함’이라는 격문을 살포, 전주읍민들의 꺾기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청년 김봉추(金鳳樞)는 앞에서 만세운동 군중들을 인도하였고, 이운영(李云泳)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일본 경찰들 앞에 나아갔다. 이명수(李明洙)는 “조선 사람으로 만세를 부르지 않은 사람은 반역자”라 외치며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현재 전주 남문시장에서 전주 공립제2보통학교(현재 전주 완산초등학교), 야마토초(대화정(大和町), 현재 전동 일대)를 지나 다이쇼초(대정정(大正町), 현재 중앙동) 우편국(현재 중앙동 우체국) 앞까지 행진하였다. 전주읍내의 청년들인 강준구(姜俊求), 이영식(李英植), 이승유(李承裕), 류완진(柳完鎭), 박덕주(朴德柱), 상관면(현재 완주군 상관면)의 서병규(徐丙珪), 용진면(현재 완주군 용진읍)의 김재흥(金在興), 우림면(雨林面, 현재 효자, 삼천동)의 서봉운(徐奉雲), 이동면(伊東面, 현재 노송동, 화산동, 서신동, 금암동, 진북동, 인후동 일대)의 김진영(金鎭永), 임실군 성수면의 강선칠(姜善七) 등이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다.¹⁶

정오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일본 경찰들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시 해산된다. 하지만 오후 세시 경부터 다시금 남문시장에서 혼초(본정(本町), 현재 중앙동)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흩어졌던 독립만세운동 군중들이 다시금 모여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이 대열은 최종삼 등이 주동하였으나 이리 헌병과 소방대원 50여 명이 펌프로 군중에 살수하고, 소방용 갈퀴 등으로 군중들을 찌르며 탄압하였다.

밤에는 일본 경찰의 무차별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검거된 군중들은 무조건 유치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였다. 밤 9시경 기전여학교 김순실, 김나현 등의 여학생들이

15 「대정8년 형공 205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4. 30)

16 「대정8년 형상 제9814호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19. 10. 30)

230여 명의 집단으로 전북도청(현재 전라감영지)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북쪽으로 갔고, 남문과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는 전주천으로 모여든 군중들이 만세를 불렀다.¹⁷

만세운동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하루 동안 300여 명이 검거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전주 3.1운동 다음 날인 3월 14일 독립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전날 갑작스러운 만세운동으로 일본 경찰들은 삼엄하게 경계하였다. 3월 14일 오후3시 만세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완산초(완산정(完山町), 현재 완산동) 김제가도(현재 용머리고개)에서 3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혼초 2초메(본정 2정목(2丁目), 현재 중앙동 2가)까지 진출하였다.

일반 시민과 개신교, 천도교인들,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뒤섞여 독립만세운동 대열에 가담하며 고조되었다. 이 만세운동에서는 전주 청년 박상선(朴尙鮮), 백남두(白南斗), 김인철(金仁喆), 이판쇠(李判釧), 배운명(裴允明), 김봉호(金鳳昊), 최갑쇠(崔甲釧), 김점쇠, 난전면(현재 평화동)의 배순길(裴順吉), 용진면의 권봉화(權奉和), 우림면의 박찬문(朴贊文), 이동면의 노성용(盧成用), 임실군 신평면의 최병태(崔炳台), 김제부(현재 김제시) 백구면의 김태희(金泰熙) 등이 주도하였다.

일본은 결국 무장대를 투입하였고, 박상선, 백남두 등 16명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에 만세운동은 일단락되지만, 이날 밤에 다시금 작게나마 시내 각 곳에서 산발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이어졌다.¹⁸

전주읍내의 3월 13-14일 만세운동에 이어 3월 17일에는 초포면 송전리 들판(현재 호성동 3가)에서 송전리 마을 사람들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마을 청년 최우선(崔愚先)이 태극기를 준비해 송전리 앞 들판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검거당하고, 봉동면(현재 완주군 봉동읍) 청년 노순석(魯順錫)은 학생 정기동(鄭基東)과 함께 낙평리(현재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에 있는 개신교 계열 영흥학교 교정에서 3월 21일 봉동읍 장거리 장날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⁹

3월 24일에는 삼례리(현재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삼례역을 습격하는 강경한 만세운동으로 번졌다.

봉동읍의 청년 김봉근(金奉根)은 한 마을 노순석, 정기동과 함께 봉동읍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일본 경찰에 체포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동지를 규합, 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 당하였다.²⁰

3월 23일 전주장날에 다시금 전주 독립만세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이때는 첫 만세운동인 13일, 14일의 만세운동보다 규모가 더 컸다. 군중들은 대열을 지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청, 경찰서, 재판소 등 일제 기관 앞 도로를 지나며 행진하였다. 이 만세운동도 일본의 무력을 통한 강제진압이 이루어졌고, 2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 검거되었다.²¹

17 「대정8년 공형 제365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8. 1)

18 「대정8년 형공 제702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7. 28)

19 「대정8년 형공 제156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4. 4)

20 「대정8년 공형 제174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4. 16)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박완(朴浣), 이양호(李良湖) 등 지사들은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였다. 청년 이병두(李秉斗)는 그해 10월 서재록(徐在祿), 김기곤(金琪坤) 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축하문을 배포하였지만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3월 13일, 14일을 전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힌 전주 시민들의 재판이 그해 6월부터 진행되었다. 여학생 임영신, 정복수, 김공순, 최경애, 김이해(金이해), 최요한나, 강정순, 최금주, 송순의, 김순실, 김신희 등은 4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들의 기개 있는 법정투쟁에 일본 판사들은 재판을 중단하기까지 한다. 결국 이들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²² 신흥학교 학생인 고희진, 남궁현, 천도교계 총 책임자 박태연 등도 일제의 법정에서 일제의 만행에 굽히지 않고 항쟁하였다. 이후 8월에 열린 재판에서 박태연은 징역 1년 6월, 고희진과 남궁현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²³

위의 기전여학교 여학생들의 투쟁은 이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⁴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부녀자와 아동들의 애국열>이라는 장에서 기전여학교 ‘13인 결사대’의 투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주군의 여학생 임영신(林永信)·정복수(鄭福壽)·김공순(金功順)·최애경(崔愛慶)·김인애(金仁愛)·최약한(崔約翰)·강정순(姜晶純)·함의선(咸義善)·함연순(咸然淳)·최금(崔錦)·송순의(宋順義)·길순실(吉順實)·김신희(金信熙)·정월초(鄭月初) 등 열네 명은 3월 13일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 학생들은 반드시 죽겠다는 결심으로 4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일본인 검사가 위압적으로 승복시키려 엄히 신문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평온한 기색으로 대담한 말로 답하였다. “우리들이 어찌 너희들의 판결에 복종하겠는가. 너희들은 우리의 강토를 모두 빼앗고 우리들의 부모·형제를 학살한 강도이다. 도리어 삼천리의 주인이 되는 우리들을 불법이라고 하니 이것은 법적인 판결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본인 검사는 크게 노하여 칼을 빼들고 학생들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고 모든 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세워 놓고 조롱까지 하였다. 학생 임영신은 손을 들어 일본 관리를 때리며 “야만인”이라고 말했다. 일본인 검사가 또 신문하기를, “너희 조선은 군함도, 군대도, 대포도, 철도도 없다. 완전한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자,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후에는 군함, 군대, 대포, 철도 등의 물건들은 모두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따위의 것을 묻는 것을 보니 그 어리석음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검사가 다시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라고 묻자, 학생들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전국이 정의를 떨치고 일어나 모두가 함께 만세를 부른 것이다. 무슨 부탁을 받

21 「대정8년 공형 제646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10. 16)

22 「대정8년 공형 제319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6. 30); 「대정8년 공형 제754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9. 3)

23 「대정8년 공형 제646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 8. 2)

24 『신한민보』, 1920. 4. 3.

았다는 것인가. 너희들은 참으로 세계적인 관점에 어두운 섬 사람이구나”라고 대답하였다. 일본 관리들은 이렇게 아픈 곳을 찢리자 심문을 멈추고 도로 가두어 버렸다.²⁵

위 서술은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많다. 학생의 한 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시위를 주도하여 재판을 받은 기전여학교 학생은 13명인데, 박은식은 14명이라고 서술하였다. 박은식이 기록한 이들 중 정월초(鄭月初)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월초(月初)로 기록된 시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듯하다. 다만 위 서술과 신한민보 등의 기사는 전북 지역 3.1운동에서 여학생들의 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라북도 3.1운동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주의 3.1운동은 이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지역의 3.1운동은 추후 정리하고자 한다.)

3. ‘3.1운동 세대’의 탄생과 의미

3.1운동에 참여한 전라북도의 민중들의 기억 속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전쟁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근대화된 일본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기억은 전라북도 민중들의 가슴 속에 잊혀진 듯 잠겨 있다가 1919년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함께 폭발하였다. 역사를 단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속선 위에서 바라본다면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전쟁 그리고 3.1운동을 개별적 사건이 아닌 연속된 흐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는 세대가 의병전쟁에 참가하고, 의병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3.1운동의 주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3.1운동을 기억하는 세대가 이후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3.1운동 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전북 지역 ‘3.1운동 세대’의 면모를 보여주는 예를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해방까지 굶힘없이 투쟁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화암 정현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현섭은 3.1운동의 경험과 중국 망명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도 이들과 같이 활동방법을 강구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가만 고종황제의 인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단신으로 서울로 향했다.

3월 1일! 서울의 거리는 독립만세 소리와 함께 민중의 봉기가 문자 그대로 성난 파도처럼 산하를 메아리쳤다. 나도 그 대열에 뛰어 들었다. 갓을 쓴 양반

25 박은식 저,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322쪽.

이나, 신문화의 길을 걷는 양복장이 신사나, 심부름꾼, 행랑아범, 기생들까지도 함께 엉키어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휩쓸었다. (중략)

3.1운동 3.1정신! 여기에는 가정도 부귀도 명예도 평온도 모두 팽개치고 걸기한, 오직 민족해방을 위한 민족투쟁으로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항쟁으로 일제의 만행을 이 땅에서 타도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 불꽃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급되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을 직접 참여, 목격하고 체험한 나는 아무리 악랄한 그들이라도 우리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일제에 항거한다면 우리의 민족해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리라는 신념으로 전후좌우의 사정도 따질 것 없이 고향 김제로 왔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아우인 중옥이 만세시위에 선봉을 섰다 하여 경찰에 잡혀갔고 집안은 경찰의 감시를 받는 형편이었다.

나는 다시 정봉수와 같이 부안 줄포로 안인목을 찾아갔다. 안인목은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굳은 생각에서 군청을 그만 두고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서울의 3.1 만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우리의 뜻을 전하였다. 그의 협조를 얻어 줄포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였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의 뜻에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우리를 따랐다. 줄포에서의 만세시위 때문에 일본 경찰은 우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다시 전주로 갔다. 전주로 돌아온 나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활동을 계획하면서, 이를 체계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나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동향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남규, 정봉수 등과 협의한 끝에 이기순을 우리나라 망명가들이 집결해 있는 상해로 보내기로 결정했다.²⁶

정현섭은 서울과 고향인 김제, 줄포 그리고 전주 등지를 오가며 3.1운동에 참가했으며,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상해로의 망명을 결심했던 것이다. 즉, 정현섭을 25년에 걸친 중국 망명과 민족해방운동의 시작은 3.1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현섭과 함께 중국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여 투쟁하다 1933년 육삼정 의거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의 감옥에서 순국한 구파 백정기 역시 민족해방운동의 시작은 3.1운동이었다. 3.1운동 당시 백정기가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관문존』 구파 백정기 의사 행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그는 일제에 대하여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을 결심하고 동지 규합과 자금 염출에 동분서주하였다”라고 하였다.²⁷ 백정기는 3.1운동 이후인 1921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924년 중

26 정화암 저, 『이 조국 어리로 갈 것인가』, 도서출판 자유문고, 1982, 7-8쪽.

국으로 망명하였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현식 역시 3.1운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하였다. 장현식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뒤 동지를 찾던 가운데 대동단원인 이건호를 만났다. 이건호는 전국으로 사금을 찾아다니던 중에 장현식을 알게된 사이였다.²⁸

그러한 장현식에게 하나의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지주임을 이용하여 당국에서 그를 자성회(自省會)의 발기인으로 뽑아놓은 것이다. 자성회라 함은 3.1운동 직후에 더 이상의 만세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향토조직이었다. 문중의 종손인 장현식은 가문을 유지하려면 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민족의 양심으로는 자성회를 맡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빠진 그는 현장을 피해야겠다는 계산으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올라와 이건호를 만났다.²⁹

6월 7일에 이건호의 소개로 전협을 만난 장현식은 대동단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자금은 기꺼이 제공하겠노라고 응낙했다. 전협과 약속한 장현식은 6월 초에 고향으로 내려가 일금 3,000원을 마련했으나 소포로 부칠 수가 없어서 이건호를 내려오게 하여 주었고, 이건호는 이를 전협에게 전달했다.³⁰ 정남용은 이 돈으로 인쇄기를 비롯한 비용을 구입하여 황금정 6정목 42번지 2호에 있는 이건호의 집에 영동활판소라는 비밀 인쇄소를 차리었다. 이 인쇄소를 통하여 정남용이 최초로 발행한 지하문서는 『대동신보(大同申報)』였다.³¹

대동단의 활동은 의친왕 이강의 탈출 실패와 함께 중단되었다. 최익환, 이능우, 권태석 등이 1차로 검거되었다. 이어 권헌복, 박형남, 이건호, 김용의, 황란 등이 장현식의 집에 은신해 있다가 1919년 10월 7일에 여섯 사람 모두가 체포되었다.³² 1년여에 걸친 취조와 심문의 결과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 판결이 내려졌다. 대동단 단장 전협은 징역 8년, 최익환은 징역 6년, 정남용은 징역 5년, 이재호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건호, 윤용주, 동창률 송세호, 한기동, 이신애, 윤종석, 유경근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정, 권헌복, 박형남, 이을규, 정규식은 각각 징역 2년에, 권태석, 민강, 안교일, 정희종, 박원식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다. 장현식은 이정, 박정선, 김상열, 전필순, 조종환과 함께 징역 1년에 처해졌다.³³

전협이나 최익환을 비롯한 대동단의 주모자들은 스스로 공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을규를 비롯한 8명은 경성복심법원에 즉시 공소했다. 이들은 1921년 3월 23일에 이르러 이을규, 이건호, 유경근은 공소가 기각되고, 박원식은 징역 1년, 장현식, 김상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종석, 민강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³⁴

27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파 백정기』,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2009, 82쪽.

28 「장현식에 대한 예심조서」, 『대동단사건』2, 108쪽.

29 「이건호에 대한 예심 조서」(1), 『대동단사건』 3, 98-99쪽.

30 「이건호에 대한 예심 조서」(1), 『대동단사건』 3, 99-100쪽.

31 「대동단예심결정서」(2), 『동아일보』 1920. 6. 30.

32 「이건호에 대한 예심 조서」(1), 『대동단사건』 3, 101쪽.

33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20. 12. 7), 국가기록원 소장.

이후 동아일보와 중앙학원을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흥원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는 장현식의 고난은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인물들보다는 일찍 민족해방운동에 뛰어들었지만 김철수 역시 '3.1운동 세대'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1912년 일본 와세다대 정치학과로 유학을 가서 항일운동과 반제국주의운동을 시작한 김철수는 1915년 재일본 유학생들과 '열지동맹'을 결성하고, 이듬해에는 조선인·중국인·대만인과 함께 '신아동맹단'을 결성, 대일 항쟁을 선언하였다. 1916년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김철수는 군산에서 미곡도매상을 비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1917년 지역 유력자 신석우, 문명진 등과 함께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야학교 설립에 관여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김철수는 일본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제 출신의 정노식이 찾아와 만세운동 자금을 요청하자 3000원을 기부하며 지원하였다. 3.1운동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언론과 출판·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그는 1920년 6월 최린의 집에서 장덕수, 최팔용, 이봉수, 주종건, 최혁 등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목적을 지닌 「사회혁명당」을 조직했다. 사회혁명당은 김철수가 일본에서 조직한 신아동맹단이 모체였다. 김철수를 비롯한 사회혁명당 조직원은 1921년 고려공산당(상해파) 창당에 참가했다. 사회혁명당 당원으로서 국내 대표로 참가한 김철수는 고려공산당 재무담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3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때 파벌다툼으로 단일운동조직 건설에 실패하자 국내로 들어와 장현식을 만나 자금을 모으다 일경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거주제한을 당했다. 거주제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조직된 단위 사상운동단체인 전북민중운동자동맹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진로를 모색하던 중 거주제한이 해제되자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후보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1926년 6·10만세 운동과 연관되어 책임비서 강달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간부 대부분이 검거되고 홍남표와 구연흠 등이 망명한 이른바 2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당 중앙 간부로 김철수만 남게 되었다. 그는 궤멸적 상황에 이른 당 상황을 수습 정리하고 새로운 당원을 확충했고 같은 해 12월 2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당을 재건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취임합니다.

다음해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에 가서 조선공산당의 창립을 선포하고,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고, 거액의 활동자금을 수령하여 독립운동 제반 단체에 나누어 주는 등 사회주의 운동사에 굵직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만주에서 활동하다 1930년 국내에 들어와 체포된 김철수는 1945년 해방 때까지 일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에서 있었던 김철수의 투쟁 역정도 그 중심에는 3.1운동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에 잘 알려진 이상의 인물들 이외에도 수많은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가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제단에 자신들의 피를 뿌렸다. 보다 많은 '3.1

34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21. 3. 23), 국가기록원 소장.

운동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4. 맺음말

서론에서 전라북도 3.1운동의 한 특징으로 기독교와 함께 천도교가 중심 역할을 했음을 들었다. 이와 함께 시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전라북도 3.1운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군산의 영명학교,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등 기독교계 근대학교의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체세력이었다. 이는 특히 전주의 3.13 만세시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장터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던데 비해, 3월 13일의 전주 만세시위는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시위 대오를 형성하여 전주 남문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남문시장에서 전주의 민중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3.1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던 전라북도의 학생들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현섭, 백정기, 김철수처럼 해외로 망명을 떠나 민족해방운동의 제단에 몸을 던진 이들도 많았다. 국내에 있던 이들도 1920년대 문화정치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열린 공간 속에서 청년단체와 노동, 농민단체 등에서 대중운동을 통해 민족해방을 지향하였다. 1927년 결성된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들도 바로 3.1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다. 1930년대 이후 공개적인 영역에서 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밀결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명맥을 이어오던 이들도 바로 3.1운동의 기억을 가진 이들이었다.

세대적 측면에서 3.1운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3.1운동 참가자들을 개개인의 영웅적 활동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을 집합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3.1운동 세대'는 '광주학생운동 세대' 그리고 '전쟁의 세대'로 이어진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던 일제강점기를 주체적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이들을 집합적으로 추적하는 세대적 접근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 모

1920~30년대 전북의 독립운동과 3.1운동 세대

김주용(원광대)

1. 머리말
2. 전북 3.1운동의 전개
3. 청년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4. 신간회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5. 농민, 노동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6. 맺음말

1. 머리말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기념 사업의 하나로 전국의 3.1운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GIS)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3.1운동의 지역별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 제공은 이 분야 전공자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전라북도 3.1운동에 관한 자료는 앞으로 연구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

전라북도 3.1운동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많지 않은 편이었다. 주로 학위논문 형태로 나온 연구가 많다.² 최근 전라북도 각 지역별 연구 성과도 있지만 주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주였다. 이들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과 천도교, 3.1운동의 연계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³ 또한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의 현양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으며,⁴ 호남 지역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전북지역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⁵

올해는 3.1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3.1운동을 기억하고

1 '전라북도'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면 156건의 관련 사건이 나온다. 전북 각 지역의 상세한 3.1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참조).

2 전라북도 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 유원아, 「전북지역 3.1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혜진,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 성주현, 「임실지역 3.1운동 전개」, 『임실지역 3.1운동 100주년 기념 도록 迎春』, 컨티뉴, 2019 ;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4 이병규, 「호남지방의 의병,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전북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17, 2005.

5 김기주,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37, 호남사학회, 2009 ; 김종수, 호남 지역 3.1운동, 군사연구 139, 2016 ; 한규무, 「호남지역 3.1운동과 종교계-선행연구 검토와 향후과제 제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73, 2019.

기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3·1운동은 단순히 망각해야 할 사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이다. 그것도 국경일이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했다.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전북지역 독립운동은 의병부터 3.1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의열투쟁 및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과 사회주의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⁶

최근 3.1운동 참여자 분석은 각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들이 3.1운동 때 활동했던 사례 연구 성과로 표출되었다.⁷ 하지만 3.1운동을 분기점으로 의병운동 참여자는 민족운동의 전면에서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1890년대 또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청년들이 3.1운동을 직접 겪으면서 1920년대 이후 민족운동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 이들 가운데에는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그곳에서 3.1운동을 경험하고 귀국한 후 국내 부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도 있다. 또한 국내 3.1운동 이후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한 인물도 있다.

이 글에서는 3.1운동을 겪은 민족운동가들의 활동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⁹ 유형별로는 청년운동계열, 신간회, 노동·농민운동으로 나누었으며, 3.1운동 세대와 1920년대, 30년대 민족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전라북도 3.1운동 세대의 1920년대와 30년대 다른 부문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이 각 지역별 3.1운동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지극히 지역별 과잉특징주의에 매몰된 현상도 보인다. 만세시위 횃수, 순국자,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마다 자신들이 속한 곳에서 전개한 3.1운동의 강성이 두드러진다고 여기는 연구경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¹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면서 전라북도 3.1운동의 특징과 참여세대의 향후 다른 민족운동부분에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처음이라 분석 틀과 인식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파생될 수 있다.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다.

6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 44, 2014 ; 최근무, 「전북지방의 일제하 항일학생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9 ; 양만정, 「抗日獨立運動家 高平의 생애와 업적」, 『전라문화연구』 제2집, 1988 ; 윤선자, 「1933 전북조공제건 및 충남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2007.

7 성주현, 앞의 글, 2014 참조.

8 전북지역 3.1운동 참여 독립유공자는 2016년 현재 279명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1900년 이전에 태어난 인물들이다. 따라서 3.1운동 참여 세대가 20년대 이후 부문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9 지금까지 전북지역 독립운동을 3.1운동 참여세대와 연동해서 다룬 연구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10 전라북도에서 3.1운동의 위세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제의 보고 문서에 기인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소요 사건의 개황(2)’에서는 “전라북도는 비교적 평온해서 소요 발생은 1부 14군 중 불과 남원, 김제, 익산, 진안 4개 군에 그쳤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932쪽)라고 했듯이 각 지방의 보고 문건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을 인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장투쟁의 열기도 상당했다. 이리역 사건으로 불릴 만큼 1920년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통의부 관련 사건은 전북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의 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전북지역 3.1운동 전개

全羅北道는 조선 寶庫요 米庫이다.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水陸의 교통이 또한 편리한 까닭에 일본인의 침략이 다른 곳 보다도 더 격심하였다. 임업, 광업, 어업 등은 餘皆 倣此이닛가 말도 말고 조선인의 유일한 생명인 토지까지도 모도 다 그 사람의 손으로 드러가고 말았다. 其中에도 平野部--鷄卵으로 치면 노른자가튼 金提, 萬頃, 益山 沃溝, 井邑, 全州, 高敞 등은 그들의 세력이 더욱 놀랄만하게 扶植되었다. 농장으로, 精米공장으로, 水利조합으로 방방곡곡이 蹂躪을 당하여 조선인의 全생활을 侵奪하였다. 작년의 大地주는 금년에 自作農이 되고 今日的 自作농은 明日에 小작인이 되어 배주고 뱃속 비러먹는 격이 되었다. 과거의 寶庫와 米倉은 벌써 남의 것이 되고 조선인은 僅히 노력을 가지고 부속적 農奴가 되어 그날그날을 지나며 飢寒에 悲泣하고 西北間島 혹은 大阪, 東京으로 離散한다(그것도 지금은 如意치 못한다). 이제 새삼스럽게 그 상황을 드러말하는 것은 마치 死人의 병세를 論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¹¹

1920년대 잡지 개벽에 게재된 ‘일본인에게 전멸된 전북의 토지’라는 글이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대한 일제의 세력 침투는 단행되었다. 그것은 주로 곡창지대, 즉 쌀을 수탈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일제의 빠른 교통로 장악은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그 정도가 훨씬 강했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¹²

전북지역은 국내외 유학생들의 활동으로 3.1운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창의 김성수(金性洙)·김제의 정노식(鄭魯湜)·익산의 임규(林圭)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3.1운동 계획 당시부터 서울에서 관계 요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는 한편 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¹³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뜻있는 인사들과 학생들의 활동은 호남지방 3.1운동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북지방 3.1운동은 3월 5일 옥구군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군산·익산·전주 등지로 확산되었다. 전북지역에서 3.1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옥구, 군산지역이다. 옥구 구암교회에서 3월 5일 한수 이남 최초의 3.1운동이 전개되었다.¹⁴ 서울에서 이갑성에 의해 파견된 김병수가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 이두열

11 『개벽』 64호, 1925년 12월, 「日本人에게 全滅된 全北의 土地」.

12 김주용, 「중국인의 눈으로 본 3.1운동」, 『동국사학』 66, 2019, 372~373쪽.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하), 1969, 492쪽.

14 김진호, 박이준, 박철규, 『국내 3.1운동Ⅱ-남부』, 2009, 160쪽.

등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¹⁵ 3월 6일 군산 장날을 기하여 독립선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3월 5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¹⁶

독립선언서는 인종익이 전주 천도교구에 1,700매, 김진옥이 임실천도교구에 200매, 익산천도교구에 500매 전달하였다.¹⁷ 전북지방 만세운동은 3~4월에 집중되었으며 5월부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북지방 만세운동은 천도교계와 기독교계의 역할이 컸다. 전북지방은 1894년 농민전쟁의 불꽃이 처음 타오른 지역이었던 만큼 3·1운동 직전까지 전주·정읍·임실·정읍·익산·금산 등지에 종리원 조직이 두텁게 갖춰져 있었다.¹⁸ 천도교 조직은 3·1운동 당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울 중앙 총부에서 전달된 독립선언서와 3·1운동 소식은 천도교인들에 의해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전북지방 3·1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⁹

천도교계의 활동과 함께 기독교계 학교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었다. 전주 신흥학교·기전여학교, 군산 영명학교 등은 만세운동 확산에 큰 물고를 터주었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 학생들의 조직적 참여와 군중의 자발적 참여는 전북지방 만세운동의 가늠자 역할을 하였다.²⁰ 기독교계는 학교설립과 함께 ‘제중의원’ 등 의료시설도 함께 보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계의 각 기관들은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기독교계와 긴밀한 연대로 3·1운동 확산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불교계는 장수군의 백용성(白龍成)이 민족대표에 참여하는 등 만세운동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²¹

전북지방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부분적으로 산상 봉화시위와 만세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일제 당국은 전북지방 만세운동에 무력진압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으며, 전북 이리의 문용기의 경우, 일제의 무력진압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거하다 순국하기도 하였다.²² 전북지방 만세운동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거족적 민족운동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주에 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19년 3월 1일이었다. 3월 1일 서울 천도교구 인종익이 전주 천도교구실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자, 배상·김진옥 등이 인근 임실·익산·이리·김제·옥구·정읍·부안 등지로 이를 전파하면서 확산되었다.²³

한편 기독교계는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 3·1운동을 계획하였다.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학생들은 신흥학교 지하실 등에서 태극기와 선언서를 준비

15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전북 군산일대 선언서 배포」.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24쪽.

17 이병현, 『3·1운동비사』, 901쪽.

18 성주현, 앞의 글, 147쪽.

19 김진호, 박이준, 박철규, 앞의 책, 141쪽.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495쪽.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92쪽.

22 문용기가 순국할 당시 입고 있었던 血衣는 현재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문용기 열사의 순국할 때의 장면에 대해 여러 글들에서는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했는데 혈의에는 총검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문용기 열사의 순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참여자들이 과장되어 이야기 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다.

23 성주현, 앞의 글, 149~152쪽.

하였다.²⁴ 서문교회의 김인전 목사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임영신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 거사를 전해 듣고 1919년 3월 13일(음 2월 12일)의 전주읍 장날을 기하여 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일제가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3일 전주읍 장날로 정한 것이다. 천도교에서도 배상근·김진옥 등이 교구실 등사판을 이용하여 선언서 수천 장을 등사하는 등 만세시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²⁵

3월 13일 12시 30분경 강선철이 태극기가 든 가마니 1개를 보통학교 교정에 갖다 놓음으로써 만세시위 준비는 끝났다. 이어 시장 입구인 완산동과 천주교 성당 건너편에서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준비한 태극기를 배부하고 12시 20분 경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어 전주제이공립보통학교 교정 부근까지 행진하여 만세시위를 하였다.²⁶

전주읍에서 3월 23일 전주 장날을 이용해 수천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군청·경찰서·재판소가 위치한 큰 거리를 지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긴급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20여 명이 붙잡혔다. 4월에 접어들어서도 상인들은 철시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4월 3일 김봉근 고물상은 일본기를 게양하고 장사를 계속하는 상인을 찾아가 “조선의 상인들이 독립을 부르짖고 철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기를 걸고 영업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철시를 요구하는 등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²⁷

3월 1일 전주, 옥구로 전달되었던 독립선언서가 익산에 도착하였으며, 익산군 북일면 현영리에서 태어난 이종열은 가장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기획하였다. 이 지역 천도교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이종열은 각 면의 천도교 만세운동 조직책을 구성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등, 함열, 여산, 용안, 황화, 팔봉 등 8권역을 정해놓고 3.1운동을 계획하였다.²⁸ 이종열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뿐 아니라 이형우, 서상윤과 송일성, 민영순에게도 독립선언서를 주어서 이리 일대와 논산, 강경 등 충청도 지방까지도 배포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3월 12일 이종열은 함열장 한복판에서 수백명의 장사꾼들이 모인 가운데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여 그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게 하였다고 한다.²⁹

남원에서는 이기원, 유태홍,³⁰ 이기동, 박기영³¹ 등이 독립선언서를 수령한 후 4월 3일과 4일에 걸쳐 3.1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³² 임실에서는 김영원 등이 주축이 되어 3.1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³³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지역에서도 천도교와 기독교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96쪽.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와 같음.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97쪽.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01쪽.

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17쪽.

29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데이터베이스, 「전북익산군 선언서 배포」.

30 1920년대 남원 신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31 박기영은 3.1운동 이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군자금 제공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하겠다.

32 조규태, 앞의 글, 122~123쪽.

교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³⁴

이처럼 천도교와 기독교 및 학생들의 조직망을 활용해서 계획된 3.1운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선언서가 일반인들에게도 배포되어 민중들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개되었다.³⁵

3. 청년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작은 단체 설립이 추동되었다. 청년단체의 추동력은 일제강점기 항일의 주요 추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전주를 비롯하여 이리, 군산, 정읍, 고창 등 각 지역에서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³⁶

3.1운동 이후 전주지역에도 새로운 운동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청년단체의 등장이기도하다. 1910년대 비밀결사 형태의 반일독립운동의 경험과 3·1운동 당시 곳곳의 비밀독립운동 지도부의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회 또는 청년단체는 일반에게는 지방문화의 중추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³⁷ 전주지역에서 이러한 성격의 청년단체는 전주청년구락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청년구락부는 1919년 3월 창립되었다.³⁸ 1920년 5월 23일 전북공회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³⁹ 또 같은 달 22일에는 같은 공간에서 ‘자본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반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⁴⁰ 전주청년구락부는 창립 이래 강연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⁴¹ 1921년 전주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⁴²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개조운동과 문화운동 조류와 함께 하면서 그를 지도할 상설적 기관의 필요성이 청년회의 결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년회는 일반에게 ‘지방문화의 중추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청년단체는 정기적인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어 회원의 지식을 계발하였다. 이는 이미 1900년대 계몽운동 시기부터 각종 계몽단체에서 중심으로 전개하던 사업이었다. 강연회와 토론회는 회원의 수양과 훈련, 대중의 계몽수단으로 여겨졌다. 강연자들은 청년단체의 지도자는 물론 국내외의 선진적인 사회운동가들로 구성되었다. 강연회와 토

33 김철배, 「임실 동학접주 김영원의 생애와 3.1운동」,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발표집, 2019, 113쪽.

34 이종수, 앞의 글, 137~138쪽.

35 유원아, 앞의 글, 14쪽.

36 김재영, 「1920년대 고창지역의 청년운동」, 역사학연구 33, 호남사학회, 2008

37 박철하, 『청년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5쪽.

38 『동아일보』 1927년 1월 2일, 「전주청년회와 김준희씨」.

39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 「전주청년구락부총회」.

40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 「전주청년구락부총회」.

41 『동아일보』 1920년 5월 28일 「청년구락부총회」. 전주청년구락부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전북공회당에서 본부 운명에 관한 중대사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총무 신일용군의 개회의 사, 문예부주임 정진모 군의 경과보고가 유한 후 본부 장래에 대하여 통상 부원 신일용군, 신석주 정진모 박병익 4명이 열렬한 웅변으로 강연하였다(『동아일보』 1920년 6월 15일, 「全州靑年俱樂部講演會: 新舊思想의 調和(鄭應高), 朝鮮靑年의 現在와 將來(沈友燮)」).

42 『동아일보』 1927년 1월 2일, 「전주청년회와 김준희씨」.

론회의 주제는 주로 청년회의 목적 및 사업계획, 현대 사조, 여성문제, 자본과 노동, 지방발전과 민족의 장래 등 다양한 내용들이 취급되었다. 1921년 중반 이후부터는 자본과 노동문제, 여성문제, 조선의 현실과 현대사상 등의 주제가 자주 등장하며 마르크스·크로포트킨 등의 이론도 자주 등장했다. 강연회는 저녁에 2~3시간씩 계속되었고, 자유등단의 기회도 주어졌으며 독창·바이올린 연주·피아노 연주 등 근대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강연회에는 500~1,000여 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 새로운 지식과 문화에 목말라하는 청년과 일반대중들의 욕구를 잘 알 수 있다.⁴³

1921년부터 청년단체들은 가능한 한 관헌 및 학교의 접근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3.1운동 관련자와 외국이나 도시로 유학했던 학생들이 점차 청년회로 들어오거나 새로운 청년단체를 조직하였다.⁴⁴ 전주지역 청년운동에서 주목되는 인물 가운데 신시철은 도쿄 유학시 1919년 2.8독립운동을 경험하였으며, 귀국 후 전주청년회의 주도적 인물로 성장하였다. 1924년 전주청년회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진을 교체하였다. 이때 신시철은 체육부 위원에 선임되었다.⁴⁵ 그후 그는 민중운동연맹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9년에는 비밀결사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⁴⁶ 신시철은 당시 상법학교 교사였으며, 하운실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함께 청년들에게 사상운동을 전파하였다는 혐의였다.

익산(이리)지역 청년운동에서 3.1운동과 연계된 인물로는 먼저 김병수를 들 수 있다. 그는 3.1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자신의 고향인 전북에 배포한 인물이다. 당시 세브란스의전 학생으로 이갑성의 지시를 받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김병수는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⁴⁷ 그후 학교를 졸업하고 이리에 삼산의원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운동 특히 청년운동 및 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특히 그는 이리기독교청년회와 이리노동청년회를 통해 자신의 활동외연을 확대하였다. 1923년 6월 23일 김병수는 이리기독교청년회 문예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문명적 세계개조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대주제 하에 ‘땀’이라는 강연주제를 통하여 민중계몽에 앞장섰다.⁴⁸ 1924년 3월 2일 그는 노동청년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였으며, 당시 다른 연사들의 강연도 사회운동, 사회생활의 필요, 농민운동 등이었다.⁴⁹ 강연회에 참여했던 청중 100여 명이 큰 감동을 받았을 정도 그의 강연은 이리청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1926년 삼산의원과 함께 이리광희여숙 숙장을 맡으면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43 박철하, 앞의 책, 26~27쪽.

44 박철하, 앞의 책, 24쪽.

45 『동아일보』 1924년 8월 19일, 「전주청년 대동단결」.

46 『동아일보』 1929년 7월 15일, 「신시철중심 비밀결사 모의」; 『중외일보』 1929년 7월 14일, 「효두에 형사를 비상소집」.

47 김병수 판결문 참조(국가기록원 김병수 판결문 참조).

48 『동아일보』 1923년 6월 29일, 「裡里基督青年會 主催 自由講演會: 文明的 世界改造와 우리의 使命은 무엇(吳秀根), 땀(金炳洙), 民衆衛生(尹昌容)」.

49 『동아일보』 1924년 3월 6일, 「裡里勞農青年自由講演會: 社會運動(金顯吉), 社會生活의 必要(林仲桓), 勞農青年의 使命(金炳洙), 農民運動(趙正熙)」.

교육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다. 생을 구하는 것은 유기체의 본능이다. 자기의 생명을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구하여야 한다. 양곡을 수확코저 하는 자 먼저 농구를 준비하며 대해를 향해코자 하는 자 견고한 선박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생을 구코자 하는 자 반드시 먼저 교육을 장려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⁵⁰

고창청년회에도 전북 지역 청년회와 마찬가지로 대중강연과 민지개발 등 반일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⁵¹ 대표적인 인물로 金升玉(1889~1964)을 들 수 있다. 김승옥은 1919년 3월 21일 고창읍내에서 오동균과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오동균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창가를 등사하여 일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1919년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 받았다.⁵² 복역한 후 그는 1926년 8월 16일 고창노동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무주택 회원들에게 합숙 훈련소를 마련하거나 노동야학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⁵³ 1928년에는 이 단체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다.⁵⁴ 그후 사회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⁵⁵ 그는 1925년 12월 27일 고창청년회는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만주 피난 형제 위문에 관한 건을 협의하였다.⁵⁶ 1926년 1월 20일 고창청년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승옥은 위원장으로 고창고보 분규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청년회의 응비를 위한 대책 강구를 기획하였다.⁵⁷

또한 고창의 강대선은 1919년 5월 신창학교에서 대한 독립 애국단 단원 김영식으로 부터 단의 취지를 듣고 이에 가입하였다. 유영희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은 일제에 의해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⁵⁸

군산의 노춘만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제공하려고 했다. 그는 당시 옥구군 천도교 포교 교사였다.⁵⁹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예이다. 이로 인해 1923년 노춘만은 57세의 나이에 징역 1년 6개월은 언도 받았다.⁶⁰ 또한 군산의 趙容寬은 李丙義, 朴衡秉 등과 함께 勞働者社를 설치하고 노동잡지 발간을 계획하였다.⁶¹

익산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한 배현의 경우 국내 3.1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

50 『동아일보』 1926년 1월 3일, 「교육에 대하여 이것을 먼저 힘써시다」.

51 김재영, 「1920년대 고창지역의 청년운동」, 130쪽.

52 국가기록원 「김승옥 판결문」 ; 『매일신보』 1919년 5월 13일, 「고창소요공판」.

53 『매일신보』 1926년 9월 5일, 「고창무산자 노동야학개시」. 9월 1일부터 노동야학을 개시하였다.

54 『매일신보』 1928년 1월 19일, 「고창노동회 임시총회개최 위원제로 변경」.

55 『매일신보』 1935년 5월 19일, 「고창공보교의 교사증축운동」.

56 『시대일보』 1925년 12월 31일, 「고창청년 긴급회 피난동포동정으로」.

57 『시대일보』 1926년 1월 23일, 「고창청년 긴급위원회 고창고보문제도」.

58 조규태, 「일제강점기 전북 고창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26, 2012, 147~148쪽.

59 『동아일보』 1923년 1월 16일, 「전북에도 중대사건」. 3.1운동 이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로는 박기영을 들 수 있다.

60 노춘만 판결문(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61 『동아일보』 1925년 3월 9일

만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적극적인 청년운동 및 신간회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1925년 전라북도 청년연맹이 각 지역 청년단체를 회합하여 '연맹'으로 거듭 날 때 전형위원으로 송주상, 임혁근과 당선되었다. 당시 선언과 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서무부 배헌·송주상·임혁근이 선임되었고, 조사부에는 이봉길·이행규, 교육부는 이평권·정천종이 선임되었다. 당시 정해진 선언 및 강령과 규약은 다음과 같다.

선언

만국무산청년아 단결하라 우리는 인류역사가 근본적으로 개조되려는 계단에 있어서 청년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하고 그 사명을 수행함에는 그 운동체가 유기적 통일에 있음을 선언한다.

청년!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질대 그의식, 감정, 기분이 공통연대일 것이요. 따라서 그 사명이 동일하다. 1886년을 기로하여 청년은 사회적 직책을 의식하고 진실한 목표를 향하여 용주매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최기적 분위기는 더욱 청년의 행로들을 기함우회케한다. 보라 혹은 최면적인 종교의 요운으로서 회명하고 혹은 유혼적 철학의 상우로서 미혼하고 혹은 매음적 예술의 향연으로서 몽롱하여 그 이상을 응색하야.(중략) 아! 전북청년동지단체여 결정적 의식과 대동단결의 권위로서 모든 장애를 소탕하자.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할 목표는 절박하였다. 미래는 청년의 것!

강령

- 본 연맹은 대중 본위인 합리적 사회를 실현함에 능동적 견실한 역원은 청년의 유기적 조직과 통일에 있음을 신함
 - 본 연맹은 자유경쟁의 직업적 필요한 지식을 거부하고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하여 대중의 파지하는 정의와 추구하는 이상에 자할 과학을 교양하기에 공헌함
 - 본 연맹은 대중의 현하 이익을 위한 투쟁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원조함
- 규약 전문 7장 23조⁶²

이 때 배헌과 함께 활동했던 임혁근·임형택 역시 3.1운동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고향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것 같다. 이들은 1925년 조용관·김영휘·장일환·김병주·임종환·김희영·이봉길 등과 함께 전북민중운동자 동맹을 결성하여 식민지 하에서 신흥하고 있는 민중들의 지위 개선을 위해 경주하였다.⁶³ 또한 임혁근은 전북노동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원으로 노동문제 해결 위원으로 활약하였다.⁶⁴ 임혁근을 비롯한 전북 이리청년회 신입위원들은 1927년 4월 16일 청년회관 내에 제1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임혁근의 사회 하에 취임 위원 9인이 각각 부서를 정한 후 의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이리유치원내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할 것과 전북청년연맹정기대회에 출석할 대의원으로 송

62 『시대일보』 1925년 11월 4일, 「전라북도 청년연맹」.

63 『시대일보』 1925년 10월 1일.

64 『중외일보』 1927년 4월 5일.

시용과 임혁근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⁶⁵

전북청년연맹에서는 1925년 12월 20일 이리청년회관에서 긴급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에서 부호 박기순이 동 연맹 외 3개 단체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보고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⁶⁶

결의

- 본 연맹은 금반 간판문제에 관하여 일반에게 박기순의 만행을 알림
- 가맹을 권유키 위하여 위원 중 김행규, 이봉길, 이평권 임혁근 등을 순회하게 함.⁶⁷

이 때 임혁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지를 순회하였다. 임혁근은 전북이리청년회에서 노동하는 청소년의 교양을 목적으로 동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노동야학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생도까지 모집할 때 교사로 활동했다. 그 때 활동했던 교사로로는 김현길·양상경 등이 있다.⁶⁸

익산군 이리에서 유지들의 발기로 1925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이리청년회관에서 40여 명이 소년을 모이게 하고 백찬기의 개회사, 임혁근의 경과보고, 임시의장 배현의 사회로 이리소년회를 창립하고 사무소는 이리청년회에 두었다.⁶⁹ 임혁근과 함께 청년회에서 활동했던 이리 출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는 林榮澤이다.

1926년 12월 경성청년회연합회에 이어 1927년 5월 신흥청년동맹에서 청총에 제출한 건의안은 당시 새로운 청년운동 방침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총은 1927년 6월 17일 제4회 집행위원회에서 ‘신운동방침’을 수립하고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을 선언하였다. 청총은 “무산계급 청년운동을 전 민족적 청년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고, 郡·府청년동맹을 토대로 한 조직방침을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 ‘書面大會’ 형식을 빌어 지방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때 전북에서는 李平權과 임영택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⁷⁰

한편 조선총독부는 1927년부터 각 지방의 기존 청년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국고 13,000원을 책정하고 이를 각 道의 지방비 예산으로 설정했다. 1929년에 들어와서는 청년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각 도의 改良費 대부분을 청년단체 보조금으로 이용했다. 기존 청년단체를 어용화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점차 실효를 거두었다. 1929년 9월 현재 경상남도의 삼랑진청년회, 평안남도의 壽山青年會, 강원도의 松岩青年團, 함경남도의 下車書農村青年會등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어용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전라북도의 ‘府尹郡守會議’에서는 ‘실업청년단’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⁷¹ 새로운 운동 방향이 모색되는 시점이

65 『중외일보』 1927년 4월 21일 「동집행위원회」.

66 이른바 사단문패 사건이다. 『동아일보』, 1925년 12월 13일, 「전주청년회관 간판을 돌연제거」.

67 『시대일보』 1925년 12월 23일 「전북청년연맹 긴급위원회」.

68 『시대일보』 1925년 11월 25일 「이청노동야학」.

69 『시대일보』 1925년 11월 10일 「이리에서 소년회창립」.

70 『동아일보』 1925년 3월 9일.

다.

4. 신간회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신간회는 1920년대 중반 국내 민족운동의 분기점으로 작용한 결과 조직된 단체이다. 신간회 창립의 본격적 준비는 1926년 12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홍명희·안재홍·신석우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신간회를 창립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였다.⁷²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완전독립, 절대독립에 바탕을 둔 비타협적 민족운동의 실천이었다. 그 강령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며 조직단결과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하였다.

신간회 중앙에서는 전라북도예 전주지회, 중앙지회 등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신간회 익산지회는 설립초기부터 난항이었다. 1927년 6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준비위원들이 그 전날 선전물을 이리 시내 각 곳에 뿌렸다. 이리경찰서는 선전문을 압수하고 대회준비위원 가운데 배헌, 임혁근, 임영택을 출판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⁷³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신간회 익산지회 사건의 보면 다음과 같다.

신간회 익산지회 설립에 저간 중비중이었다가 지난 29일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대회 전날인 28일에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살포한 동 설립대회 선전문이 말성이 되어 28일에 이리서에서는 경관대가 돌연히 이리 청년회관을 포위하고 엄중히 수색한 후 산포하고 남은 선전문을 몰수하는 동시에 동 설립대회 위원이며 선전문을 인쇄배포한 책임자 배헌, 임혁근, 임영택을 구금 취조하는 동시에 29일 집회도 금지.⁷⁴

일제는 1927년 8월 31일 新幹會 益山支會 설립대회 전에 배포한 격문 가운데 ‘신간회 운동은 독립운동의 수확기이다’라는 내용이 ‘불온’하다고 하여 임혁근, 배헌, 임영택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전주 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언도받았지만 상고한 결과 대국 복심법원에서는 벌금 처분에 그쳤다.⁷⁵ 그들이 출옥했을 당시의 신문기사 내용이다.

전북 이리에서는 신간회지회 창립사건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어 작년 6월 이후 군산, 대구에서 오랫동안 철창생활을 하여 오던 배헌, 임혁근, 임영택 삼씨는 지난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처분으로 출감하였다함은 본보에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동 삼씨는 이리착 열차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당지 각 단체에서는 그러한 씨들을 의미있게 마

71 박철하, 앞의 글 참조.

72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2009, 35쪽.

73 『동아일보』 1927년 7월 1일, 「신간회 익산대회 설립대회를 금지」.

74 『동아일보』 1927년 7월 7일, 위원 「배헌 임혁근 임영택 3씨 검사국으로 호송. 성립대회는 의연히 금지해, 신간회 익산지회사건」.

75 『동아일보』 1927년 9월 10일.

지하기 위하여 임시연합회를 열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중략) 무려 수천군중으로 이리정거장 일대에는 인산인해의 큰 성황을 이루었는데 정각이 되자 기차에서 내린 삼씨는 썩썩한 얼굴에 눈물 섞인 우습을 띄우고 도열한 장소에 도착하여 많은 환영을 받으며, 당지 청년회관으로 들어갔다.⁷⁶

신간회 운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컸다. 전북지역 신간회 운동에서 3.1운동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한 경우는 곳곳에 보인다. 익산지역의 배헌, 임혁근, 임영택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1890년부터 1900년 초반에 태어났다. 이들 가운데 임혁근은 조선공산당 제2차 대회 때 전북대표로 참석하였으며, 1928년 4월 중외일보 이리지국장으로서 전북 기자단 정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검거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34년 옥중순국하였다.⁷⁷

1927년 8월 12일 신간회 남원 지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회장에는 박기영, 부회장은 양주하였으며, 유태홍은 총무간사를 담당하였다.⁷⁸ 회장 박기영은 3.1운동 직후 당시 경성부 자신의 하숙집에서 이충모, 김형준, 양재명 등과 회합하여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주요 목적으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결하여 국내 독립운동을 추동하려고 하였다.⁷⁹ 그는 1920년 3월 1일 독립시위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체포되었고 특히 독립자금을 상해에 보냈다는 이유로 1922년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⁸⁰ 출소 후 박기영은 남원교구 천도교인들의 사회를 변혁을 목적으로 청년단체를 만들어 그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설립과 함께 남원 내 여러 청년단체의 통합을 시도하여 남원청년동맹을 설립하였다.⁸¹ 1927년 8월 26일 남원청년동맹에서 남원예배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박기영은 ‘吾人の進路’라는 주제로 발표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발표가 금지당했다. 당시 강연회의 주제로는 ‘조선청년운동의 사적 고찰’, ‘청년운동의 今後’ 등이었으며, ‘남원초유’의 강연회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다.⁸²

그 해 10월 4일 남원청년동맹에서는 추계학술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박기영은 ‘생물의 일반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당시 같은 강연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양주하의 강연을 남원경찰서에서 내용이 ‘불온’하다고 판단되어 강연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다.⁸³

1928년 3월 30일 신간회 남원지회에서는 본회 회관에서 박기영의 사회로 제1회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토의사항으로 첫째 예산에 관한 건, 둘째 회관에 관한 건, 셋째 전국대회 해금의 건, 넷째 노동단체 축진의 건을 상정하였다. 특히 회관 건축에

76 『동아일보』 1928년 2월 29일, 「삼씨출옥 귀환」.

77 『매일신보』 1930년 12월 10일, 「임혁근의 5년위시 전부체형을 구형」: 국가보훈처 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공적조서(임혁근).

78 『동아일보』 1927년 8월 16일, 「신간회 남원지회 설립」.

79 독립운동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545쪽.

80 박기영관결문(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동아일보 1922년 2월 13일, 고종조소양을 기회로 비밀로 문서를 경성에 배포하여 독립운동하려는 대한국민회 박기영 공판.

81 조규태, 앞의 글, 128쪽.

82 『동아일보』 1927년 8월 31일, 「남원강연성황, 청년동맹주최」.

83 『동아일보』 1927년 10월 10일, 「남원에서 도 성황」.

관해서는 남원청년동맹 회관 건축기성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영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⁸⁴

남원 출신의 유태홍은 남원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참여하였으며, 남원 3.1운동의 서장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⁸⁵ 특히 그의 신간회 참여는 60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1년의 옥고를 치루고 여전히 남원교구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자결사상과 독립사상을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다. 1928년 1월 15일에 신간회 남원지회에서는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유태홍을 회장으로 임명하였다.⁸⁶ 신간회 남원 지회에서는 여러 차례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경찰당국의 간섭으로 연기를 거듭하다가 같은 해 1월 11일 해금되어 신간회 회관에서 총무간사 사회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유태홍은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당시 이 회의에서는 동회관 건축가 회원 퇴회 및 신간잡지 간행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였다.⁸⁷ 1929년 2월 13일 남원지회 2차 정기대회에서 유태홍은 회장에 연임되었으며, 최병현도 총무간사의 한 사람으로 연임되었다.⁸⁸

최병현은 남원지역 3.1운동 당시 천도교 남원교구에 속해 있었으며, 이문원을 맡았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역할을 맡았다. 1924년에는 천도교 남원교구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유태홍과 함께 남원 신간회 조직의 총무간사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⁸⁹ 또한 형평사 남원 분사에서도 활동하는 등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⁹⁰ 1928년 4월에는 남원 신간회 주최 노동단체 촉진 준비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⁹¹

5. 농민, 노동운동과 3.1운동 참여세대

3.1운동 이후 전북지역에서도 한반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현실인식과 자각이 진일보하였다. 전북은 일제가 수리조합 조직 및 농사에 관한 지배체제 완비를 위해 많은 기간시설을 설치한 곳이다. 전북 옥구의 이엽사농장 소작농민들이 옥구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일본인 식민농업회사인 이엽사와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한 농민항쟁이다. 이엽사는 일본인 지주 白勢春三과 白勢量作이 1926년 설립한 전형적인 식민농업회사로서 본점을 전주에 두고 있었다.⁹² 1927년 경 이엽사는 전주의 삼례농장, 익산군의 黃登농장, 옥구군의 瑞穗농장 등 3개의 농장에 모두 1,200정보는 1,000정보, 밭 200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1,700여 명의 한국 소작농민들

84 『중외일보』 1928년 4월 5일, 「신간남원지회 제1회간사회」.

85 성주현, 「동학농민군 유태홍과 3.1운동, 3.1운동 100주년기념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2019, 136~137쪽.

86 『중외일보』 1928년 1월 20일, 「남원신간정기대회」.

87 『중외일보』 1929년 10월 26일자, 「남원신지총무간사회」.

88 『조선일보』 1927년 2월 17일 신간회 「남원지회 2회 정기대회」.

89 『중외일보』 1927년 8월 16일, 「신간회 남원지회 조직」.

90 『중외일보』 1927년 8월 22일, 「남원형평사 혁충」.

91 『중외일보』 1928년 4월 5일, 「노동단체 촉진, 준비위원 선거」.

92 김용달, 『농민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04쪽.

로 하여금 경작케 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특히 옥구의 서수농장은 1905년 川崎藤太郎이 서수면에 설치하였던 천기농장을 인수한 것인데, 이 농장에서 1927년 11월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원인은 7.5할이라는 고율의 소작료에서 비롯되었다.⁹³

당시 소작농민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옥구농민조합 위원장 장태성(장공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농장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작료를 4.5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농장측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11월 24일 조합측은 소작료 불납을 결의하면서 쟁의에 돌입하였다. 이 쟁의를 이끌었던 장태성은 1909년 생으로 3.1운동 당시 10세였기 때문에 직접 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만 옥구는 전북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며, 어른들에게서 그 사실을 직접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3.1운동의 일정부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27년 11월 10일 장태성은 옥구군 청년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가산회관에서 준비회를 개최할 때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⁹⁴ 그리고 동월 25일 이른바 옥구 소장쟁의를 이끌었으며, 군산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었다.⁹⁵ 이에 농민조합에서는 경찰이 간부를 검거한 것에 대하여 옥구군 서수면 파출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농업 수탈 사기업체인 이엽사의 행태와 소작쟁의로 검거당한 장태성 등에 대하여 군산 각 단체 대표들이 경찰 당국자와 질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⁹⁶

소작쟁의가 이 같이 농민·노동자·학생 등의 연대투쟁으로 격화되어 가자, 군산경찰서에서는 인근 경찰서의 지원은 물론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쟁의를 탄압하였다. 옥구군수와 군산경찰서 등 식민통치 당국과 이엽사 농장주가 함께 나서서 소작료 인하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합원 80여 명이 체포되어 12월 8일에 51명이 송치되고, 장태옥 등 3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옥구 이엽사농장의 소작쟁의는 옥구농민조합이 주도한 농민운동으로 일제의 식민수탈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항일 농민운동의 양상과 1920년대 후반의 혁명적 농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⁹⁷

익산의 배현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신간회운동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아일보 이리 지국장으로 있으면서 각 지역 저축조합 설치에 관심을 보였다.⁹⁸ 1928년에는 이리 僱工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교양 함양을 위한 강연회에서 ‘건축사업의 주력은 정신적이냐? 물질적냐?’라는 주제에 대한 비평으로 참여하였다.⁹⁹ 이러한 활동으로 1930년 3월에 이리경찰서에 검속되기도 했다.¹⁰⁰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에

93 『중외일보』 1927년 11월 28일, 「소작인 수백명이 대거 주재소를 습격, 형세 험악하여 경관 도주, 군산일대 인심흉흉」.

94 『중외일보』 1927년 11월 15일, 「옥구청년 동맹조직 준비진행」.

95 『중외일보』 1927년 11월 28일, 「소작인수백명이 대거주재소를 습격」.

96 『중외일보』 1927년 11월 30일, 「군산 각단체 대표 검거 이유질문」. 장태성은 이후에도 군산철도노동회를 조직하여 간부로 활동하였다(『중외일보』 1930년 7월 18일, 「군산검거사건 검거범위확대」).

97 김용달, 앞의 책, 105쪽.

98 『동아일보』 1929년 1월 2일, 「임실군남악리 진회 기사의 계속」.

99 『중외일보』 1928년 7월 20일, 「이리각단체연합토론회」.

100 『중외일보』 1930년 3월 5일, 「이리서에서 주요인물검속」.

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자치적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가 관계하는 勞働組合에서는 일즉이 총회의 決議로서 消費組合設置를 率先提唱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의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임이 再昨冬에 第一着으로 組合本館 압 四街里大路邊에다가 40餘坪의 건물을 新築하얏고 第二段으로는 昨秋에는 小規模이나마 업무를 개시하얏든 계획이엿습니다. 그리다가 所謂不景氣의 餘波이라기 보다도 天氣不調로 일거리가 적어서 暫時挫折狀態임에 多少焦燥한 마음도 업지 안으나 시작이 畚으로 그다지 悲觀하지 안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經路도 實로 苦心慘愴이엿스나 이제는 全組合員의 確實한 의식과 各友誼團體의 絶大聲援으로 그 保進을 期하는 터이때 느저도 新春에는 誕生在邇하다고 자신하는 터입니다. 이에 주력하는 이유로는 무슨 값고 어려운 의미를 다 떠나서 단순히 1. 共同購入과 供給이 유리하다는 것 2. 自治的 精神을 助長한다는 것.¹⁰¹

배헌은 전북지역 각종 부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소비조합뿐만 아니라 금융조합에도 관여하였다. 1934년에는 이리금융조합 평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¹⁰² 생활개선 사업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1936년에는 전주이재민 구호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¹⁰³

한편 1930년 10월 익산지국장이었던 배헌이 사임하고 김병수가 취임하였다.¹⁰⁴ 김병수는 경영난에 빠진 이리고아원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북 이리사립 고아원이 창설 이래 허다한 파란곡절과 간난 신고로 기초적 자원이 없어 유치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산의원 김병수 씨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난이 해결됨.¹⁰⁵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임금노동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임노동의 중심인 공장노동자층도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기반시설의 구축과 물자의 집산과 운반, 그리고 도시의 발전 등을 배경으로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노동의 수요에 따라 부두와 항만, 철도역과 거리에서 운수·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층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노동회·노우회·노동친목회·노동조합·노동계 등의 이름을 내건 노동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¹⁰⁶

전북지역 노동운동에서 3.1운동 참여세력은 연령대로 1890년대 또는 1900년대 출생

101 『별건곤』 제36호, 1931년 1월 1일, 「전선삼천리」.

102 『매일신보』 1934년 4월 18일, 「이리금융조합」.

103 『매일신보』 1936년 8월 19일, 「진주재민에게 구금 500원」.

104 『동아일보』 1930년 10월 21일, 「裡里支局長 裴憲 辭任, 金炳洙 就任」.

105 『동아일보』 1938년 11월 18일 「경영난에 빠진 이리고아원 서광」.

106 김경일, 『노동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89쪽.

인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1900년 옥구에서 태어난 김성철은 1927년 5월 14일 전북 金堤勞動組合 임시총회에서 新幹會 群山支會 대표로 참가하였다.¹⁰⁷ 김성철은 사회제도 모순 및 민족압박 내용의 축사를 하였으며 집회는 해산당하였다. 그는 1930년 치안유지법으로 2년 복역한 후 1931년 출소하였다.¹⁰⁸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전라북도 3.1운동 세대가 1920년대와 30년대 독립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성숙된 민의가 3.1운동에도 세대간 단절보다는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활동을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

전라북도 3.1운동의 정신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와 기독교 정신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의 주체는 종교와 학생층이었지만 일반민중이 참가한 대규모 항일투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세력이 25년이 지난 1919년 3.1운동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3.1운동 참여 인물들이 1920년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민족운동에서 활동하였다. 3.1운동 참여세력이 민족운동에 뛰어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운동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도쿄 2.8 독립선언 당시 유학생이었던 전주 출신의 신시철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독립운동의 인재배양에도 힘썼다. 김제 출신의 김병수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자신이 다녔던 군산 영명학교 교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옥고를 치른 후에도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신청년을 꿈꾸면서 청년운동과 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고창지역의 김승옥은 고창청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년운동을 이끌었고 야학운동도 병행하였다. 익산지역에서 활동했던 배헌은 3.1운동을 중국에서 경험하고 귀환하여 청년운동과 신간회운동, 노동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신간회운동에서 익산지역 배헌, 임혁근, 임영택은 청년운동부터 신간회운동을 함께 하였다. 특히 임혁근은 사회주의운동에도 참여하여 수차례 옥고를 겪었다. 이들은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이들과 동년배 가운데 남원에서 활동했던 박기영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자금운동 및 남원 신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독립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루었지만 남원 지역 청년운동과 신간회 운동을 이끌었다. 그런데 60대에 신간회 운동에 참여한 인물도 있다. 남원의 유태홍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원지역 동학 접주였으며, 3.1운동을 거쳐 신간회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민운동에서는 옥구 이엽사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장태성과 옥구 신간회를 이끌었던 김성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며, 3.1운동 때는 10세 전후였다. 직접적인 세대라고 볼 수 없지만 3.1운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

107 『일제침략하36년사』 8, 451쪽.

1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년대 이후 활동에 3.1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3.1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인물은 드물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3.1운동 참여인물의 연령, 직업, 신분 등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져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 글은 그 단초를 여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부록> 3.1운동 참여자의 1920년대 이후 활동상황

이름	생몰년	활동지역(출생)	운동계열	비고
김병수	1898-1951	익산(김제)	신간회 운동, 교육운동	
박기영	1893-1938	남원(남원)	임시정부와 군자금 모집, 신간회 운동	해외 군자금 모집
유태홍	1867-1950	남원(남원)	신간회	동학 접주
배헌	1896-1955	익산(익산, 군산)	신간회, 노동운동	신 흥 무 관 학 교 , 동아일보 지국장
임혁근	1898-1934	익산(익산)	신간회, 노동운동, 사회주의	옥사
임영택	1901-1957	익산(익산)	청년운동, 신간회운동	
김승옥	1889-1964	고창(고창)	청년운동, 신간회	
노춘만	1867-1947	옥구(옥구)	신간회	임시정부 독립자금 제공
최병현	1888-1957	남원(남원)	신간회	
조용관	1885-1950	익산(군산)	노동운동, 신간회	

메 모

전시체제기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과 ‘3.1운동 세대’

변은진(전주대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일제의 전시수탈과 ‘불온’한 전북인
 - 1. 전시수탈로 인한 불안과 불만의 고조
 - 2. ‘불온’ 언동과 ‘일제패망 인식’의 확산
 - III.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과 ‘3.1운동 세대’
 - 1.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 현황
 - 2. 3.1운동 이전 전통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 3. 3.1운동 이후 일제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 IV. 맺음말
- <참고> 전북지역 항일비밀결사운동의 대표 사례

1. 머리말

일제말 전시체제기(1937~45)는 흔히 동화주의에 입각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침략전쟁과 파시즘의 논리에 입각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라는 프레임을 통해 굴절되고, 이것이 조선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침투해 들어간 암울한 민족말살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선인의 근대 자본주의적 삶과 의식세계에 파시즘적 요소를 전면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된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될지, 전후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될지를 결정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독립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전승국 대열에 낀 일본의 식민지 조선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¹ 일본이 미·영·소·중 등과 전쟁을 벌이면서 점차 敗戰의 가능성이 높아져간 전시체제기는,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과 해방,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항일독립운동 최고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희망적인 시기이기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해외 독립운동진영에서는 일제패망을 전망하고 조

1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출발은 1937년 7월 중일전쟁부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본은 이 세계대전의 문을 열고 닫은 국가이다.

선독립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내와 일본에 있던 조선민중들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이 암울한 민족말살의 시기를 희망적인 독립 실현의 시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국내와 일본에서 370건 정도 확인되는, 청년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항일비밀결사운동이다.²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8건 정도가 확인되는데, 이 외에도 전북 출신자들 즉 ‘전북인’이 국내외 각지에서 주도하거나 참여한 항일비밀결사운동 사례는 더욱 많다. 일제패망 직전인 1945년에 작성된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에 따르면, 전북 출신이 13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해준다.³ 이 글에서는 전북지역의 비밀결사운동과 전북인이 서울이나 도쿄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한 사례도 포함해서 살펴볼 것이다.

전시체제기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청년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드러난 교육기회의 불균등, 취업 과정과 취업 후 직장 내에서 드러난 각종 민족차별, 渡航 제한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난 민족차별을 매개로 민족적 반감이 생겼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를 확인하면서 함께 민족적 서적을 읽고 정세를 토론하면서 민족의식을 심화시켜갔으며, 급기야 소규모의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화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제 측이 그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청년들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영원히 ‘항국신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했던 상황 속에서 실제 조선청년들의 현실은 도리어 거꾸로 진행되어간 측면이 컸다.

이 글에서는 전북지역과 전북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먼저 전시체제기에 조선민중이 항일 의지를 가지고 조선독립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꿈꾸며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적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기 전북인은 첫째, 일제의 전시수탈과 인력동원이 늘어간 데 대한 불안과 불만의 고조, 둘째,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전시유언비어 등 ‘불온’한 언동의 표출, 셋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조성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일제패망 인식의 현실화라는 성격을 보였다.

III장에서는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의 현황과 그 세대별 성격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전라북도에는 그 지역적 특성상 흔히 ‘민족종교’라 일컬어지는 甑山敎나 普天敎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시체제기에도 이러한 ‘類似宗教’와 관련된 비밀결사운동의 중심지였다. 여기에 참여한 전북인은 청년학생층이 아니라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이

2 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선인, 2018)에 전체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총 368건(57~58쪽)의 비밀결사운동이 소개되었는데, 이번에 전북지역을 조사하면서 2건을 추가하여 여기서는 370건으로 수정하였다.

3 特高科,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1945),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미군물수마이크로필름 R.60. 이 자료는 당시 ‘조선인내지도항제도’의 폐지에 따른 취급 협정에 의해 1945년 3월경 국내 각 도별로 작성하여 일본으로 발송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131명)·전남(210명)·충남(83명)·경남(44명)·함북(279명) 등 5개 도만 확인되는데, 총 747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요시찰인’은 원래 1911년 일본 내 사회주의자 단속을 위해 시작된 것이었는데, 『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에 따르면 이 외에 ‘조선인으로서 排日 사상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菰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せきた書房, 1984), 97쪽].

는 청년학생층 중심의 비밀결사운동과는 세대별 성격이나 지향 및 활동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시체제가 전복인에 의한 비밀결사운동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일단 3.1운동 이전에 전통적인 漢學과 儒學을 공부한 기성세대와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세대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일제의 전시수탈과 ‘불온’한 전복인

1) 전시수탈로 인한 불안과 불만의 고조

일제의 전시수탈은 크게 인력 수탈과 물자 수탈로 대표된다. 인력 수탈은 지원병·징병 등으로 대표되는 병력 강제동원과 모집·알선·징용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력 강제동원을, 물자 수탈은 흔히 供出이라 불리던 각종 물자에 대한 수탈과 배급 통제를 말한다. 이러한 전시수탈에 대해 민중들은 대체로 내면적으로는 강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불만은 소극적·적극적 저항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 시기 조선민중이 저항에 나서는 경로와 동기는 대체로 일상생활 속에서 잠재된 불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적극적 저항의 형태인 항일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한 청년학생층도 대체로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의 민족차별로 인한 민족의식의 발아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복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먼저 일제당국의 전시수탈을 둘러싼 전복인의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1938년 2월 2일 ‘칙령 제95호’로 공포되어 그해 4월 3일부터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반도의 일본화 즉 내선일체의 구현”이라는 통치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병력 강제동원이었다.⁴ 다시 말해서 사실상 직접적인 병력의 동원과 활용이라는 측면보다는 조선인 청년·학생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강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당국은 ‘필요 이상으로’ 지원자 모집에 열을 올려 경쟁적으로 지원자 수를 늘리도록 부추겨 실제 입소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일정한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지원병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자는 농촌 출신에 비해 도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⁵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지원율이 높아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938년도 지원자 2,946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303명으로서 전남(518명)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남(292명)과 경북(252명) 순으로 나타났다.⁶ 이 3개 도는 1930년대 이래 인구 200만 명을 훌쩍 넘는 지역이었고 전북은 1940년 현재 150만 명 정도였음을 감안해보면,⁷ 전북의 지원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전북지역 관공서와 중등학교 등의 지원병 독려가 전시체제 초기부터 강하게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⁸

4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1940), 803쪽.

5 桶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十五年戦争下の總動員體制の研究』(社會評論社, 1992), 37쪽.

6 「第74回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제2권(不二出版社, 1994), 55쪽.

7 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아연출판부, 2004), 94쪽.

다음으로 1942년 5월 9일 발령된 징병시행준비명령에 따라 1943년 8월 1일부터 1944년 8월 20일까지 제1회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⁹ 당시 징병 신체검사의 실시상황을 보면, 전체 237,609명(일본인 15,314명 포함) 중 전북에서는 총 14,767명(일본인 536명 포함)이 신체검사를 받았다.¹⁰ 전북의 조선인 수검자 14,231명 중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미취학자가 7,87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전국 12개 도 가운데 미취학자가 절반이 넘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강원·경남·경북·충남·충북 등 6개 도였다. 징병제 실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조선인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전북의 경우 이들 가운데 5,108명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¹¹ 그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들을 청년특별연성소에 입소시켜 사전 훈련을 실시했던 것이다. 언어적 문제만으로도 조선인이 ‘천황의 군대’에 징병으로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실제로 조선인 징병적령자 예정 총수 231,424명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약 96%가 신체검사를 받았다. 4%에 해당되는 불참자 12,905명은 질병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소재불명 불참자가 6,228명으로 절반 정도나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들은 대부분 징병제 발표 이전부터 소재불명자라면서 기피자는 극히 적다고 했지만, 공식발표 전부터 징병제 실시에 대한 풍문이 많이 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징병 기피자(거부자)’로 볼 수 있다.¹²

다음으로 ‘모집’이나 ‘官斡旋’ 등을 내걸고 추진되던 조선인 노동력 동원도 1940년 대로 들어서면서 한층 강화되다가, 1944년부터는 1939년에 공포한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결국 전면적인 강제동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완전히 강압적인 동원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도 극도로 고조되었다. 그것은 1944년 일제 당국의 이른바 ‘노무관계사범’ 단속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1944년 1~6월의 상황을 보면 총 1,643건, 1,897명이 저촉되었다.¹³

이후 노무동원 위반자가 급증했음을 아래 표가 보여준다. 이 표는 경무국 경제경찰과에서 1944년 10월 16~25일을 ‘노무동원 위반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한 결과이다. 위의 상반기 집계와 비교해보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위반자 총수가 23,000여 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검거나 훈시 또는 수배

8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941.12)에 따르면, 1941년도 지원자 동기 조사에서 전체 145,046명의 지원자 가운데 ‘官 總用’에 의해 지원했다고 응답한 청년이 79,672명으로서 50%를 훌쩍 넘었다.

9 大江志乃夫 編, 『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不二出版, 1988), 433쪽.

10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11 「昭和19年度朝鮮の徴兵検査に於ける朝鮮人壯丁の學力及未就學者の國語理解狀況調」, 水野直樹 編, 『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4(柏書房, 1998), 212~213쪽. 전남의 미취학자 11,220명 가운데 4,105명만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2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선인, 2013), 127쪽. 이미 1939년경부터 “각지의 근로보국대원은 조만간 戰場으로 보낸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갔다[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外事月報』 제1호(1939.7), 20쪽].

13 警務局 經濟警察課, 『昭和19年上半期國民徵用等勞務事犯取締狀況表』.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212건, 검거 인원은 246명이며, 나머지는 사법부에서 훈시를 받고 풀려났다.

중으로 일제당국의 사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절반을 넘는 12,100명이었다. 이는 상반기의 1,897명에 비하면 6~7배나 증가한 것이다.

표 5> 노무동원 위반자 일제단속 결과표(1944.10.16.~25)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계
국민징용령	1,004	56	205	1,006	1,558	845	641	524	292	202	307	79	7	6,726
징용출두 불응자	3,097	165	485	2,627	1,408	4,652	1,897	851	206	222	524	295	39	16,440
계	4,101	221	690	3,633	2,966	5,497	2,510	1,375	498	424	831	374	46	23,166
검거	146	36	52	129	165	388	150	165	41	15	110	16	2	1,374
훈시	300	69	60	599	769	140	528	111	134	15	155	129	4	2,879
수배		59	402	1,046	2,032	1,104	1,832	264	109	284	566	229	29	7,847
계	446	164	514	1,774	2,966	1,632	2,510	540	284	314	831	374	35	12,100

* 警務局 經濟警察課, 『昭和19年上半期國民徵用等勞務事犯取締狀況表』

위 표에서 전북지역을 보면, 1944년 10월 현재 국민징용령 위반자가 1,006명, 징용 명령을 받고도 출두하지 않은 불응자가 2,627명으로 총 3,633명의 노무동원 위반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민징용령 위반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징용출두 불응자를 포함한 전체 위반자 수도 경북과 경기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인구 대비로 보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12,000여 명의 ‘노무관계사범’ 가운데 붙잡힌 인원(위 표에서 검거나 훈시로 표시된 인원)은 4,000여 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0여 명에 달하는 수배자는 징용을 피하여 도피 중으로서 적극적인 ‘징용 기피자(거부자)’로 볼 수 있다. 당시 민중들에게 징용제 실시가 얼마나 위압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산속 등지에 숨어 지내면서 해방을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전북의 징용 거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普光黨 등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하여 일제패망에 대비해 무장독립을 준비했을 것이다. 보광당은 한반도 중부의 전라도와 경상도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비밀결사였는데, 무주의 덕유산과 장수의 長安山도 주요 활동무대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엄격한 통제 아래서도 전북의 학생들은 강제근로동원 등에 불만을 품고 盟休를 일으키기도 했다. 1938년에는 부안공립농업실습학교 학생 37명이 교사의 엄격함과 난폭한 언어, 노동의 강제에 저항하여 맹휴를 일으켰으며, 1941년도에는 완주군의 伊西·飛鳳公立國民學校 생도 40명이 연일 계속되는 노무작업에 불만을 품고 맹휴를 일으켰다.¹⁴ 또 전주농업학교 학생들은 1942년 2월 담임교사 사토(佐藤)를 배척하는 맹휴를, 10월 교무주임 데라카와(寺川)의 차별과 구타에 항거하는 맹휴를 일으켰다. 이 맹휴에는 뒤에서 살펴볼 權花會라는 비밀결사가 개입되어 있었다.¹⁵

14 「昭和13年後半期朝鮮思想運動概觀」(朝鮮軍 參謀部) 및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5 全北地域獨立追慕塔建立推進委員會, 『全北地域獨立運動史』(1994), 506~507쪽 및 512~516쪽.

이상과 같은 인력 수탈뿐만 아니라 물자 수탈 역시 대부분 농민층인 전북인에게는 직접적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이었다. 1939년 이래 계속된 가뭄에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어 전시경제생활의 궁핍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공출의 품목도 다양해지고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모든 부담은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가해졌다. 이로 인한 불만이 고조됨을 안 일제당국은 그 불안과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皇民化 정책의 강도를 강화해갔다. ‘愛國班’의 常會나 각종 좌담회 참여, 방공·등화관제·소방훈련 등과 조선어 사용금지, 創氏改名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압박과 불안 속에서 농촌사회에서도 사소한 말조차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¹⁶

전라북도당국이 1942년 5월 이후 민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국민학교 5~6학년생 113명에게 무기명으로 父兄의 언동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자. 당시 어린 학생들의 답변 내용 가운데 일제당국이 문제로 삼은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¹⁷

- | | |
|---|----|
| 1) 비가 오지 않아 지을 수 없는데도 면사무소에서는 공출할 것이므로 농업이 재미없다 | 6 |
| 2) 비가 안와 쌀을 지을 수 없으면 전쟁을 못 하게 되어 적 비행기가 올 것이다 | 1 |
| 3)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다. 면에서 배급을 주므로 그 편이 오히려 낫다 | 1 |
| 4) 온 힘을 다해 경작해도 면사무소가 전부 가지고 가므로 백성은 싫다 | 5 |
| 5)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 가능한 한 면사무소에서 내간다고 하니까 | 1 |
| 6) 면에서 공출 공출 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다 | 1 |
| 7) 이기든 지든 좋다. 속히 전쟁이 끝나면 좋다 | 2 |
| 8) 전쟁 때문에 농민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좋다 | 15 |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인 1942년 봄 여름 무렵 전북의 민중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간 이야기 역시 공출과 배급,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생산고보다 더 많은 양의 공출을 요구하는 일제당국에 대한 불만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농민들은 자포자기하면서 厭戰·厭農의 경향으로 흘러갔다. 또 평범한 일반 농민들은 전쟁의 성격이나 승패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쟁과 파시즘으로 조성된 정세와 정책들에 대해 전북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불안한 심리와 불만의 정서를 표출해갔다.

특히 전 방위적으로 진행된 양곡과 물자 공출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시켰다. 이에 관한 각종 풍문과 유언비어는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어갔고, 이로 인해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늘어갔다. 한 예로 서울의 人文中等學院에 다니던 姜永俊(정읍군 용동면 비봉리)은 1943년 11월 9일 장인 安藤在春(임실군 강진면 文

16 변은진, 앞의 책(2013), 162~163쪽.

17 總督府 法務局 經濟警察課, 「經濟治安週報」 제63집(1942.7.20.), 『經濟治安日報綴』(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 조사 내용에 대해 전라북도당국은 “시국인식이 불충분”한 게 너무 많아서 ‘내사 중’이라고 총독부에 보고하였다.

方里) 앞으로 공출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시국에 관하여 인심을 어지럽히는 사항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단지 5일 전 서울 돈암동 자취방에서 閔丙燮으로부터 정읍지방의 벼 공출 할당량이 전년보다 3배로 강화되어 농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농들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실로 비참한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시적 곤란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도 영원히 오랫동안 곤란이 계속될 것인데 실로 생각해보면 비참한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했을 뿐이었다.¹⁸

2) ‘불온’ 언동과 ‘일제패망 인식’의 확산

일제 전시파시즘기에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경우에 따라 ‘不穩’한¹⁹ 언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는 反日·反戰·反軍의 내용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담고 있는 ‘불온’하고 ‘不敬’한 造言飛語나²⁰ 流言蜚語(流言飛語), 군사기밀 누설, 낙서나 삐라 등을 말한다. 이 행위들은 뒤에서 살펴볼 전복인의 비밀결사들에서 의식적인 실천운동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민중이 우발적으로 표출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일제당국은 이러한 ‘불온’ 언동은 당대 민심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취급하였다.²¹ 이에 ‘불온언동’을 “人心에 불안 동요를 생기게 하고 적개심을 저해하며 銃後의 결속을 이완시키는 등 총후의 치안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는 ‘엄벌주의’로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을 강화해갔다. 형법·육군형법·해군형법·국방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경찰처벌규칙 등의 해당 조항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다.²²

1939년도에 일제당국이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찰 처분으로까지 넘겨진 건 가운데 全州地方法院 관할 건수는 총 9건에 9명이었다. 전국의 11개 관할지법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총 237건에 360명이었으니, 신의주지법(4건, 8명) 및 평양지법(8건, 10명)과 함께 가장 적은 편에 속하였다.²³ 이후 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언비어나 유언비어로 검거된 인원은 크게 늘어났다. 전복지역만 따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44년도의 ‘불온언론사범’ 집계는 1,640명으로 늘어났다. 내용면에서도 일제의 패망

18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1.25.). 강영준은 1943년 12월 2일 체포되어 23일 전주로 송치되었으며, 1944년 1월 25일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언도받았다. 2017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았다.

19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온’의 의미는 ‘편안하지 않다’ 혹은 ‘순조롭지 못하다’는 의미로서 대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이러한 전통적 용례는 사라지고 “제국에 반대하는 활동 전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뜻”으로 급격하게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3.1운동 이후 ‘불온문서’ 등의 표현으로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다[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大東文化研究』 72(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449쪽 및 455쪽].

20 野村 대구헌병대장의 언급에 따르면, ‘造言’은 거짓으로 어떤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 ‘飛語’는 상호간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京城日報』, 1937.9.10.).

21 中村古峽, 『流言の解剖』, 愛之事業社, 1942, 1쪽.

22 法務局 刑事科, 『覆審地方訓示指示注意事項綴』, 1943~1944(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

23 「造言飛語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21호(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39.12), 47~60쪽.

과 조선의 독립에 관한 내용이 대폭 늘어났다.²⁴

‘불온’한 낙서 역시 유언비어와 함께 전시체제가 ‘불온’ 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그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있다는 면에서 일제당국을 특히 긴장시켰다.²⁵ 낙서 역시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일제당국에서는 그 단속을 강화해갔다. 예컨대 1938년 12월 1일 군산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방화데이를 맞아 ‘思想報國 철저책’의 하나로 府内の 판벽, 변소, 기타 공공집회장의 낙서를 일제히 검사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²⁶ 1939년 1월부터 1940년 6월 사이에 발견된 ‘불온낙서’는 총 58건이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관내가 3건이 포함되었다.²⁷

표 2> 전북지역의 ‘불온’ 낙서 사례

장소	‘불온’ 낙서의 내용	발견일시, 도구
김제의 崔中敬(한약재상) 집 감나무	天皇陛下御命	1939.8.1, 毛筆
호남선 김제역 구내 공중변소	鮮亡於日本, 日亡於支那, 胡亡於朝鮮	1939.10.10, 연필
진안의 음식점 金環海의 집 변소	이완용 식당	1939.11.15, 연필

위의 ‘이완용 식당’과 같은 것은 일제강점기 내내 낙서의 주된 소재였기 때문에 이를 ‘불온낙서’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천황폐하 어명’을 ‘불온낙서’로 보는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전시체제기에 강화된 사상통제 때문인데, 당시 일제당국은 조선인이 ‘천황’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경하게 파악했다.

그런데 이 시기 ‘불온’한 유언비어나 낙서 가운데 일제패망 및 조선독립에 관한 것은 내용면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전쟁의 종결을 일제의 패망으로, 이를 조선의 독립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조선인의 자각과 자력에 의한 신조선 건설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맥락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패전을 중국의 승전과 연결시켜 사고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舊韓國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맥락이다.²⁸ 위 김제역 공중변소의 낙서인 ‘鮮亡於日本, 日亡於支那, 胡亡於朝鮮’은 바로 후자의 맥락을 잘 보여주는 문구인데, 이는 주로 일제 강제병합 이전에 태어나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받은 기성 세대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 문구는 이 시기 민간에 널리 퍼진 『鄭鑑錄』에서²⁹ 나온

24 「昭和14年度に於ける半島思想情勢」, 『朝鮮檢察要報』 제13호(高等法院 檢事局, 1945.3), 24쪽, 1,640명의 ‘불온언론’을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패전	조선독립	징용	공습	징병	양곡·물자공출	敵참수함	출몰	식량사정	경제사정	기타	계
346	252	224	139	114	98	89	45	25	308	1,640	

25 「落書とピラ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15호(1938.7), 62쪽. 일제당국에서도 “낙서는 사회의 바닥에 흐르는 사상의 표현으로서 뼈라와 함께 사상범죄의 동향을 살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 단속을 강화했다.

26 『東亞日報』 1938.12.8.

27 「不穩落書及ピラ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24호(1940.9), 7~8쪽.

28 변은진, 앞의 책(2013), 252쪽.

29 일제말에 전파된 『정감록』은 ‘鄭鑑錄’만이 아니라 ‘鄭湛錄, 鄭堪錄, 堪論抄, 石書, 朝鮮寶鑑, 歷歲要覽, 徵秘錄(懲秘錄이 아님)’ 등의 명칭으로 나돌았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종류이나 내용상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思想彙報』 제23호(1940.6), 211쪽].

것인데, 농민층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는 주로 『정감록』의 특정 語句를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연결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예로 1941년 익산의 노병준(盧秉俊, 무직, 45세) 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가 검거되었다.³⁰

세계는 일대 전환기로 일본이 連戰連勝한다 할지라도 영웅 蔣介石의 전술로 일본군을 奧地로 끌어 넣는 戰計에 불과하다. 장개석의 실력은 세계를 상대로 할 정도로 강경 충실하여 수년 내에 일본의 패전은 명확하고, 현재 ‘鮮亡於日 日亡於胡 胡亡於朝鮮’이라는 정감록의 비법에도 일본은 중국에서 패전하여 乙酉年(1945년-필자)이야말로 조선이 독립하고 東洋을 통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제말 조선민중의 전쟁인식은 일제당국의 강력한 言路 통제 속에서도 戰況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갔다. 이는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일제패망 즉 조선독립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중일전쟁 초기만 해도 대체로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대한 소박한 바람으로 표출되다가, 張鼓峰 사건과 노몬한 사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三國同盟이 성립되자 여기에 과학적인 예단이 더해졌다. 더구나 소-일 또는 미-일 개전에 대한 예단이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으로 구체화되자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은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일제의 戰力은 미·영·소·중 등 연합국에 비해 훨씬 열악하여 결국 패망(패전)할 것이니, 미-일전쟁에 이어 소-일전쟁까지 일어나 일제가 패배하는 그 순간에 국내외 전체 조선인이 일제히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독립의 방략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독립 후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사고로까지 연결되었다.³¹ 이와 같은 전쟁인식의 변화는 당시 일제에 저항하다가 검거된 전복인의 발언이나 뒤에서 살펴볼 청년학생 중심의 비밀결사들의 논의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태평양전쟁 이후부터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經濟戰에서 일본이 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복의 농촌마을에까지 퍼져갔다. 1942년 6월경 淳昌署에서는 청년훈련소 생도들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당국의 경제통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과 ‘불온’한 언동을 조사했는데,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일본은 전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부락 노인들이 말했다”라고 답변한 데서 알 수 있다.³² 또한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의 농민 李判五(1918년생)와 宋漢龍(1919년생)은 1944년 5월 초순경 강제 근로동원 도중 마을사람들과 태평양전쟁에 대해 잡담하다가 “아무리 안달해도 이 전쟁은 일본이 패한다”고 얘기했다가 징역 4월 언도받았다.³³ 일부 소장인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물품통제가 점차 私有를 전면 부정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소련사회와 같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³⁴

30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941.12).

31 戰況의 변화에 따른 시기별 전쟁인식의 변화·발전에 대해서는 변은진, 앞의 책(2013), IV장 1~3절(341~400쪽) 참조.

32 法務局 刑事課, 『經濟治安日報』 제60집(1942.6.29.).

33 「判決文」(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 1944.10.9.); 조규태, 「일제강점기 전복 고창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제26호(2012), 153쪽.

일본이 경제전에서 패하면 결국 군사전에서도 패전하여 조선이 독립할 순간이 오는 것인데, 조선인 스스로가 일본의 전쟁 물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내적 갈등을 느끼기도 했다. 예컨대 194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苦學을 하던 朴天圭(정읍, 21세)는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동포가 군수공장에서 일하여 兵器를 만들어 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⁵ 이러한 인식은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제의 군수생산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怠業을 일으키거나 도주 탈출을 감행함으로써 일본의 패전을 앞당기려 한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청년학생 중심의 전북지역 비밀결사들에서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일본군과 군수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군수시설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예컨대 이리농림학교의 花郎會에서는 1943년 5월 첫 거사로 김제군 금구면 고깔봉 근처에 있는 광산에서 화약을 탈취하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아 일본군의 주요 물자수송로인 만경교(萬頃橋, 호남선에서 가장 긴 철교)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만경교를 폭파하려 한 이유는 “일본군의 중요물자 수송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므로 이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시킨다면 일제의 패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여 결정했다고 한다.³⁶

또 1943년 8월경부터 전주사범학교 雇員 黃龍順의 지도로 결성된 ‘전주사범학교 그룹’에서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그해 10월 초순경 황용순은 “조선인은 현재 일본인에게 압박당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장차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하면서, “장차 소-일 전쟁이 일어나면 麗水港에 상륙한 일본군은 반드시 이 도로를 통과할 것이다. 현재 실시 중인 도로확장공사도 그때 戰車의 통행을 예측하여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동교생 柳鍾滿이 “그때는 이곳에서 돌을 떨어뜨려 일본군의 통과를 방해하자”라고 응대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논의를 통해 장차 소-일 전쟁이 일어날 때를 일본을 패전으로 이끌 수 있는 호기로 보고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³⁷ 또 기독교 목사 아들인 洪淳完(익산, 21세) 역시 1944년 1월경 도쿄의 하숙집에서 독일이 패하면 러일전쟁의 恨도 있는 소련에게 일본은 반드시 패배할 것인데 이는 조선독립의 호기라며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하자고 협의하였다.³⁸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국외의 항일무장세력이 국내로 진격해오면 국내의 민중들은 이에 호응해 ‘一舉에’ 민중봉기를 통해 일제 권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론’은 일제말 국내외 독립운동 진영 모두에서 일치되게 나타난 조선독립의 방략이었다. 이 시기 비밀결사운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완전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지만,³⁹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연합국 측의

34 남원에서 소금행상을 하는 張濟三(66세)의 경우(「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3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1977), 272쪽.

36 『全北地域獨立運動史』, 516~519쪽.

37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11.27.). 이들은 동교생 松岡壯昌·西原相大·富永甲洙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모임을 갖다가 1944년 2월에 체포되었다.

38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5.7.28.).

39 예컨대 이리농림학교의 ‘화랑회’에서는 연합군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독립선언을 해야만 “속

지원을 상징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미국과 소련인데,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대부분 미·소 양국의 동시 지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한 특징이다. 당면한 미-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조선이 독립하리라는 예측이 많았던 배경도 있지만, 일제패망이 임박해지면서 1943년 무렵부터 미군이 전라북도에 인접한 서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이라 풍문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주북중학교 그룹'의 金燾는 1943년 6월, 미국이 서해안에 상륙할 때에 대비해 "그들과 사귀려면 영어가 꼭 필요하니 학생들은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리국민학교 동기생 출신인 금융조합 직원 등이 1945년 6월에 결성한 湖南會에서 배포한 삐라에도 미군의 서해안 상륙에 대비해 "영어회화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⁴⁰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는 다음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이 패전하면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인을 증오하여 가혹하게 대우할 것이나, 우리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 대우에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미국인이 開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당에서 조선인과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은 조선을 보호하고 그 독립을 허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기회에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이 실현되면 우리 조선인의 행복도 초래됨은 물론이다.(1943년 9월 26일 전주농업학교 權花會의 金相權이 柳勝雄에게 한 말)⁴¹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지난번 평양 공습 때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이 조선 독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성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1945년 1월 24일 정읍 출신 劉永敏이 고창읍내 李大成의 집에서 新光容煥에게 한 말)⁴²

한편 타지에 있던 전북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유포했다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았다. 군산에서 한의원 조수 견습으로 일하다가 서울의 문화중학원에 편입한 李濬鎬(군산, 21세)는 1943년 10월부터 1944년 2월 사이에 동료 학생들에게 '조선은 미·영의 원조로 독립할 것이다, 일본이 지고 미국이 들어올 때 대비해 조선독립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 있는 李承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⁴³ 또한 일본 도쿄에 있던 박천규(정읍)는 "미국 군대

국이 아닌 몇몇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全北地域獨立運動史』, 516~517쪽, 조직책 張志煥의 진술). 또 황용순 등의 '전주사범학교 그룹'에서도 "조선은 장차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손으로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신체를 단련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위의 「判決文」).

40 『全北地域獨立運動史』, 1994, 549~551쪽.

41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4.22.).

42 「略式命令」(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 1945.3.2.). 이로 인해 유명민은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43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45.2.3.);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23쪽. 이로 인해 이준호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언도받았다.

가 상륙하더라도 우리 동포는 죽이지 않을 것이며 길 안내 등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은 결정적이며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가 1944년 7월 30일 검거되었다.⁴⁴

3.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과 ‘3.1운동 세대’

1) 전북인의 항일비밀결사운동 현황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전라북도에서 결성된 항일비밀결사운동 사례는 총 18건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1건(보광당)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결사 활동이 일제당국에 발각되거나 체포되어 그 기록이 남은 사례에 국한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7건, 이리가 3건, 김제가 2건, 정읍·순창·고창·남원·옥구에서 각 1건으로 조사되었다. 총 18건의 전북지역 항일비밀결사운동의 현황을 결성시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의 1~2항은 정읍·김제 등지를 중심으로 한 ‘類似宗教’ 계통의 비밀결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청년학생들에 의한 소규모 비밀결사이다.⁴⁵

표 3> 전북지역 항일비밀결사의 현황

번호	명칭	시기	지역	관련인물	구성 및 조직	취지 및 활동	출전
1	神人同盟	1938.4~1940.12	김제, 정읍 등	鄭寅杓 등 84명	금산사에서조직, 근처19개군 책임자 설정, 전국 8도의 문무관 명	증산교 관계, 「정감록」, 독립을 위한 정치요강 등의 연구	조선형사정책자료(1941) / 사상회보 속간 (1943)
2	朝鮮建國團	1940.4~11	정읍 중심	尹慶叟·李順道·金彦洙·李定鉉·黃義鵬·南宮錫·金奎泰 등	(元 甌山教 本闕에서 조직) 전국적 조직 위해 八奉 임명	普天教 관계 1942.2.21. 寒食을 이용하여 독립운동 계획	조선형사정책자료(1941) / 판결문 (경성지법, 1942.9.22) / 판결문 (전주지법, 1943.10.30)
3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	1939.말 ~1941.1.0	옥구	高鍾根·韓大錫·金鍾喆·田起培 등	옥구의 대야공립보통학교 동창생 중심 그룹	민족차별과 조선독립, 독립운동 방안 협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매진	판결문 (전주지법, 1941.12.30.) / 독립운동사 8~9
4	(무명)	1940.3~1942.1?	전주	宋正燮·金炳化 (점원)·趙南憲 (회사원)·趙世庚 (농업) 등	전주에서 각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 중심 문학, 법률 등으로 실력양성 분야 분담	결정적 시기 임시정부와 김일성군, 국내의 여운형 등이 호응해 봉기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실력양성	판결문 (전주지법, 1944.6.12.)

44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72쪽.

45 이 부분은 변은진, 앞의 책(2018), 128~133쪽을 토대로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예컨대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과 ‘전주사범학교 그룹’은 이 글에서 처음으로 추가한 결사이며, ‘남원 독서회’의 경우 위 책에서 ‘전남’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하였다.

5	槿花會 ▼ ▼ 전주농업 학교 학우 회	1941.4~ 1943.12	전주	金相權·高炳直· 林洛旋·李壁雨 등	전주농업학교생 중심 총책,부책,조직·정보· 교양담당 * 전주농업학교 학우 회로 개칭했다가 이 후 조직을 이원화 함	목적: 민족의식 고취, 차별교육 심한 日人교 사 배척운동, 담임 佐藤 교사 배척 맹휴, 민족관 연구 수필 작성·배포(단 군·태극기 풀이 등) 비밀수호·유사시 자결· 징병제 시행에 따른 태 도 정립, 전주 내 타 중 학교와의 연계	전북지역독립운 동사 / 독립유공 자증언자료집1 (김상권)
6	우리회	1942.6~ 1945.1	전주	曹泳徹·朴完根· 金學吉·李東源· 李壹男·李鍾沆· 권상룡·金龍圭 등 19명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 순창농업학교의 和 寧會와 연결	민족의식 교육, 독서와 토론 활동, 강령 채택, 渡滿하여 독립운동하려 고 실행	전주교육대학60 년사 /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 독 립운동가의 삶과 회상3(이일남)
7	(무명)	1942.9~ 1943.10	고창	金芳洙·仙石善 鎭·木原勇盛·仙 石善鎭·新光容 煥·吳近澤·存村 義正 등	* 1941.4부터 일본 도쿄 '아등(우리들) 의 姜壽元 지도. 조직 준비단계	일제패망과 조선독립 준비. 연극배우 김방수 는 각지를 돌며 동지규 합. 조선 역사극을 통한 대중의 민족의식 고취 준비	판결문(전주지 법, 1944.9.25.), 공훈록
8	'전주북중 학교 그룹'	1943.1~ 8	전주	金燾·河喜珠·金 孝泳·朴潤河·최 순기·김태기·김 병순등	전주북중 교사 盧桓 의 영향	고적답사, 시조연구 등 문학동호모임 일제패망 임박, 내선일 체 불가, 독립 추구	판결문 / 전북지 역독립운동사 / 조선검찰요보8
9	白花團	1943.8~ 1945.5	김제	곽병철·박갑규· 박정섭·강동열· 정병식·곽규엽· 곽철송·곽재송	만경보통학교 출신들 중심	동지규합, 징병 거부, 일 본군 수송열차 습격 모 의	전북도민일보 (1993.10.5., 2007.4.1)
10	事民團	1943~19 44.11	이리	金直洙·張二圭 등 이리농림학교 생 중심	* 화랑회원들의 1년 선배 조직. 화랑회와 함께 '독립전투당' 조 직	변산봉 광산의 폭약 등 탈취, 만경교 폭과 등을 통한 무장봉기 계획. 계 획 실행 중 검거	이리농림50년사 / 일제하의 항일 학생운동(최근 무)
11	花郎會	1943~19 45.4	이리	李相云·張志煥· 金九·扈仲基·金 直洙·徐基容·姜 東錫·朴基春 등 100여 명 * 이상운은 고문· 사망	이리농림학교생 중심 대표: 이상운 조직책: 장지환·서기 용 훈련책: 김영준 선전외교책: 김구 기울책 * 事民團 등과 협력, '독립전투당' 조직	민족서적 탐독, 민족의 식 고취, 무력봉기, 일인 광산·주재소·경찰 서(금구경찰관 주재소) 습격, 만경교 폭과 계획 징용·징병거부, 총기조 종술, 불굴의 체력단련, 지도인사 추대	독립운동사9 / 이리농림50년사 / 전북지역독립 운동사
12	'전주사범 학교 그룹'	1943.8~ 1944.2	전주	黃龍順·柳鍾湍· 西原相大·松岡壯 昌·富永甲洙 등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同校 雇員 황용순의 지도 독서회 성격	독서토론, 독립국 조선 과 내선일체의 허구성 을 밝혀 민족의식 고취, 만주 김일성과 연계해 독립운동 매지, 소일전 쟁 개전과 일제패망에 대비해 독립운동 결의	판결문(전주지 법, 1944.11.27.)
13	石榴會	1943.10 -1945.2	전주	曹泳徹·任在赫· 朴鍾漢 등 6명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민족성 제고, 독서 교류, 「石榴」 3호까지 발간	전주교육대학60 년사 /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4	和寧會	1944	순창	李熙東·홍석길·이희동·민병호·진강욱·洪沅杓·曹泳徹·洪性吉·金永圭 등 80여명의 순창농업학교생 중심	* 金果國民學校 재학시 교사 朴來殷의 영향 받은 10여 명 중심 * '화령'은 이성계의 탄생지인 함경도 영흥의 옛 지명 * 전주사범 '우리회', 광주의 '무등독서회' 등과도 인적 연계	조선독립·민족정신 고취, 국외 독립운동과 긴밀한 연계, 모든 기회 이용한 항일, 일제 타도의 선도적 역할 수행. 古事通 등 역사서·소설 탐구, 징용·징병 기피 계몽, 공출반대 계몽, 현금헌납 계몽, 주재소 습격 계획, 상해 임정 및 광복군 가담 계획	전북지역독립운동사 / 순창군지 / 전주교대60년사
15	전주사범학교 독서회	1944.4-1945.2	전주	安鎰·韓七錫·白鎮禹·최상호·김봉욱 등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3·1운동 기념으로 학생 독립선언문·태극기·애국가 제작	전북지역독립운동사 / 공훈록
16	'남원 독서회'	?~1945.5	남원	장홍식·노상인·정영필·정인호·박주영 등		독서모임	남원지 / 남원항일운동사
17	湖南會	?~1945.6	이리	尹容燮·朴賢植·裴鍾善 등	이리초등학교 동기생 중심	전신주 등에 '조선독립보아라'라는 삐라 부착, 미군 상륙에 대비하여 영어 공부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8	普光黨	1945.3(결성)~8	전라도 경상도	河準洙 등 징병·징용 거부자 73명	덕유산·지리산·長安山(전북)·백운산(경남)·掛冠山 등 산악지대	행동목표: 전쟁 방해, 당원 훈련, 연합군 상륙시 호응토록 준비. 火田 및 군사훈련. 무기(주로 엽총) 매입, 화약 제조, 주재소 습격 등으로 총기 탈취.	新天地 1권 3~5호(1946)

* 위 명칭에서 홑따옴표(' ')를 친 것은 모임의 내용을 보아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임

전북지역의 비밀결사는 거의 다 전주·이리 등 대도시의 학교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학생비밀결사이다. 전주농업학교의 근화회와 이를 개편한 '전주농업학교 학우회', 전주사범학교의 우리회와 석류회 및 독서회, '전주북중학교 그룹', 이리농림학교의 事民團과 화랑회 등 대부분 순수한 학생비밀결사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이 시기 항일 비밀결사운동의 일반적 성격이었다. 그런데 타 지역의 경우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 중심이 된 결사, 또 이들과 학생이 함께 결성한 결사도 있는데 비해, 전북에서는 전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대도시로 취업한 同鄉 출신 모임인 宋正燮 등의 그룹(무명)이 유일하다. 이 외에는 김제 만경보통학교 출신들의 白花團, 이리국민학교 출신들의 호남회, 옥구의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처럼 동창생들에 의한 비밀결사운동이 눈에 띈다.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다수가 중일전쟁기(1937.7~1941.12)보다는 태평양전쟁기(1941.12~1945.8)에 결성되어 활동했다는 점이다. 위 표를 보면 4~5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이 모두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에 결성되었다. 이에 반해 예컨대 전남지역의 비밀결사는 순창의 和寧會와 인적 연계를 갖고 있던 無等讀書會를 제외하면 모두 중일전쟁기에 조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⁴⁶ 일

제말 국내 비밀결사운동에서 전북처럼 태평양전쟁기에 많은 조직율을 보인 지역은 경상남북도와 황해도뿐이었다. 강원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부지역은 중일전쟁기에 조직된 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서울과 경기, 충청남북도 등 중부지역은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⁴⁷

전북지역에서 태평양전쟁기에 결성된 비밀결사가 훨씬 많았음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중일전쟁기에 비해 일제의 인력수탈과 물자수탈이 한층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선인의 친일협력이 강화되어 조선인의 내면에서 일제의 침략전쟁과 전시수탈, 일제협력세력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민족의식도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일제의 침략전쟁이 미-일 전쟁으로 확대되고 또 소-일 개전에 대한 전망도 가시화되면서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대한 희망이 보다 뚜렷해져갔고, 이에 군수생산력과 군수시설의 파괴 등을 통해 일본의 패전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일제패망 인식의 확산은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국내외가 호응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준비를 본격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무장봉기의 준비와 실력양성을 위한 조직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의 건설의 문제까지 고민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는 미래의 조선사회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인 청년학생의 책무라는 인식이 비밀결사운동 내부의 과제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1940년대 전반기에 전북지역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생비밀결사 형태로 확대된 비밀결사운동은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비밀결사운동은 타 지역과 다른 성격이 또 있다. 앞서 현황표의 1~2항에서 보듯이 원래 증산교·보천교의 본산이자 그 세력이 강한 정읍·김제 등지를 중심으로 조선독립을 표방하는 비밀결사인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이 활동했다는 점이다. 일제말 전시체제기에는 이른바 유사종교 관련결사가 여럿 존재했는데,⁴⁸ 이 가운데 위의 두 결사가 비교적 적극적인 항일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유사종교 관련 결사가 ‘조선독립’을 명확히 표방하면서 항일비밀결사의 성격을 띠고 활동한 것은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편 전북 출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들은 소규모 독서회 형태의 비밀결사를 꾸려서 저항하였다. 전시체제기에 일본의 조선인 항일비밀결사는 170건 정도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同鄉 혹은 同校 출신들로 조직되는 게 많았다. 1940년 현재 전라북도 인구 1,564,041명의 약 4.73%에 해당되는 77,718명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전북인이었다.⁴⁹ 이들은 대부분 일본 각지에서 苦學生으로 생활하거나 일제의 강제노무동원

46 변은진, 같은 책(2018), 130~133쪽의 <표3-6: 전라남북도의 항일비밀결사운동> 참조. 이 책에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파악한 결과, 전라도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성시기가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다(129쪽).

47 같은 책에서 차례로 경상남북도(112쪽), 황해(177쪽), 강원도(99쪽), 평안남북도(154쪽), 함경남북도(165쪽), 서울(78쪽), 경기도(93쪽), 충청남북도(148쪽) 참조.

48 각종 자료에서 ‘××교 사건’으로 지칭되는 것은 대부분 이른바 유사종교 관련 조직이다. 예컨대 익산을 중심으로 한 ‘황극교(黃極敎) 사건’ 등을 들 수 있다[『思想彙報』續刊(1943), 6쪽].

으로 제일조선인이 된 것이었다.

전북 출신들이 일본에서 결성한 대표적인 결사로는, 도쿄의 日本大學·早稻田大學·專修大學·法政大學·研修學館·明治大學·正則英語學院 등에 다니던 20대의 고학생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 연구회(1939.4~1940.1)’와 ‘요코하마 민족공산주의 학생그룹(1940.10~1941.12)’을 들 수 있다. 전자에는 李天雨(고창)·金壽鎭(전주)·金容珪(김제)·李康鎭(전주)·申槐植(순창)·申蔓植(순창) 등이, 후자에는 金容珪(김제)·申升雨(순창)·申奎植(순창)·申滄雨(순창)·宋湖連(순창)·伊鳳鎬(순창)·朴得奎(익산)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전북 출신인데, 특히 순창의 고령 申氏 집안에서 다수 참여하였다.⁵⁰ 이 외에 일본에서 중학을 졸업하고土工 등으로 일하던 扶安 출신 중심의 무명의 그룹(1945.1~3)도 있었다.⁵¹

뿐만 아니라 194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我等(우리들)’이란 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던 고창 출신의 姜壽元은 1942년 9월부터 고향인 고창에서도 비밀결사를 조직하려고 다수의 동지를 규합해 지도하였다.⁵² 또 鎭安 출신의 李玉童은 中央大學에 재학 중이던 1939년경부터 조선인 유학생들을 결집하여 1941년 12월 癸未會라는 친목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전북의 지인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전주로 이송되었다. 그는 1943년 6월 전주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親和會를 조직해 학병 강제동원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在東京學兵徵發反對鬪爭委員會 위원장으로 시위투쟁을 전개하다가 또 다시 구금되기도 했다.⁵³

2) 3.1운동 이전 전통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에 태어난 기성세대는 주로 3.1운동 이전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전시체제기에는 대체로 40~60대에 해당되며 농민이 대다수이다.⁵⁴ 일제강점기 공문서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無學’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몇 년간 한문을 공부한, 말하자면 전통적인 漢學과 儒學을 습득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의식세계 내에는 여전히 ‘봉건성’이 온존되어 있거나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을 희구하더라도 그 인식의 기초에는 전통적인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일제패망 후의 독립 및 건국 문제와 관련해 이들이 꿈꾸는 ‘새로

49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綠陰書房, 2004), 58쪽(표 1-28). 이는 경상남북도와 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50 이 두 결사에 대해서는 강효숙, 「1940년대 초반 도쿄·요코하마 지역 항일운동 - 순창지역 남산대 신씨家の 항일운동」, 『전북사학』 제39호(2011), 261~272쪽 참조.

51 李大鎬(부안)·金容勳(논산)·李昌鎬(부안)·金洛壽(부안)·姜士熙(부안)·林烈(부안)·林成(부안) 등이 1945년 1월부터 동지를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해 3월 22일 일본 경시청에 검거되었다(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5, 543쪽 및 588쪽).

52 위 현황표의 7번 참조.

53 변은진, 앞의 책(2018), 200쪽(계미회) 및 202쪽(친화회) 참조.

54 보천교 관련 독립운동으로 기소된 301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도 1920년대에는 20~30대가 다수이나 1938~45년에는 40~50대가 다수로 나타나 있다[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0집(2016), 438쪽, <표2> 참조]. 이 글에는 전북의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 관련 판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운 세상'도 과거로의 회귀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를 떠 올리기는 어려웠다. 이들의 전쟁인식이나 저항의식은 대체로 이른바 유사종교나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⁵⁵

전시체제기에 일제당국은 이러한 성격의 결사들도 민족의식에 기초한 항일조직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 가운데 비교적 독립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이었다. 당시 '유사종교' 관련 결사들이 대부분 '보안법 위반'이 적용되었던 데 반해, 이 두 조직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이 적용된 데서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은 모두 증산교와 보천교를 기반으로 한 '민족종교' 계통의 비밀결사이다. 보천교는 원래 姜一淳(姜甌山)이 창시한 증산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강일순이 사망한 후 제자인 車京錫이 정읍에 본부를 두고 1911년에는 仙道敎(뒤에 太乙敎), 1921년에는 普化敎로 고쳤다가 1922년 보천교로 개칭하여 재탄생하였다. 하지만 교주 차경석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1925년 時局大同團을 조직하는 등으로 친일행위를 벌이자, 그 내부에서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나면서 내부에 여러 분파가 생겨났다. 그러다가 1936년 차경석이 사망한 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에 따라 교단은 해체되었다.

이후 1938년 4월 보천교도인 鄭寅杓가 김제의 金山寺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 하기 위해 결성한 비밀결사가 신인동맹이다.⁵⁶ 정인표는 각지의 증산교 계열의 교도들을 방문하여, 彌陀佛의 靈을 받은 자신이 장차 衆生을 濟度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특히 당면한 중일전쟁에서 일본인은 모두 전사하여 조만간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감록』에 나오는 鄭氏의 정통으로서 조선을 독립시켜 왕이 될 것이니 자신과 행동을 함께 하면 이후 관리로 등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지들을 규합해간 결과, 김제를 중심으로 반경 15리 19개 郡 내에 구역을 정하여 각 군에 책임자를 두고 80여 명의 동지를 확보했다. 이들은 하부조직을 꾸리고 운동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독립을 목적으로 한 政治要綱을 함께 토의 연구했다. 또 동맹 내부에 組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 등 무장행동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1940년 12월 김제경찰서의 지휘 아래 정읍·이리·군산·부안·전주 등 각 경찰서에 정인표를 비롯한 보천교도 42명이 구속되었다.⁵⁷ 신인동맹 관련자로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들을 먼저 연령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앞의 책(2013), 400~406쪽, 412~417쪽 참조.

56 이하 신인동맹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朝鮮刑事政策資料』(高等法院 檢事局, 1941) ; 『思想彙報』續刊(1943) ; 『井邑抗日運動史』(井邑文化院, 1994).

57 이들은 약 1년 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1942년 4월 11일 28명이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또 다시 약 1년 반이나 지난 1943년 10월 6일에야 다수가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표 4> 신인동맹 참여자 중 서훈자

이름	출생연도	본적	판결 및 결과	서훈
정동원(鄭東源, 鄭東勳)	1881	전북 고창	재판 중 가석방 순국	애족장(2006)
정창묵(鄭昌默, 鄭振奉)	1884	전북 고창	징역 2년 6월	애족장(1997)
오귀룡(吳貴龍)	1885	경북 문경	징역 2년 6월	애족장(2005)
박재춘(朴在春)	1886	전북 진안	징역 3년	애족장(1997)
양인문(梁仁文, 梁君五)	1887	전북 진안	징역 2년 2월, 가석방 순국	애족장(2002)
정공일(鄭公一)	1890	전북 고창	징역 5년	애족장(1997)
서보인(徐輔仁, 徐政)	1895	경북 달성	징역 2년	애족장(2004)
이진호(李鎭浩)	1895	전북 정읍	징역 5년, 형집행정지 출옥	애족장(2008)
장득원(張得遠)	1897	전북 정읍	징역 2년	애족장(1997)
정인표(鄭寅杓)	1898	전북 완주	징역 8년	애족장(1997)
여성백(余性白)	1899	전북 정읍	징역 1년 6월, 옥중 순국	애족장(1997)
정휴규(鄭休圭, 鄭休哲)	1904	전북 고창	징역 3년	애족장(1997)
김재영(金在永, 金在德)	1908	전북 고창	징역 1년 6월	애족장(1997)

*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다음으로 조선건국단은 신인동맹이 한창 활동 중이던 1940년 4월 정읍을 중심으로 金彦洙(金千日) 등이 조직한 결사로서 그해 11월경까지 활동했다.⁵⁸ 이보다 앞선 1938년 음력 11월경부터 1940년 3월까지 김언수는 보천교·侍天教·증산교 계통을 합 일하는 신흥교단을 창설하기 위해 黃河龍·李定鉉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교도를 모집 하였다. 그 결과 1940년 5월 10일(음력 4월 4일) 정읍 황하룡의 집에서 각도 대표 14명이 모여 신흥종교를 창설하고 비밀결사 조선건국단을 조직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언수는 “新 종교는 崔水雲을 교조로 하는 시천교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 두 教義에 따라 儒·佛·仙의 3교를 통합한 것으로, 신도 1만 2,000명에 대하여 신통력 을 가지는 道通君子가 되기 위해 수양을 시킨다.”며 창설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원래 보천교도였던 김언수는 1939년 1월 금강산에 머무르면서 “이 산의 일만 이천 봉의 신령스러운 신이 구 보천교도에게 옮겨와 이들을 도통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東經大全』의 “마상의 한식은 연고지가 아니요, 우리 집에 돌아가서 옛일을 벗하고 싶 네(馬上寒食 非古地 欲歸吾家友昔事)”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독립을 염원하였다. 그리고 1942년 2월 21일 寒食日을 조선 건국의 날로 삼겠다고 기원하였다. 아울러 금강 산을 靈峰으로 하여 각도에 六任八奉의 직제를 두기로 하고, 조선건국단 결성 당일에 참석한 14명을 각각 6임과 8봉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각자 지방에 내 려가 지방간부로 6임과 8봉을 임명토록 하고, 이들이 다시 해당 도에서 1,200명씩 모 집하여 총 12,000명의 동지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후 尹慶叟(청진, 40세), 李順道(경성, 60세) 등 이날 임명된 6임과 8봉은 각기 담

58 이하 조선건국단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判決文(平山永和 外)」(京城地方法院, 1942.9.22.) ; 「判決文(黃河龍)」(全州地方法院, 1943.10.30.) ; 『朝鮮刑事政策資料』(1941), 87~89 쪽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6(國史編纂委員會, 1993).

당한 도를 중심으로 동지와 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1940년 12월 함경북도경찰부를 위시한 각도경찰부에 총 565명이 붙잡혔다.⁵⁹ 조선건국단 관련자로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들을 연령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건국단 참여자 중 서훈자

이름	출생연도	본적	판결 및 결과	서훈
이정현(李定鉉)	1880	경기 용인	징역 3년, 옥중 순국	애족장(2015)
신영화(申永和, 申昌原)	1882	경북 영덕	징역 5년, 옥중 순국	애족장(2006)
배상일(裴相一)	1889	전북 정읍	징역 2년	건국포장(2011)
황의봉(黃義鵬, 黃河龍)	1890	전북 정읍	징역 3년	대통령표창(2009)
손양중(孫亮中)	1891	경북 의성	(1921년 징역 1년)	대통령표창(2009)
정명섭(丁明燮, 丁普燮)	1892	강원 영월	징역 1년	건국포장(2009)
김언수(金彦洙, 金千日)	1894	전북 정읍	징역 4년	애족장(2002)

*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이상의 두 비밀결사운동에 참가한 인물들의 출생시기를 보면, 1880년부터 1908년 사이로서 1880~9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1940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40~60대의 장년층 내지 노년층에 해당된다. 대체로 이들은 과거 30~40대에 3.1운동을 맞았을 터인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거나 목격한 직간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이들은 모두 보천교도가 되어 비밀결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 현재 판결문이 남아있는 '조선건국단 사건'을 통해 참가자의 직업과 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6> 「판결문」에서 확인한 조선건국단 참여자의 이력

이름	연령	직업	학력	참고
신영화	61세	과일상	어려서부터 25세까지 한문 공부	명망가 출생, 재산 상속했으나 40세에 탕진, 생계 곤란
황의봉(황하룡)	54세	농업	8~16세 서당에서 한문 공부	28세부터 보천교 신자, 차경석 등과 불화로 탈교
김형뢰(金炯雷)	54세	농업	5년간 한문 공부	자산 250원, 소작농, 빈곤
이명하(李命夏)	52세	농업, 노동	2년간 한문 공부	
정명섭	51세	농업	5년간 한문 공부	소작농, 빈곤
조순범(趙順範)	51세	농업, 목수	무학	
조홍식(趙洪植)	50세	농업, 주류판매	5~6년간 한문 공부	자산 1,500원
이종석(李鐘碩)	49세	농업	16세경 6개월 한문	빈곤가 출생, 소작농

59 이들도 거의 2~3년간 고초를 겪은 후 다수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한편 조규태는 조선건국단에 대해 "이 단체는 독립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항일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제가 우리의 종교조직을 와해시킴으로써 민족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확대하거나 조작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았다[『한국독립운동사 사전-운동·단체편(IV)』(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344~345쪽, '조선건국단' 항목].

		공부	
--	--	----	--

* 「判決文」, 京城地方法院, 1942.9.22 ; 「判決文(黃河龍)」, 全州地方法院, 1943.10.30.

* 연령은 재판 당시의 연령임. 한자를 병기한 인물은 서훈을 받지 않았음

조선건국단에 참여한 위의 8명은 다수가 50대로서 한말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근대적인 교육기관에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맹은 아니어서, 대부분 서당 등에서 유년시절 5~6년 이상 한문을 수학했다. 특히 결사의 지도급 인사이자 연장자인 신영화는 대한제국의 문관이 되기 위해 25세까지 거의 20년간 한문과 한학을 공부했고, 황의봉도 16세까지 한학을 공부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문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과 儒教 經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영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빈곤한 소작농 집안 출신이었다. 조선건국단에 참여할 당시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자산 1,500원을 가지고 주류판매업도 겸한 조흥식을 제외하면 모두가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처지와 지적 수준이 이들을 보천교 계통의 조선건국단이라는 종교결사로 이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3.1운동 이후 일제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에 태어나 3.1운동을 체험한 기성세대가 전시체제 하의 불안감을 주로 종교나 미신에 의존해 극복해보려는 경향을 지녔던 반면, 강제병합 이후 태어나 일본식 제도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년세대는 일본패전=일제패망, 조선독립과 사회혁명, 새로운 국가건설을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 태생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이 청년세대 가운데는 일제의 ‘내선일체론’과 파쇼정책에 재빠르게 적응해간 부류도 있었고, 반대로 그 논리적 허구성을 강하게 반박하고 대응하려는 부류도 있었다. 후자는 항일독립운동을 지도할 상층의 조직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의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꾸려 대응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런데 청년세대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체계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여 모색의 과정에서 각종 ‘미숙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미숙한 대응들에 대해서도 이 시기 일제당국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었다.⁶⁰

앞의 현황표에서 정리한 전북지역 사례들 가운데 16건(3~18번)은 모두 20대 청년학생들에 의한 항일비밀결사운동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전북인 가운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아래 첫 번째 표와 같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현재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본 것이 아래 두 번째 표이다.

표 7> 전북지역 학생비밀결사 참여자 중 서훈자

관련 결사	이름	출생연도	본적	서훈
‘대야보통학교	고종근(高鍾根)	1923	전북 옥구	애족장(1990)

60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앞의 책(2013), 406~412쪽, 417~423쪽 참조.

동창생 그룹'	한대석(韓大錫)	1923	전북 옥구	대통령표창(1992)
(무명)	김병화(金炳化)	1922	전북 전주	애족장(2011)
	조남헌(趙南憲)	1923	전북 익산	애족장(2013)
근화회(槿花會)	김상권(金相權)	1924	전북 순창	애국장(1990)
우리회	이일남(李壹南)	1925(생존)	충남 금산 ⁶¹	애족장(1990)
(무명)	김방수(金芳洙)	1916	전북 고창	애족장(2009)
'전주북중학교 그룹'	노환(盧桓)	1916	전북 익산	애국장(1990)
	최순기(崔淳基)	1924	전북 전주	애족장(1990)
	박윤하(朴潤河)	1925	전북 완주	애족장(1990)
	김병순(金炳純)	1926	전북 김제	애족장(1990)
화랑회(花郎會)	이상운(李相云)	1927	충북 청원	애국장(1991)
'전주사범학교 그룹'	황용순(黃龍順)	1924	전북 전주	애족장(2018)
	유종남(柳鍾南)	1927	전남 담양	애족장(2018)
화령회(和寧會)	이희동(李熙東)	1925	전북 순창	애족장(1990)
	홍완표(洪玩杓)	1927	전북 순창	대통령표창(2001)
	이학진(李學鎭)	1927	전북 순창	대통령표창(1995)
전주사범학교 독서회	백진우(白鎭禹)	1922	황해 신천	대통령표창(2005)
	한칠석(韓七錫)	1923	전북 옥구	대통령표창(2005)
	안일(安鎰)	1924	전북 진안	대통령표창(1997)

*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표 8> 판결문에서 확인한 비밀결사운동 관련자의 이력

관련 결사	이름	연령	학력	직업	출신
'대야보통학 교 동창생 그룹'	고종근	19세	중학(도쿄) 재학	학생	중류 농가
	한대석	19세	농림학교 재학	학생	중류
	김종철(金鍾喆)	19세	농림학교 재학	학생	부유(옥구)
	전기배(田起培)	19세	중학(서울) 퇴학	농업	부유(군산)
(무명)	김병화	23세	야간 상과 수료	연탄상 사무원	細農
	조남헌	23세	공업전수학교 졸업	雇員, 회사원	토지측량업자
	송정섭(宋正燮)	24세	보통학교 졸업	점원	중농(전주)
	조세경(趙世庚)	22세	공업전수학교 졸업	고원, 농업	소작농(김제)
근화회	김상권	21세	농업학교 재학	학생	중류 농가
우리회	이일남	21세		특수인부	
	양병초(梁炳初)	20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부안
	안등(安登)	21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진안
	박충수(朴充修)	21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부여
	임효신(林孝信)	22세		고원	전주
	김신무(金信武)	21세		연성소 보조	익산
	김황(金滉)	21세		훈도	익산

61 일제강점기에는 전라북도였다가 1963년부터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무명)	김방수	29세	보통학교 졸업	회사원	농가
‘전주북중학교 그룹’	최순기	21세	영어학교(도쿄) 중 퇴	고학생, 무직	세농
	박윤하	20세	중학교 재학	학생	부유
	김병순	19세	중학교 재학	학생	중농
	노환	29세	사범학교 졸업	촉탁교원	중농(익산)
‘전주사범학교 그룹’	김태기(金泰基)	19세	중학교 재학	학생	중농(김제)
	황용순	21세	보통학교 졸업	고원	빈곤
	유종남	18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소농

* 관련 결사 차례로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1.12.30.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6.12.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4.22.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5.68.17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9.25.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6.12. ;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11.27.

* 연령은 재판 당시의 연령임. 한자를 병기한 인물은 서훈을 받지 않았음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이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태어나 주로 1920년대 후반 이래 일본식 學制가 요구하는 제도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자신의 고향에서 공립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시체제기에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그리고 진학 또는 취업의 과정을 통해 민족차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20세를 전후한 1940년대 전반기에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꾸려 서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청년학생들에게 3.1운동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비밀결사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3.1운동 관련 이야기를 접하고 함께 학습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일제의 교육과정에서 민족차별이 없는 ‘內鮮一體’를 숭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식민지 파시즘으로 조성된 실제 현실 속에서 이것이 ‘空文句’나 ‘식민지적 기만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⁶²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조선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립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⁶³ 과거의 조선은 일본과 같은 독립국이었고 강제병합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해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청년학생들은 충분히 고무될 만했다.

이러한 자각은 직접적인 실천운동의 모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安鎰 등의 ‘전주사범학교 독서회’에서는 1944년 10월경 3.1운동 때처럼 직접 1945년 3월 1일을

62 일본질소광업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광업소에 근무하면서 金彩龍 등과 함께 白衣會에서 활동한 金源柱(전주, 22세)의 언급에서[「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1.11.27.) ; 『한국독립운동사』 5, 528~530쪽 ;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2(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김채룡 인터뷰].

63 ‘전주북중학교 그룹’의 최순기는 "입으로는 내선일체를 부르짖지만 무엇이 내선일체란 말인가? 내지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들이 일본에 여행하려면 마치 외국을 가는 것과 같이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한국독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북지역독립운동사』, 530쪽).

기해 「독립선언문」을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직접 초안을 작성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치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인쇄했다가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⁶⁴ 또 전주농업학교 학생들 중심의 權花會에서는 순창의 龜巖寺 주지 金鍾悅의 도움으로 檀君과 태극기 등에 관한 뜻풀이가 개제된 30쪽 가량의 수필집을 등사해 배포하기도 했다.⁶⁵

그런데 청년학생들이 3.1운동을 이해하면서 접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운동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항일비밀 결사운동에 참여한 청년학생들이 주목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는 과거의 조선민족은 단결심과 통일성이 부족했고 민족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⁶⁶ 둘째는 과거의 시기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당면한 시기는 앞서 보았듯이 전쟁으로 조성된 정세와 국제관계가 조선인이 단결해서 대응한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 나고야에서 고학을 하던 金炳舜(완주, 21세)은 다음과 같이 독립운동을 선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였다.⁶⁷

내선일체 같은 것은 일본정부의 표면상 표어에 불과하고 조선민족을 이러한 곤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단정하여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또 과거에 있어서 조선독립운동이 불성공으로 마친 것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현하 일본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의하여 국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영·미 등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강화에 의하여 일본은 패전에 빠질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봉기하면 독립은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김병순이 말한 과거의 조선독립운동은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3.1운동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미와 함께 일본이 전승국으로 종전되어 민족자결 원칙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 ‘불성공’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되어 영·미와 대립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국제정세는 과거와 달리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독립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해서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정세관이나 독립방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학생들 중심의

64 『全北地域獨立運動史』, 547~549쪽 ; 『독립유공자공훈록』 14(2000), ‘안일’ 항목.

65 『全北地域獨立運動史』, 512~516쪽.

66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과거에도 안중근·윤봉길 등의 위인이 있었으니 본받아야 한다거나, 또 강제병합을 반대한 조선인이 독립문 벽에다 머리를 찡어 血書를 쓰고 죽은 사실 등을 선전하고 다니기도 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23쪽). 서울의 문화중학원에 다니던 이준호(군산)가 1943년 11월 동료 학생들에게 언급한 내용이다.

67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238~1239쪽. 김병순은 1941년 10월 4일 일본 경시청에 검거되어 그해 말 도쿄형사지방법판소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비밀결사들은 크게 두 방향에서 활동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해 조선문화를 향상시키는 것, 둘째는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의 현황표만 보더라도 이러한 지향과 활동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 전북인의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 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李完基(무주, 18세)는 1940년 7월 같은 하숙집의 조선문화학원 생도 孫龍祐(18세)에게 “우리 조선인은 조선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재학 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는 농촌청년을 지도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민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해 9월에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사립학교 생도는 모름지기 朝鮮魂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군사교련이나 지원병제도를 반대하지만 만약 지원병으로 가더라도 절대 “조선혼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완기의 지도에 큰 감화를 받은 손용우 등 문화학원 학생들은 그해 10월 1일 이른바 일제의 施政記念日을 기해 사직공원 입구에 있는 경성부 國勢調査 광고판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낙서 등 선전활동을 주도하여 일제경찰을 초긴장시켰다.⁶⁸

또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전북에서 산업기수로 근무한 林鳳鎬(순창, 26세) 등 5명은 1941년 8월경 “일본인 관공리에게는 加俸 및 宿舎料를 지급하나 조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활에 곤궁한 자가 많다. 우리 조선인은 항상 민족의식을 잃지 말라”, “우리 조선인은 어떤 일에서도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無望하므로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도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각오를 다지다가 검거되었다.⁶⁹

다음으로 두 번째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 준비’ 역시 앞의 현황표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의 고종근 등은 1940~41년경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하면서 ‘만주국’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무기 입수 등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만주로 건너가 ‘匪賊’이 되어서라도 蔣介石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에 매진하자고 했다.⁷⁰ 또 송정섭·김병화·조남헌·조세경 등 전북 출신 직장인 그룹에서는 임시정부와 ‘金日成軍’, 국내의 呂運亨 등이 기회가 오면 서로 호응해 봉기할 것이므로 그때에 대비해 조선청년은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합의했다.⁷¹

전주사범학교의 우리회 회원인 李東源·朴完根·金學吉 등은 국외의 독립군과 접촉하고자 직접 만주 吉林省으로 건너갔는데, 현지에서도 여의치 않자 그곳 일어강습소 강사로 위장하여 조선인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또 앞서 보았듯이 이리농림학교의 花郎會에서는 1943년 5월 별도로 ‘독립전투당’을 조직해 본격적인 무력항쟁

68 「治安維持法違反及保安法違反ニ造言蜚語事件檢舉ニ關スル件」(1940.10.31.), 「文化學院並中東學校生徒等ノ不敬及不穩行動ニ關スル件」(1940.11.4.), 「文化學院生徒ヲ中心トスル民族運動事件ニ關スル件(第五號)」(1940.11.4.), 『思想ニ關スル情報』 1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42.5.31.).

69 『한국독립운동사』 5, 581~583쪽.

70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1.12.30.).

71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6.12.).

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母岳山에 있는 고갈봉(변산봉) 광산에 들어가 화약을 탈취하고 금구주재소와 김제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한 후 만경강 철교를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이들은 우선 선행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징용과 징병에 응하지 않도록 권고·만류한다, 둘째, 유고시에 대비하여 총기 다루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일본 경찰과의 전투를 가상하여 불굴의 체력단련 등에 역점을 두어 부단히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인사의 추대를 서둘러야 한다.’ 등을 결정했다.⁷²

IV. 맺음말

<참고> 전북지역 항일비밀결사운동의 대표 사례⁷³

전주사범학교의 우리회, 석류회, 독서회

전주에서 가장 많은 학생비밀결사운동 사례가 확인된 학교는 전주사범학교이다.⁷⁴ 1942년 6월 결성된 ‘우리회’, 1943년 10월 결성된 ‘석류회’, 1944년 4월경 조직된 독서회가 있었다. 전주사범학교는 1923년 5월 개교한 전라북도공립사범학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31년 3월 일제의 사범학교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1936년 3월에 관립전주사범학교로 다시 신설되었다.⁷⁵

우리회는 1942년 6월 15일 조영철(曹泳徹)의 하숙집에서 박완근(朴完根)·김학길(金學吉) 등이 모여 결성되었다. 회명은 김학길의 의견에 따라 ‘우리의 열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 우리는 모두 평화롭게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회로 정했다고 한다. 강령으로 ‘①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② 우리는 어머니를 잊자, ③ 우리는 하나의 무명용사가 되자, ④ 우리는 학업 중이라도 선발대가 되어 만주로 월경(越境)하여 민족운동을 하자, ⑤ 우리는 뜻대로 일이 안되면 졸업 후 함경도나 평안도로 부임하여 만주의 독립운동가와 연결하자’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후 우리회에는 이일남(李壹男)·임재혁(任在赫)·박종한(朴鍾漢)·권상룡(權相龍)·김용규(金容圭)·이종원(李鍾元)·길동순(吉東淳)·신동빈(申東彬)·양병초(梁炳初)·김성은(金成垠)·이동원(李東

72 변은진, 앞의 책(2018), 139쪽(우리회) 및 147쪽(화랑회).

73 이하의 부분은 전북지역 항일비밀결사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필자의 같은 책(2018), 138~148쪽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74 현 전주교육대학교의 전신이다.

75 이하 전주사범학교의 항일비밀결사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全州教育大學60年史』, 全州教育大學, 1985; 전북지역독립운동추진추진위원회,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9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3(이일남), 2013.

源)·이경식(李景植)·고병석(高炳錫)·노동우(魯棟宇)·오진동(吳鎭東)·나동섭(羅東燮) 등 다수의 학생들이 가입하였다.

우리회에서 주안점을 둔 활동은 회원 상호 간의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위 강령에 기초하여 만주나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이었다. 회원 중 이동원·박완근·김학길은 만주 지린성(吉林省)으로 건너가 독립군과의 접촉을 피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그곳에서 일어강습소 강사로 위장하여 조선인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또 국내에서는 길동순·권상룡·김용규·이종원 등을 중심으로 동지 규합, 자금 모집, 친일분자 응징, 일장기(日章旗) 훼손 등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중심인물이었던 조영철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우리회 조직이 발각되게 되었다. 1943년에 일부가 검거되었고, 2차로 1945년 1월에 모두 검거되었다.

우리회가 조직된 다음 해인 1943년에 결성된 석류회는, 학생근로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조영철과 임재혁·박종한 등이 민족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화회(詩畵會)를 조직하자고 협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그해 10월 3일 박종한의 하숙집에서 신동빈, 김성은, 나동섭과 함께 석류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하숙집 마당에 큰 석류나무가 있었던 데서 회명을 석류회로 정했다고 한다. 결성을 주도했던 조영철이 위 우리회 조직을 주도했고 우리회 회원들 중 6명이 석류회를 조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석류회는 우리회의 자매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독립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한글과 우리 역사를 연구 보급할 목적으로, '①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우리 성명을 사용한다, ② 우리말을 사용하고 일어상용(日語常用)을 배격한다, ③ 국어와 국사 책을 구독하고 토론한다'는 세 가지 실천요강을 만들었다. 이 요강과 우리회의 강령을 비교해보면, 우리회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 현실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회가 해외 독립운동세력과의 연계를 피하면서 적극적인 실천을 모색했던 결과였다면, 석류회는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회원 상호 간에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키웠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위의 취지에 따라 최현배(崔賢培)의 『우리말본』, 안학(安廓)의 『조선무사영웅전(朝鮮武士英雄傳)』,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故事通)』 등과 역사소설을 구해 읽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석류』라는 회지를 3호까지 발행하였다. 또한 김제의 금산사(金山寺)·정음의 내장사(內藏寺), 남원의 광한루(廣寒樓) 등 고적을 답사하면서 조국애와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면서 과거 충신명현(忠臣名賢)의 애국적인 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음미하였다. 1944년 9월에는 한학자 최병심(崔秉心)을 찾아가 태극(太極)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극기를 그려 한 장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우리회 회원들의 2차 검거사건의 여파로 같은 1945년 1~2월경에 모두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

한편 1944년 4월경 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주사범학교 독서회는 우리회나 석류회와 조직적인 연계는 없었던 듯하나 활동의 성격은 유사하다.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4월 전주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한 안일(安鎰)을 중심으로, 같은 전주북중학교 출신 김필녕, 황해도 출신 백진우, 전북 옥구 출신으로 군산중학교를 졸업한 한철석, 그리고 같은 하숙집 하숙생이던 최상호와 김봉욱 등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결합하였다. 이들은 피 끓는 청년들의 민족혼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단 '독서회'를 꾸려 책을 많이 읽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여러 차례 독서모임을 거듭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1919년 3·1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에 자극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다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10월에는 일본군 헌병대에서 일하던 조선인 헌병보조원이 눈치를 챈 것 같다고 느껴, 하숙집을 반일 성

향이 비교적 강한 완산동(完山洞)으로 옮겨가면서 수정작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안일·백진우·한철석 등은 임시정부에 왕래했다고 하는 ‘이 선생’이라는 자로부터 태극기의 도양(圖樣)과 뜻풀이, 애국가를 배우고, 스스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제작하여 하숙집 천장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후 1945년 3월 1일을 기하여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1945년 2월 5일 일본 헌병에게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⁷⁶

‘전주북중학교 그룹’

위의 전주사범학교 독서회를 주도했던 안일 등이 전주북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1940년경부터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반전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촉탁교사 노환(盧桓)의 지도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고적답사, 시조연구를 위한 문학동호 모임을 꾸리는 등 동교를 중심으로 민족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자각하면서 ‘내선일체’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라고 보고 활동을 지속하였다.⁷⁷

노환은 1942년 10월 31일 검거되기 전까지 수업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의 수신(修身) 교과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내선일체’는 실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차별 투성이라는 것, 약소민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당면한 전쟁 시국에 관심으로 가지고 조국을 위해 분기해야 한다는 것, 조선 농촌의 피폐상, 훌륭한 조선 문화와 풍속상, 소금 및 설탕 등의 배급 상황, 일본이 고무나 석유 등 주요 군수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지를 점령했다는 것, 영·미 등은 자원이 풍부하고 일본은 물자가 부족하여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결국 패전한다는 것,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인내력이 강한 국민성을 지닌 중국이 최후의 승리를 거둬 다시 동양을 지배하게 될 것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⁷⁸

노환의 이러한 언급에 평소 큰 감화를 받은 김도(金濤)·박윤하(朴潤河)·최순기(崔淳基)·김태기(金泰基)·김병순(金炳淳) 등의 학생들은 1943년 1월 이래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민족의식을 구체화시켜갔다. 김도는 1943년 6월 사이판과 앗투 섬에서 일본군의 옥쇄(玉碎) 상황을 보고 이를 일제패망의 조짐이라 판단하고, 미국이 서해안에 상륙할 때에 대비하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동교의 배속장교인 기타하마(北浜) 중위가 학생들의 사상과 동태를 파악해 소속 군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일본인 교장의 동태까지 날 낚이 월별로 보고하면서, 하희주(河喜珠)와 김효영(金孝泳) 등 학생들에게 은밀히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 청년기에 있던 학생들은 교내의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갈등을 달래기 위해 전통사찰

76 이 사건으로 당시 전주농업학교에 재학하면서 동교에서 비밀결사운동을 하던 안일의 동생 안馨도 함께 검거되었다. 안형에게는 치안유지법 위반에다 ‘총포화약류단속령 위반’, ‘폭발물단속법칙 위반’ 등의 죄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결사를 조직하고 있었던 듯인데,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다.

77 이하 전주북중학교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6.12; 『朝鮮檢察要報』 8, 1944.10;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94.

78 전북 익산 출신의 노환은 경성사범학교 재학 시절 은사였던 일본인 요시다 마사오(吉田正男)의 ‘교육학 원론’ 강의에서 크게 공감을 받았다고 한다. 요시다의 자신은 양심적인 교육학자로서 일본의 동화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양 3국의 민족성 비교론 등을 설파하면서 결국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여 동양을 지배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하였는데, 노환은 그것을 필기하여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전주북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전파하였다.

이나 고적을 답사 순례하거나 뜻 맞는 사람끼리 시조나 한문을 연구하는 문학동호회를 만들기도 했다.

박윤하·김병순·최순기·김태기 등은 노환 교사의 영향으로 평소 만주 김일성의 신화적 투쟁, 태평양전쟁의 남방지휘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之) 대장이 자결했다는 일제 측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미국기에 의해 피격당해 사망한 사실, 조만간 일본군이 연합국에 항복해야 할 정도로 패망의 시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인도 간디의 투쟁, 지원병·징병제 반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논의 결과 이들은 ‘내선일체’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며 조선민족의 행복은 오로지 독립뿐이니, 시국이 자신들에게 독립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의 간디처럼 조선을 위해 분투해야 하며 시기를 잘 포착해 국내외가 서로 호응하여 붕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943년 8월 일제 경찰은 박윤하의 집 마루 밑에 몰래 숨어서 이들의 논의 내용을 모두 듣고 학생들을 검거하였다.⁷⁹

한편 동교에서는 여름방학 중에 학생들에게 실습지 매립 작업 등 각종 근로동원을 실시하였는데, 1943년 7월 28일 그 수료식을 마치고 귀가한 학생들을 다시 등교시켜 한꺼번에 전라북도경찰부 고등계 형사에게 인계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김도·심윤구(沈允求)·최명재(崔明在)·하희주·백남인(白南仁)·이웅재(李雄宰)·김효영·김동구(金東九)·은의기(殷義基) 등 9명이 연행되었다.⁸⁰ 이후에도 1945년 3월 15일 동교 졸업예정자로서 황등국민학교 임시교사로 나가고 있던 이원근(李元根)과 최홍락(崔鴻洛)이 검거되었으며, 전주에서도 엄흥섭(嚴興燮)·강동희(姜東熙)·황의두(黃義斗) 등이 검거되어 이원근 등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일제 경찰의 ‘불령청년’ 명령표에 기재되어 평소 반전·반일적인 논의를 했다는 혐의로 전주형무소 미결감에 수용되었다.

전주농업학교 근화회

다음으로 전주지역 학생비밀결사 가운데 전주농업학교 사례인 ‘근화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⁸¹ 근화회는 1941년 4월 김상권(金相權)·고병직(高炳直)·임낙선(林洛旋)·이벽우(李璧雨) 등 9명의 학생 주도로 조직되었다. 동급생들 간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차별교육이 심한 학교 상황에서 일본인 교사의 배척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조직 구성으로 총책(總責)과 부책(副責), 조직·정보·교양으로 담당 부서를 정하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활동을 들어보면, 전주남중학교(全州南中學校) 교정에서 실시될 전주시내 소재 중학생 합동 열병(閱兵) 분열행사 때 근화회 회원들은 지휘자의 구령에 반대 동작을 하기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이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열고 항일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그 결과 조직을 ‘전주농업학교 학우회’로 재조직하여 임원진을 개편하고 새로이 연락 및 동원 담당을 두었다. 또 다른 활동 사례로서, 실습시간을 이용하여 담임인 사토오(佐藤) 교사를 배척하기로 결정하고 교문 밖으로 그를 몰아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79 1944년 6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노환은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박윤하와 최순기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형을, 김태기는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형을, 김병순은 치안유지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형을 각각 언도 받았다.

80 이들은 대부분 1944년 12월 31일 석방 조치를 받았으나, 수감 중의 고문과 석방 후의 정신교육, 황민화 교육 등으로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했다.

81 이하 근화회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1944.4.21;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994;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1(김상권), 국가보훈처, 2002.

자 2학년생 전원이 동맹휴교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일로 김상권 등 일부 학생들이 그해 11월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1942년 2월 이들은 2단계 투쟁방법을 모색하였다. 이후 이들은 학생 신분을 유지한 잔류파와 퇴학 처분을 받은 교외파 간에 유대를 가지면서 목숨을 걸고 최후의 일각까지 항일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금 조달과 경찰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다시 학우회 조직을 이원화하였으며, 잔류파는 다른 중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가지고 항일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핵심인물이었던 김상권은⁸²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민족얼 찾기의 일환으로 김제 구암사(龜巖寺) 김종열(金鍾悅) 주지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30쪽에 달하는 수필집을 30부 등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단군(檀君)과 단군연호, 태극기 풀이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1943년 12월 점차 일제패망이 가시화되어 가는 가운데 학생들은 태평양전쟁의 추이와 전망, 징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인 학생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① 회원 중 일본 경찰이나 헌병에 체포된다 할지라도 학우회 조직은 실토하지 않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비밀을 지킨다, ② 회원 상호 간에 단도(短刀)를 교환하여 유사시에는 자결한다, ③ 징병 1기로 일본군에 입영하게 되는 회원은 조국의 광복과 일본군의 패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다, ④ 하급생의 포섭과 민족사상의 고취, 전주 시내 소재 다른 중학교 학생들의 연계투쟁을 위한 민족적 친목을 더욱 공고히 도모한다' 등 총 4항을 결의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이리농림학교의 사민단과 화랑회, 그리고 호남회

이리의⁸³ 학생비밀결사운동의 중심에는 이리농림학교가 있었다.⁸⁴ 1922년 5월 5년제로 설립된 공립이리농림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반반씩 모집하여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으며, 1925년 4월에 도립(道立)으로 이관되었다. 전국의 대다수 농림학교가 그러했듯이, 이리농림학교에서도 광주학생운동 이후 독서회가 조직되었고 민족차별 철폐를 내걸고 동맹휴교를 하는 등 항일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제말 이리농림학교에서는 '사민단'과 '화랑회'라는 2개의 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사민단과 화랑회는 모두 1943년에 결성되었다. 화랑회는 주로 당시 1~2학년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사민단은 그보다 1~2년 선배인 김직수(金直洙)·장이규(張二圭) 등이 결성한 조직이었다. 성원들은 민족적인 서적을 탐독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일제패망 시의 무장봉기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82 1941년 11월 퇴학을 당한 김상권은 독립운동의 뜻을 계속 가지고 1943년 9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다. 이때 시험관이 전주농업학교 재학 당시 일본인 교유를 배척했던 이유를 묻자 그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친구 柳勝雄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할 때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아 항일투쟁의 선봉에 서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토론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교환하는 등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1944년 4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형을 언도받았다(위 「判決文」 및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 참조).

83 이리는 오늘날 익산시에 속한 지역이다. 1931년 익산면이 이리읍으로 승격되어 익산군에서 분리되었고, 1949년 이리시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에 익산군과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다.

84 이하 이리지역 비밀결사운동(호남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裡里農林50年史』, 裡里農林同窓會, 1972; 『독립운동사』 9, 1977; 崔根茂, 「全北地方의 日帝下 抗日 學生 民族運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78;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994.

화랑회는 2학년생 이상운(李相云)이 동기생인 장지환(張志煥)·김구(金九)·호중기(扈仲基)·김영준(金英俊), 1학년생인 서기용(徐基容)·박기춘(朴基春)·강동석(姜東錫) 등을 규합하여 1943년 초에 결성하였다. 회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운은 화랑도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지금이 바로 청년 화랑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화랑회를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우리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애국정신을 기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는 일제의 패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과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에 독립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화랑회의 대표는 이상운, 조직책은 장지환과 서기용, 훈련책은 김영준, 선전외교책은 김구가 맡았으며, 이 외에도 기율책을 두었다. 화랑회는 점조직 방식으로 철저하게 비합법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명단 등을 비밀로 하였다.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에는 회원이 대략 12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징병·징용을 거부하고 불굴의 체력 단련을 중시하면서 총기 조종술 등을 훈련하였다.

1943년 5월 화랑회와 사민단은 서로 협력하여 ‘독립전투당’이라는 결사를 조직해 본격적인 무력항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김제군 금구면(金溝面) 모악산(母岳山)에 있는 고갈봉(변산봉) 광산에 들어가 화약을 탈취하고 금구주재소와 김제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후 만경강 철교를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들이 화약 탈취작전을 전개하던 중 공교롭게도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경비가 삼엄해지는 바람에 계획은 연기되고 말았다.

이후 이들은 우선 선행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징용과 징병에 응하지 않도록 권고·만류한다. 둘째, 유고시에 대비하여 총기 다루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일본 경찰과의 전투를 가상하여 불굴의 체력단련 등에 역점을 두어 부단히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인사의 추대를 서둘러야 한다’ 등을 결정했다. 1년 반이 지난 1945년 4월 이들의 활동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다수가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

한편 이리에는 학생비밀결사 외에도 일반 사무원 등의 비밀결사로 ‘호남회’가 있었다. 호남회는 이리국민학교 동기생인 윤용섭(尹容燮)·박현식(朴賢植)·배종선(裴鍾善)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정확한 조직 시기는 알 수 없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해지면서 머지않아 미군이 서해안 쪽으로 상륙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들은 그때에 대비하여 영어회화를 공부하였다. 당시 학교 교과목에서도 영어가 금지되어있던 상황에서 이들이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려 하자, 종종 이것이 문제시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리 인근지역에 ‘조선독립, 보아라’ 등의 빠라를 살포하거나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회원들 중 일부는 당시 익산금융조합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문학동호모임을 만들고 『신서(新曙)』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45년 6월 이리역 전신주에 빠라 20매가 부착된 것이 단서가 되어 모두 검거되었다.

메 모

Те Хун – революционер из Чолладо

Сон Жанна,

Школ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ИУ ВШЭ, Россия, Москва

Введение

100 лет Первомайскому движению –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для всех корейцев на земном шаре. Первомайское движение 1919,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будило в корейцах национальное и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знание и невероятный подъем в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е.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весь народ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вышел на мирную демонстрацию.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ослабить полицейский режим и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умиротворения. Появилась ограниченная свобода слова, печати, собраний и объединений. Повсеместно стали возникать народные движения, такие как движение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 молодежи, студентов, женское движение и др. Все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20-х годов позволили сформировать рамк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величилась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этот период именуют – «веком народных движений». Однако пресле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должалось.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уезжали из Кореи в Китай, Россию и Америку.

Русская революция 1917 года стала предтечей Первомайскому движению 1919 года. Революционные лозунги о мире, равенстве и братстве всех народов звали корейски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в Россию. Страстное желание учиться социализму и освободить угнетенную Корею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привело в Россию сотни и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из разных социальных слое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корейцы, преследуемые японцами, отправлялись в Россию за светлым будущим. Не все до конца понимали,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 России.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мысл равенства и братства всех народов?

Выходцы из иерархической, феодальной Кореи, где социальное неравенство играло огромную роль, не могли найти между собой общих

критериев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ногласия между самими корейцами не позволили объединиться корейск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е.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велась к выяснению личностных отношений. Борьба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порождала разногласия, ненависть друг к другу и обвинения в японском шпионаже.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писали доносы, обвиняя друг друга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японцам. В 1937-1938 гг. в период массового террора вся корейская секция Коминтерна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по обвинению в японском шпионаже и подверглась расстрелу.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нтерна после смерти В.И. Ленина в 1924 г.

После смерти В.И. Ленина в условиях безусловного доминир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началась фракционная борьба наследников Ленина за власть. В этой борьбе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мунисты оказались заложниками. Попытки коминтерновцев защитить завоевания революции, измени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и идейные устои Москов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были безуспешными.

Поэтому в 1920–1930-х годах соотношен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СССР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нтерна¹ не было стабильным. Состороны РКП(б)–ВКП(б)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партии были подчинены большевистской идеологии и оперативному контролю.

Работа Коминтерна постепенно подчинялас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ССР. Попытка утвердить в ИККИ систему «коллектив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терпела такой же крах, как и в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Органы Коминтерна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кампанию травли российских оппозиционеров.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каждая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ртий должна была изобличать и исключать из своих рядов собственных троцкистов и зиновьевцев,² подобной участи не избежала и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ртия.

В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м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партиям удавалось удерживать в сфере своего влияния немалую часть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завоевать прочные позиции 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колониального

1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явша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в 1919—1943 годах. По Ленину — «союз рабочих всего мира, стремящихся к установлению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2 *Ватлин А.Ю.* Коминтерн: идеи, решения, судьбы. М., 2009. С. 127.

мира. Несмотря на кадровые чистки и процесс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унификации, в их руководстве оставалось немал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ыслящих лидеров, для которых речь шла не о политической карьере или материальном благополучии, а о служении делу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Для миллионов людей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земного шара понятия «Коминтерн» 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то время были неотделимы. Марксистский лозунг «У пролетариев нет своего отечества» сменил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лозунг «Отечество пролетариев всего мира находится в первой стране, строящей социализм».³

По мер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юза 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енялось отно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 коминтерновцам.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тала одиннадцат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установивши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ССР. В течение 1924 г. еще столько же государств признал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что позволяло говорить об окончан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блокады страны.⁴

После долгих и тяжел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20 января 1925 г.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Пекинская конвенц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ля СССР одним из с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было обсуждение статьи 16 в английском договоре, а в Пекинской конвенции – статьи 5, касающихся организаци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ропаганды.

Требования Англии по статье 16 английского договора формулировались в жесткой форме. Они содержали достаточно оснований для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нтерна.

Что касается статьи 5, то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НКВД СССР Л.М. Карахан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кладывал Г.В. Чичерину о трудностях, возникавших в процессе составления 5-ой статьи о пропаганде. Требования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заключались в том,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в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н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участвовали лица, не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я к Коминтерну. Претензии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относили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нтерна. В частности, она требовала прекращения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Конвенции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ла НКВД СССР о разрыве дипотношений, если со стороны Союза ССР не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а антияпон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Японская

3 См.: *Ватлин А.Ю.* Коминтерн: идеи, решения, судьбы. М., 2009.

4 За мир, разоружение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ов. Летопись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ССР. М., 1983. С. 71.

сторона согласилась на участие в переговорах, как отмеча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Л.М. Карахан, только те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ользовались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оставлены только те, кто находитс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службе.⁵

Реализация положений, зафиксированных в 5-й статье договора, позволяла советским дипломатам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вопрос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НКВД СССР с Коминтерном будет вызывать неоднократно трения с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очевидно, НКВД СССР придется со всей энергией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ю отклонять вся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нтерн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и составлении 5-й статьи в японском договоре советским дипломатам удалось учесть опыт переговоров с Англией и обойти острые углы, касающиеся пропаганды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дей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нтерна.⁶

17 июня 1927 г.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Г. Танака сделал заявление о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⁷ в котором отмечалось о нарушении советской стороной ст. 5 Пекинской конвенции. Япония была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активно проявили себя в 1926 г., организовав в Сеуле Июньскую демонстрацию.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й акции,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непродуманной, погибли сотни людей.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ей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более 160 человек, фактически всё руководство, вновь избранного ЦК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ЦК ККП) и комсомо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являлись побудительным мотивом для заявлений о прекращении дипотношений Японии с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22 июня 1927 г. НКВД СССР, обеспокоенный этим заявлением,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составляет инструкцию для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ССР в Японии В.С. Довгалевского. В пункте 5 инструкции читаем: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совет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еизвестно, чтобы какие-либо частные советские граждане занимались антияпо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днако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могло бы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 частных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то они нигде не ведут антияпонской работы. Между тем японская пресса в

5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1 кн. М., 2007. С. 326–327.

6 Там же. С. 326.

7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2 кн. М., 2007. С. 132.

Маньчжурии, руководимая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едет систематическую борьбу с СССР и его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в Китае».⁸

Резкое ухуд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ССР в 1927 г. началось с событ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миньдана начало репрессии против кита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и совершило налет на совет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 Пекине. 12 мая 1927 г. британская полиция провела обыск в советско-английской торговой фирме АРКОС. Причина была заранее известной – поиск подрыв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Угроза развязывания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со стороны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Западе, а на Востоке – Японии,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в Москве самым серьезным образом. Пресса получила указание развернуть кампанию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поджигателей войн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отеста.

СССР находился в окружении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агрессивно настроенных против коммунистов и готовых в любой момент начать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минтерн, собравшая коммун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л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пропаганду по всему миру. Э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реди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 концу 1920-х годов международ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нтерна И. Сталин рассматривал как угрозу для СССР. Он решил, что в Коминтерне процветает шпионаж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чались проверки, чистки коммунистов,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арестовывали и сажали в тюрьму.

С июня 1927 г. Президиум ЦИК СССР предоставил ОГПУ⁹ право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о внесудебном порядке бывших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шпионов и банди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активно насаждалась шпиономания, нагнетались слухи о неизбежности начала войны. В следственных материалах и приговорах ОГПУ все чаще фигурировали обвинения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Англия, Германия, Япония, Польша и др.

Кризис в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аступил в 1930 г., когда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 Токио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лидеры японской Компартии. 19 января 1930 г. Япония выразила протест против связей советского полпредства в Токио с япон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и оказываемой и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Коминтерном.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⁸ Там же. С. 133.

⁹ *Мозохин О.Б.* Право на репрессии: Внесудебные полномоч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1918–1953). М., 2006. С. 115.

свидетельства (шифровки, телеграммы) о связях япон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с Коминтерном,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трудящихся востока (КУТВ), с полпредством в Токио.¹⁰

В ответ на протест 30 января 1930 г. НКВД СССР предъяв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ноту об опровержении обвинений, высказанных в адре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ССР о поддержке ими японской компартии.¹¹ В ноте совет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рицались претензии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поводу имевших, якобы, со стороны СССР в 1926 и 1927 гг., место незаконных действий, идущих вразрез со ст. 5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го договора. В этих нарушениях обвинялись бывший сотрудник полпредства СССР в Токио Я.Д. Янсон, а также бывший сотруд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СССР в Шанхае С.Д. Вильде.¹²

СССР заверил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 тщательной проверке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в случае, если окажется, что кто-либ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сов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овинен в приписываемых ему действиях, то он понесет суровое наказание. Констатировалось также, что для исклю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нарушений ст. 5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го договора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и бди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никто из лиц, состоящих на службе, не совершал никаки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явились бы нарушением этих обязательств.¹³

Относительн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нтерна ответ носил чисто стандартный характер.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может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ходящейся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минтерн) совершенно част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оэтому лишено возможности оказывать какое-либо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ее местных секций»,¹⁴ – указывалось в документ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складывали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союз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 главе с И. Сталиным и 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¹⁵ вело соглашательскую политику. Союз ССР прикладывал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идя на уступки с целью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Японию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фликт, а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эти уступки зеркально отображались в репрессивных акциях.

10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2 кн. С. 311–318.

11 Там же. С. 318–320

12 См.: Там же. С. 319.

13 См.: Там же.

14 Там же.

15 См.: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г. В 2-х кн.

На менталитет коминтерновской номенклатуры в 1920–1930-е годы прямое воздействие оказывало наличие внутрипартий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Их участники сохраняли между собой неформальные связи, переносили их из политики в сферу лич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ой ж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член той же компартии был либо ближайшим другом, либо самым опасным врагом –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землячествам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нейтр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Именно между ними отмечался наиболее осязаемый поток взаимных обвинений и доносов.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мунисты, в том числе и корейцы, в СССР в условиях всемогущей кар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пытались находить способы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спасения. Одним из этих способов была игра на опережение, т.е. писались доносы на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ротивников.¹⁶ Партийная дисциплина в Коминтерне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ртий несли пол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аждого политэмигранта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Любые поражения в революционной борьбе в этих странах отражались на жизни коминтерновцев.

조 훈 (1897 – 1938)

Автор и составитель мартиролага о жертва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Ку-Дегай Светлана подготовила 17 том книги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 – 1938». В этой книге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о архивно-следственное дело Те Хуна, с ее разрешени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той публикацией. В книгу вошли документы о реабилитации 139 корейцев, арестованных в годы Большого террора, а также архивно-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ла Ли Ен Шена, Ли Пи Ти, Тянь Суна, Пак Чихака, Кан Хайрона.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этого доклада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документы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4, 19; Ф. 533. Оп. 3. Д. 45.

Те Хун родился в 1897 г. в Ч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до Кореи. В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интернационале молодежи бы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член Корейского бюро с 1923 г. В 1919 году был инициатором создания бое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Иркутске «Герсада» («Кёльсадэ») под лозунгом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 1932 года работал реда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Москве. Арестован органами НКВД 1 декабря 1937 года и содержался под стражей в Бутырской тюрьме г. Москвы.

¹⁶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1941 гг. М., 2007. С. 130, 340–344, 344–346, 548–551, 559–561 и др.

Военной Коллегией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ССР 13 февраля 1938 года приговорен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 расстрелу. Приговор приведен в исполнение в тот же день 13 февраля 1938 года.

Те Хун полностью признан невиновным Военной Коллегией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ССР 11 марта 1958 года. Место захоронения: Москва, Бутово-Коммунарка.¹⁷

По корейским данным с 1915-1918 Тё Хун был членом «Кванбокταν» (Союз освобождения) в Корее и Кандо в Китае. Информации о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итае у нас не имеется.

В РГАСПИ в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Коминтерна первые сведения об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ё Хуна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1920 году.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состоявшие в отдельной роте, воевавшие против Колчака,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Иркутска создали корейску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ячейку,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й затем сложилась корейская секция Ирку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КП(б). В Протоколе № 1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ячейки,¹⁸ эта ячейка взяла на себя инициативу по созд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который мог бы возглавить работу по созыву съезда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группиячек) в России. Возглавлял эту ячейку Нам Ман Чун. Членом этой ячейки были Тё Хун.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отдельная рота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Иркутска была включена в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ую дивизию и продолжала воевать с оставшимися отрядами колчаковской армии и армией Каппеля. В этой роте воевали Пак Сын Ман, Нам Ман Чун, Те Хун, Пак Алексей, Юн Хеб, Ким Чхор Хун, Ан Николай и Ким Чунчжен.¹⁹

Те Хун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его работе. ЦК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ноябре 1920 г. принял установку созвать в скорейшем времени съезд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итае и Корее в целях объедин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их, определения их линии и создания един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руководящего органа и решил переносить центр

17 Военные полигоны Бутово 20761 и Коммунарка 11400 – места массовых захоронений жертв сталинских расстрелов с 1936 по 1953 годы, находятся в Москве. На Бутовском полигоне захоронено 20761 человек, на расстрельном полигоне Коммунарка захоронено 11400 человек.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выше пятидесят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русских, латышей, поляков, евреев, украинцев, немцев, китайцев, корейцев...

18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4. Л. 1-1об.

19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4. Л. 2-2об.

тяжести работ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ъезд был назначен на 15 января 1921 г.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было решено послать ответственных партработников: Ли Шена и Ким Чхор Хуна в Кандо, Те Хуна – в Корею, Пак Сын Мана и Гр. Цая –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²⁰ В июле 1921 г. Те Хун был делегатом III Конгресс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А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Те Хуна проявилась в рабо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молодёж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 III Конгресс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молодёж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Москве 4-16 декабря 1922 г. Те Хун был делегатом от Кореи. На нем присутствовал 121 делегат от 38 организаций молодежи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Конгресс рассмотрел вопросы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содействие компартии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фашизма, борьба против во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превращен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союзов молодежи в мас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чей молодежи и проведение тактики единого фронт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и теоре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комсомола, в том числе и резолюцию «О работе в странах Востока».²¹

Датой возникнов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омсомола наз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числа, месяцы и годы.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ИК КИМ уже в октябре 1921 г. было создано Центральное бюро комсомола Кореи. Оно вскоре перебазировалось из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в Шанхай и оттуда начало работ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Корею.²²

В августе 1922 г. Те Хун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ИК КИМ прибыл в Корею и начал работу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молодежных комсомольских групп. Осень 1922 г. часто указывается в документах как время, когда возник и начал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ККСМ).

В резолюции III Конгресс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молодежи «О работе в странах Востока» относительно Кореи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1. Союз должен укрепить в своих рядах дисциплину.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влияния КСМ необходим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лег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ассовой работы.

20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9. Л. 47, 51–51об.

21 Коминтерн, КИМ и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1919–1943).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 1 (1919–1933). М., 1977. С.191.

22 РГАСПИ. Ф.533. Оп.3. Д.45. Л.1.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численность рядов союза, нужно вести работу в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массах не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и батрацкой молодежи и в существующих юнош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овлекая в КСМ их лучшие революционные пролетарский элементы.

2. Усиление этой работы будет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КСМ использует все легальные формы работы, включится в борьбу за улучш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молодежи и вместе с тем начнет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развитию своих членов.
3. Перед КСМ стоит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й задачи ведение агитации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Эта агитация должна вестись в строго классовом духе, без всякой примеси национализма. КСМ Кореи обязан установить тесную связь с Исполкомом КИМа. Ввиду отсутствия в Коре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ризнанной Коминтерном, III конгресс поручает Исполкому КИМа взять политической руководство союзом на себя до создания компартии.²³

Решать эти важные задачи было поручено Те Хуну. В марте 1923 г. ему удало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екорейский съезд молодеж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еуль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В работе съезда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коло 80 организаций молодежи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ов Кореи.

К сожалению, это съезд был разогнан японскими жандармами, свыше 60 членов съезда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То же произошло со съездом, созванным в апреле этого же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оюз сумел провести в президиум 8 комсомольце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возникли некоторые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опросу. Это отражается на работе нашего комсомола, и исполком КИМа мог бы много помочь нам своими деловыми указаниями, ибо нам труд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обраться в этом вопросе. IV конгресс (1924) должен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о работе на Восток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²⁴

23 Коминтерн, КИМ и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1919-1943).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1 (1919-1933). М., 1977. С. 191.

24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Те Хуна на IV конгресс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Молодежи // Правда. 20 июля 1924 г.

Тё Ху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ытал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КСМ в Корее, однако, эти попытки оказались безрезультатными.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оставалась разрозн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т.е. старших товарищей. Будучи свидетелями бесконечных споров и дискуссий о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движени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и, молодёжь не понимала и не знала в какую сторону надо развивать свое движение. Об этом Тё Хун пытается рассказать на IV конгрессе КИМа и просит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помощи в решении этих проблем.

В 1926 г. в ИККИ Те Хун бы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и комсомола Кореи. Он отвечал за связи с Цент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Компартии Кореи, т.е. под его началом находилась вся подпольная работа партии.

Травля Те Хуна началась в 1926 г., когда Пак Динь Шунь написал заявление в отдел кадров Коминтерна «Материал о троцкис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е Хуна». В этом заявлении Пак обвинил Те Хуна в организации троцкистско-зиновьев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ного блока. В блок якобы входили Цой Шен У, Тю Ченсон, Ше Сун Мин, Ким Те Хе (жена Те Хуна). Он обвинил Те Хуна, что тот не отправил статью Пака в Корею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в ЦО компартии. Это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парткома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артком вынес решение: считать обвинения в адрес Те Хуна необоснованными и недоказанными (1926).²⁵

Для выяснения эт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екретариат ИККИ обратился к Ким Чер Су разъяснить этот конфликт (заявление Ким Чер Су от 4 мая 1927 г.).²⁶ Ким Чер Су объясняет ситуацию между Пак Динь Шунем и Те Хуном. Конфликт начался на VII пленуме ИККИ,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Крестинтерна и референт по Корею в ИККИ Пак Диньшунь критиковал «заграничное бюро ЦК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Те Хуна и Ким Чана за политические уступки по целому ряду вопросов в Корею. Те Хун и Ким Чан высказывались отрицательно з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с Чхондогё.²⁷ После этого пленума Пак Динь Шуня и Вознесенского отстранили от их работы. По мнению Ким Черсу снятие с

25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1934-1938. Книга 17. М., 2019. С. 151-152.

26 Там же. С. 154.

27 Там же. С. 156.

работы Вознесенского и Пак Динь Шуня по просьбе Те Хуна было незаслуженным и их необходимо вернуть напряжную работу.²⁸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Пак Динь Шунем и Те Хуном длился фактически до 1937 года. Мы не находим документов, где Те Хун обвиняет в Пак Динь Шуня или пытается оправдать себя от этих обвинений.

«Большой террор»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начался в 1937 году. Все эти документы десяти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отив Те Хуна. Все лица, названные в заявлении были также арестованы. Со стороны НКВД и прокуратуры никто не разбирался кто есть кто! Всех перемололи в одной мясорубке.

Корейцы в расстрельных списках.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²⁹

Сталинские списки	Дата расстрела	Ф. И. О.	Мера наказания
Список 113 чел. АПРФ. Ф. 3, оп. 413, л.110–112	22.11.1937.	Пак Геннадий Петрович, он же Пак Сингю	1кат. ВМН
»»_»	22.11.1937.	Цой Шену	1кат. ВМН
Список 270 чел. АПРФ. Ф. 3, оп. 24, д. 413, л.251–260.	07.12.1937.	Ким Чунсен, он же Ли Сентай	1кат. ВМН
»»_»	07.12.1937.	Лин Дашин	1кат. ВМН
»»_»	07.12.1937.	Хан Николай Еремеевич	1кат. ВМН
Список 86 чел. АПРФ. Ф. 3, оп. 24, д. 413, л. 293–296.	13.12.1937	Ой Яншин	1кат. ВМН
Список 163 чел. АПРФ. Ф. 3, оп. 24, д. 414, л. 3–9.	03.01.1938	Те Хун	1кат. ВМН
Список 107 чел. АПРФ. Ф. 3, оп. 24, д. 414, л. 220–224.	03.02.1938.	Ким Данъя	1кат. ВМН
»»_»	03.02.1938.	Ким Черсан	1кат. ВМН
»»_»	03.02.1938.	Ли Дзону	1кат. ВМН
»»_»	03.02.1938.	Лий Дюнбьяк	1кат. ВМН
»»_»	03.02.1938.	Чен Мин, он же Се Чо	1кат. ВМН

²⁸ Там же. С. 157.

²⁹ Сон Ж.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лил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1920-1930. М., 2013. С. 292-293.

Список 156 чел. АП РФ. Ф.3, оп. 24, д. 414, л. 357–362.	03.02.1938.	Венков Михаил Кузьмич (он же Тен Кенчан)	1 кат. ВМН
»»_»	03.02.1938.	Пак Николай Афанасьевич	1 кат. ВМН
»»_»	03.02.1938.	Юй И (он же Лю Хваншин)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60 чел. АП РФ. Ф. 3, оп. 24, д. 415, л. 5.	05.03.1938.	Пак Чинсун (Диншунь) Иван Федорович (он же Чу Ну)	1 кат. ВМН
»»_»	05.03.1938.	Цзю Петр Антонович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218 чел. АП РФ. Ф.3, оп. 24, д. 415, л. 12–19.	05.03.1938.	Шен Усеп Климентий Петрович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164 чел. АП РФ. Ф. 3, оп. 24, д. 415, л. 192–197.	28.03.1938.	Восков Анатолий Павлович (он же Лю Усанг)	1 кат. ВМН
»»_»	28.03.1938.	Магай Варлаам Иннокентьевич (он же Ма Хенмен)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327 чел. АП РФ. Ф. 3, оп. 24, д. 416, л. 10–17.	19.04.1938.	Е Шин	1 кат. ВМН
»»_»	19.04.1938.	Ким Дюван	1 кат. ВМН
»»_»	19.04.1938.	Ким Дюн-Кимович	1 кат. ВМН
»»_»	19.04.1938.	Ким Сугир	1 кат. ВМН
»»_»	19.04.1938.	Пак Никиф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 кат. ВМН
»»_»	19.04.1938.	Пак Сюдинг	1 кат. ВМН
»»_»	19.04.1938.	Сун Яннин (она же Ким Женчи)	1 кат. ВМН
»»_»	19.04.1938.	Хван Тонюк Константи 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152 чел. АП РФ. Ф. 3, оп. 24, д. 417, л. 191.	10.06.1938.	Ким Ден, она же Ким Денг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208 чел. АП РФ. Ф.3, оп. 24, д. 417, л. 238–245.	20.08.1938.	Ким Дебом	1 кат. ВМН
»»_»	20.08.1938.	Ли Тэ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340 чел. АП РФ. Ф. 3, оп. 24, д. 418, л. 3–15.	12.09.1938.	Ким Федор Дмитриевич	1 кат. ВМН
Список 66 чел. АП РФ. Ф. 3, оп.24, д. 418, л. 21–23.	12.09.1938.	Ли Шунзо	2 кат. ГУЛАГ

Источник: Сталинские списк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talin.memo.ru/images/intro.htm> 04.06.2009. (Выборка сделана автором)

Заключение

К концу 1920х год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нтерна отрицательно влияла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ведущими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ми державами (Англия, Германия, Америка, Япония). Сталин проводил регулярные чистки в партийных рядах Коминтерна в поисках шпио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тив СССР.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коммунисты Коминтерна с целью самосохранения и желания выжить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исали друг на друга доносы, выдумывали разные обвинения против своих товарищей.

Борьба за лидерство, выяснение личност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зделение на группировки были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междоусобной борьбы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С 1924 по 1953 гг.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более 7000 корейцев³⁰ по обвинению в японском шпионаже. Из них 50% - расстреляно, остальные отправлены в ГУЛАГ.

В июле 1937 г. Япония начала войну с Китаем, имея в дальнейшем виды и на СССР. Сове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мело множество доказательств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им было обоснова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 1428-326 сс СНК СССР и ЦК ВКП(б)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котором указано: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райо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ровести след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1. Предлож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йкому ВКП(б), крайисполкому и УНКВД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ыселить вс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осьетского, Спасского, Шмаковского, Постышевского, Баклинского, Вяземского, Суйфунского, Кировского, Калининского, Лазо, Архаринского, Сталинского, Блюхерово и переселить в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районы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и Балхаша и Узбекской ССР. Выселение начать с Посьетского района и прилегающих к Гродеково районов.

³⁰ В 17-ти книгах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Автор-составитель Ку-Дегай Светлана) собраны архивные справки о реабилитации 7000 корейцев,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с 1924 – 1953 гг.

2.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 закончить к 1-му января 1938 ...».

Сталин имел юрид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для обвинения всех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ом шпионаже. С во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считало, что в случае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с Японией корейцы могут перейти на ее сторону.

13 ноября 1937 г. япон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 Москве выразило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претензии Японии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ину было, что предъявить...

메 모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 조훈을 중심으로

송 잔나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개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세계 모든 한인들에게 중요한 기념일이다. 1919년도 삼일운동은 모든 한인에게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을 일깨워주고 항일투쟁에 엄청난 열정을 가져다주었다. 일본에 항의를 표하기 위해 노소를 불문하고 온 민족이 평화 시위에 참여하였다.

삼일운동에 의해 일본의 총독부는 경찰의 무단 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어 그 결과 제한된 단체활동과 언론 활동이 허가되었다. 국내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등 다양한 민족 단체들이 형성되었고 이 모든 단체들이 1920년도 후반에 민족적인 협동의 바탕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한인민족 운동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한국역사학에서 이 기간을 «민족운동의 세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한인 의병에 대한 일본 정권의 추적은 계속 이루어졌다. 독립운동가들은 모국을 떠나 중국, 러시아 및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1917년 혁명은 1919년 삼일운동의 전조였다. 혁명 때 평화, 모든 민족의 평등과 공동성에 대한 구호가 한국 혁명가들을 러시아로 부르고 있었다. 사회주의를 배우려는 열정과 일본 침략군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의지를 따라 수천 명의 모든 사회 계층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일본에 쫓기는 부유한 한인과 가난한 한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러시아로 떠났다. 그 당시 러시아 정황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민족 동등성과 공동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봉건주의적이고 계급제도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성을 지닌 조선 이민자들이 일본 침략군 항쟁의 공동기준을 서로 찾지 못했다. 한인 중 정치적인 갈등으로 한인 정치 및 사회단체들이 항일 투쟁에 결합하지 못했다. 결국 주요 활동이 개인적인 다툼으로 끝났다. 지도자들 간에 투쟁이 지속되는 다툼과 증오심으로 넘어가 서로 일본 첩보라고 비난하였다. 한인 공산당원들이 서로 친일관계에 대한 밀고하였다. 1937-1938년도 대숙청 때 코민테른 한인부 전체가 일본 스파이 행위 기소로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였다.

1924년 레닌 V.I. 사후 코민테른 활동

레닌 사후에 러시아 공산당 우월한 조건에서 레닌의 후계자들이 권력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투쟁 때 외국 공산당원들이 인질로 잡혔다. 코민테른¹ 당원들이 혁명의 성과를 지키고 모스크바 본부의 조직과 사상을 변화시키려는 이들의 노력이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1920-1930년도에 코민테른의 소련 국제 및 국내 활동이 불안정적이었다. 외국 공산당은 러시아 - 소련 공산당의 볼셰비키 사상 및 규제 하에 있었다.

코민테른 활동이 소련 공산당에 정복되었다. 공산당 국제동맹 집행위원회에 «협동간부회» 설립 시도는 전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부와 똑같이 실패하였다. 코민테른 기관들이 러시아 야당에 박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공산당들이 트로츠키 및 지노비에프²파를 폭로하여 당원들을 강퇴하여야 했고 한 인 공산당 또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련 당국의 첫 10년 동안 국제 공산당들이 유럽의 대부분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에 견고한 바탕을 이룰 수 있었다. 불순분자 제거 및 사상통일화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외국 공산당 간부회에 자립적인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은 정치적인 출세와 물질적인 풍요보다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전세계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코민테른과 소련이라는 개념이 분리할 수 없었다. «전세계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조국이란 개념은 없다»라는 마르크스의 구호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조국이란 사회주의를 수립한 첫 국가에 있다»³는 공산당 구호로 수정되었다.

소련이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코민테른에 대한 소련정권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영국은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은 11번째 국가였다. 1924년 동안에 같은 수의 국가들이 소련을 인정하여 이는 외교적 봉쇄의 결말을 의미했다.⁴

일본과 힘들고 오랜 협상 끝에 1925년 1월 20일 소련-일본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북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소련에 있어서 공산당 선전활동에 관련이 있던 영국 조약 제 16조 및 북경 조약 제5조가 관건이 되었다.

영국조약 16조에 제시된 요구가 냉혹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다. 조항 내용 중 코민테른 활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제5조에는 소련 외무부 부장관 카라한 L.M.이 선전관련 제 5조 작성 중 발생하는

1 코민테른 - 국제 단체이며 1919-1943년도에 여러 국가 공산당을 연합하였다. 레닌에 따라 «전세계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국 노동자 연합이다».

2 Ватлин А.Ю. Коминтерн: идеи, решения, судьбы. М., 2009. С. 127.

와틀린 A.U. 코민테른: 사상, 결정, 운명. 모스크바, 2009년, 127쪽.

3 См.: Ватлин А.Ю. Коминтерн: идеи, решения, судьбы. М., 2009 / 와틀린 A.U. 코민테른: 사상, 결정, 운명. 모스크바, 2009년.

4 За мир, разоружение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ов. Летопись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ССР. М., 1983. С. 71.

평화, 방비철폐 및 안전을 위하여. 소련의 외교 연대기, 모스크바, 1983년, 71쪽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치체린 G.V.에게 보고하였다. 일본측 요구에는 협상 뿐만 아니라 협력 중에도 코민테른 관련된 사람들이 없는 것이었다. 일본측 요구가 코민테른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내용 중 항일투쟁 종결이 있었다.

조약체결 후 일본이 소련외무부에 항일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카라한 L.M.이 언급에 의하면 일본측이 협상에 정부의 금융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협상자리에 공무원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⁵

조약의 제5조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련 외교관들은 외무부와 코민테른의 관계관련 문제가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 소련 외무부는 코민테른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여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 5조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련 외교관들이 영국조약 당시 얻은 경험을 감안하여 코민테른 활동과 공산당 사상 선전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⁶

1927년 6월 17일날 일본 총리 및 외무부 장관 다니카는 소련-일본 관계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북경조약 제5조 위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⁷ 일본은 중국, 한인 및 일본 공산당 활동에 대하여 박식하였다.

한인 공산당원들이 1926년도에 서울에서 6월 시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우리 평가에 미비한 행사로 인해 수백명이 숨졌다. 일본 경찰이 160명 이상, 새로 선발된 조선공산당 및 콤포몰 중앙위원회 전체가 체포되었다. 이 모든 활동이 소련과 일본 외교 중단에 대한 공표의 원인이 되었다.

1927년 6월 22일 소련 외부무는 이러한 공표에 염려를 품고 소련의 일본 대사인 도브가레프스키 V.S. 앞으로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지시서 제5조항 내용중: «소비에트 정부는 소련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항일 투쟁에 참여한다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며 만약 개인들이 투쟁을 하더라도 소비에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공식 대표자들은 항일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만주에 일본 정부 지도 하에 있는 일본언론이 소련 및 중국에 있는 소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⁸

소련의 국제정세 악화는 1927년 극동 사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국민당의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탄압을 벌여 북경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습격하였다. 1927년 5월 12일 영국 경찰이 소련-영국 «ARKOS»라는 상사 본부를 수색하였다. 원인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공산주의 선전 문헌이었다.

모스크바는 서쪽에서 영국과의 투쟁, 동쪽에서 일본과의 투쟁을 염려하고 있었다. 언론은 제국주의의 전쟁 도발자들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1 кн. М., 2007. С. 326-327.

모스크바-도교: 크렘린의 정치 및 외교. 1921-1931년도. 제1권, 모스크바, 2007년, 326-327쪽.

6 Ibid, 326쪽

7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2 кн. М., 2007. С. 132.

8 ibid, 133쪽

전국에서 항의시위가 이루어졌다.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로 포위되어 있었고 이 모든 국가는 공산당원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세계 공산당원을 연합시킨 국제단체 코민테른은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선전활동을 하였다. 1920년 말에 스탈린 I.는 코민테른의 외교활동이 소비에트 정권에 위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코민테른이 반소련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 수색과 공산당원 제거 활동이 시작되었고 혐의자들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1927년 6월부터 소련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합동국가보안부에 백군, 스파이 및 악당을 재판 절차 없이 총살을 허가하였다.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스파이 공포가 전파되어 전쟁 반발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다. 합동국가보안부 수사자료 및 판결 내용에는 영국, 독일, 일본, 폴란드 등 스파이 활동 관련 내용이 자주했다.⁹

1930년에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일본 공산당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소련-일본 관계에 위기가 다가왔다. 1930년 1월 19일날 일본은 도쿄의 소련 전권대표단과 일본 공산당의 교류 및 코민테른의 금융적인 지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일본측은 일본 공산당과 코민테른,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및 도쿄 전권대표단의 서로 간에 암호화 전보를 증거로 내놓았다.¹⁰

1930년 1월 30일날 소련 외무부는 일본 공산당 지원에 대한 항의를 반박하였다. 소련정부의 항의 내용 중 일본의 1926 및 1927년도에 소련-일본 조약 제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장 내용에 도쿄 소련 전권대표단의 전 공무원 안손 Y.D. 와 상해 소련 주영사관의 전 공무원 월데 S.D.가 언급되었다.¹¹

소련은 일본 정부한테 받은 정보를 절대 점검해서 소련 기관의 공무원 중 누구라도 기소내용에 있는 행위에 실증될 경우 중벌할 것을 단언하였다. 또한 소련-일본 조약 제5조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일원 중 누구도 약정 내용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깊이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¹²

코민테른 활동에 대한 반응은 표준적이었다: «소련정부는 국토에 있는 국제 단체 (코민테른) 사적인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러한 단체 및 지부활동에 영향 줄 수 없다»¹³라고 하였다.

군국주의의 일본과 외교관계에 스탈린의 소련 정부가 경제 및 정치적인 토론에 회유정책을 수행하였다.¹⁴ 소련은 일본과 국제 분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양도를 하면서 거대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양도는 대내정책에서 탄압정책으로 이어졌다.

9 Мозохин О.Б. Право на репрессии: Внесудебные полномоч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1918-1953). М., 2006. С. 115.] 모조힌 O.B. 탄압 권리: 국가내무부 재판외의 권리 (1918-1953). 모스크바, 2006년, 115쪽

10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оды. 2 кн. С. 311-318. 모스크바-도쿄: 크렘린의 정치와 외교. 1921-1931년도, 제2권, 311-318쪽.

11 ibid, 319쪽

12 ibid

13 ibid

14 См.: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1931 гг. В 2-х кн. 모스크바-도쿄: 크렘린 정치 및 외교. 1921-1931년도, 2권 전부

코민테른 정치 엘리트 의식에는 1920-1930년도 당내분파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허물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옮겨갔다. 동족끼리, 같은 공산당끼리 친한 친구였거나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 정치적인 동향인 회끼리 중립적인 관계는 거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고발과 밀고의 흐름이 거세졌다.

한인을 포함한 외국 공산당원들은 소련의 전능한 징벌 체제 속에서 개인적인 구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방법 중 잠재적인 상대에 대한 밀고는 사전대책이 되었다.¹⁵ 코민테른 정당 규정은 외국 공산당 대표들이 정치적 망명 동족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명투쟁 실패는 코민테른 일원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조 훈 (1897 - 1938)

정치적 탄압희생자들 목록을 저자이자 편찬자인 구-조가이 스베틀라나씨는 «1934-1938년도 소련 정치적 탄압 한인 희생자들» 제17권 출판을 준비하였다. 윗 권에서 최초로 수사기록이 나오며 스베틀라나씨 허락 하에 아래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7권에서 대숙청 때 체포되어 복권된 139명의 한인에 대한 서류가 들어갔고 또한 이연성, 이빛이, 장순, 박지학, 강회룡의 수사 기록물이 들어갔다.¹⁶ 본 발표문을 준비과정에서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서류가 이용되었다: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제495 저장소, 제 135-14, 19 기록물; 제533 저장소, 제3-45 기록물

조훈은 1897년도에 조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국제공산청년동맹의 한인 청년의 대표였고 1923년부터 한인 사무국 일원이 되었다. 1919년도에 «한반도 해방을 위하여» 구호 아래 이르쿠츠크 «결사대» 군사단 창설자 중 한명이었다. 1932년부터 모스크바 외국 노동자 출판사 한인사무국 편집자였다.

1937년 12월 1일날 내무인민위원회 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모스크바 부트르카 교도소에 구속되었다.

1938년 2월 13일날 소련 대법원 군사위원회 판결로 최고형 총살을 선고 받았다. 판결은 1938년 2월 13일날 집행되었다.

1958년 3월 11일날 소련 대법원 군사위원회는 조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묘는 모스크바 부토보-코무나르카에 위치하고 있다.¹⁷

15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1941 гг. М., 2007. С. 130, 340-344, 344-346, 548-551, 559-561 и др.

16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Книга 17 / Автор-составитель Светлана Ку-Дегай. М., 2019 (в печати)

17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Книга 17/Автор-составитель Светлана Ку-Дегай. М., 2019(в печати)

한국 정보에 의하면 1915-1918년도에 조훈은 광복단 일원이었고 한국 및 중국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중국 활동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없다.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코민테른 한인부에 조훈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첫 기록물은 1920년부터 나와 있다. 콜차크 장군에 맞서 투쟁하던 특수 소대 한인 공산당원들이 공산당 세포를 창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공산당 이르쿠츠크 위원회 한인부가 설립되었다. 한인 공산당 세포의 제1 회의록에서 세포 일원들이 한인 혁명위원회 창설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모든 한인 공산당원 (단체와 세포) 총회 소집에 있어서 선두에 서겠다는 결단이 나온다.¹⁸ 이르쿠츠크 세포의 지도자는 남만춘이었다. 세포 일원 중에 조훈도 있었다.¹⁹

이르쿠츠크 해방 후 한인 특수소대는 국제사단에 들어가 콜차크 및 카펠 장군 군대와 투쟁을 벌였다. 이 소대에는 박승만, 남만춘, 조훈, 박 알렉세이, 윤협, 김철훈, 안 니콜라이, 김중전이 있었다.²⁰

조훈은 한인 공산주의 단체 중앙위원회 창설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0년 11월달에 한인 공산주의 단체 중앙위원회는 극동,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 단체 총회를 소집하여 연합, 합동 및 연합지도부 창설에 대한 결정을 하고 활동의 집중도를 극동지역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총회 일자는 1921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총회 소집을 위해 책임당원을 다음과 같이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성과 김철훈을 중국 간도에, 조훈을 한국에, 박승만 및 장씨를 극동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1921년 7월달에 조훈은 국제 공산당 제3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였다.²¹

조훈의 적극적인 활동이 한인 청년단체와 나타났다. 1922년 12월 4-16일 조훈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던 국제 공산 청년 동맹 제3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총회에 38개의 국가 청년단의 121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청년운동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파시즘 및 군사 위협에 대면하는 투쟁,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노동청년 연합 및 연합전선 전술, 콤포소에 계몽 및 이론적인 활동의 승급 및 «동방국가 활동에 대하여»라는 선언문 포함.²²

한국 콤포물 창설 일자에 대하여 다양한 일자가 나돌고 있다. 국제 공산 청년 동맹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1921년 10월달에 한국 콤포물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얼마 후 중앙 위원회는 소련에서 상해로 옮겨서 한국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²³

18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4. Л. 1-1об.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제495 저장소, 제 135-14 기록물, 제1장, 제1장 양면

19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Книга 1-17 / Автор-составитель Светлана Ку-Дегай. М., 2004-2019.

20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4. Л. 2-2об.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제495 저장소, 제 135-14 기록물, 제2장, 제2장 양면

21 РГАСПИ. Ф. 495. Оп. 135. Д. 19. Л. 47, 51-51об.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제 495 저장소, 제 135-19 기록물, 제47, 제51장, 제51장 양면

22 Коминтерн, КИМ и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1919-1943).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1 (1919-1933). М., 1977. С. 191. 코민테른, 국제 공산 청년 동맹 및 청년운동 (1919-1943). 자료집. 제1권 (1919-1933), 모스크바, 1977년, 191쪽.

23 РГАСПИ. Ф. 533. Оп. 3. Д. 45. Л. 1.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적 역사기록 보관소, 제533 저장소,

1922년 8월에 조훈은 국제 공산 청년 동맹 집행위원회 대표로서 한국에 도착하여 청년 콤포몰 단체 연합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류상 1922년 가을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활동 시작일자로 언급되고 있다.

국제 공산 청년 제3총회 «동방국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에 한국 관련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이 나열되었다:

1. 동맹은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산청년동맹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중에서 활동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동맹 인원을 모집하려면 두가지 방향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무질서의 노동 청년과 활동 및 혁명 프롤레타리아 최고의 요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작업의 강화는 조선청년동맹이 모든 합법적인 가능성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환경 개선에 나서서 일원 훈련 및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경우에 만 가능하다.
3. 조선청년동맹의 주 목적으로 일본 점령군에 반항하는 선전 작업이며 이는 민족적인 면을 벗어나 오직 계층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공산청년동맹은 국제공산청년동맹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한국에 공산당이 없는 관계로제3총회는 공산당이 창설되기 전까지 정치적 지도를 국제공산청년동맹에게 위탁한다.²⁴

이 모든 중요한 임무는 조훈에게 위임되었다. 1923년 3월달에 그는 서울 청년동맹 지휘하에 전조선 청년총회를 소집하였다. 총회에 80개의 다양한 한국 지역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아쉽게도 총회는 일본 경찰에 의해 폭로되어 총회 참가자 중 60명이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에 소집되었던 총회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간부회에 8명의 콤포몰 일원을 선발할 수 있었다. 요즘 한인 공산당원 중에서 민족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갈등이 생겼다. 이는 우리 청년단에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국제청년동맹의 지시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 제4총회는 (1924) 극동 문제를 최우선으로 제기하여 고려하여야 한다.²⁵

조훈은 여러 번 한국에서 조선청년동맹을 창설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주 원인으로 한인 공산당원 즉 상급동무들 간에 있었던 분열이었다. 민족해방운동과 한국발전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토론을 지켜보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공산청년동맹 제4총회

제 3-45 기록물, 제1장

24 Коминтерн, КИМ и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1919-1943).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1 (1919-1933). М., 1977. С. 191. 코민테른, 국제공산청년동맹 및 청년운동 (1919-1943년). 자료집, 제1권 (1919-1933년), 모스크바, 1977년, 191쪽

25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Тё Хуна на IV конгресс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Молодежи // Правда. 20 июля 1924 г. 국제공산청년동맹 제4총회 한인 대표 조훈의 발표 내용 중//프라브다. 1924년 7월 20일

에 참석하던 조훈의 발표하면서 유용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1926년에 조훈은 공산당 국제동맹 집행위원회에서 조선공산당 및 청년동맹의 대표였다. 그는 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통과 정당의 모든 잠복임무를 담당하였다.

조훈에 대한 박해는 1926년도에 박진순이 코민테른 인사부에 «조훈의 트로츠키 활동에 대한 통보»를 보낼 때부터 시작되었다. 통보 내용중 박씨는 조훈이 트로츠키-지노비에프 연합집단을 모집한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정보에 의하면 그 집단에 조훈과 함께 최선우, 주천성, 서순민, 김태희가 (조훈의 처) (Цой Шен У, Тю Ченсон, Шен Сун Мин, Ким Те Хе (жена Те Хуна) 있었다. 그는 조훈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간을 위해 쓴 박씨의 기사를 조선에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통보문은 국제노동자 출판사 내 당위원회 회의 때 검토되었고 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훈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증명할 수 없다 (1926).²⁶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공산당 국제동맹 집행위원회 사무국은 김철수에게 설명을 요청하였다. (1927년 5월 4일 김철수의 해설문) 김철수는 박진순과 조훈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 논쟁은 공산당 국제동맹 집행위원회 제7총회 때 시작되었다 - 국제적색농민동맹 간부회 위원이자 공산당 국제동맹 집행위원회 한국 고문 박진순은 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외무부 사무국에 있는 조훈과 김찬의 한국 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양도를 비판하였다. 조훈과 김찬은 조선 공산당과 천도교의 연합을 반대하였다. 총회 끝나고 박진순과 보즈네센스키씨는 해임되었다. 김철수 의견으로 조훈에 의한 박진순과 보즈네센스키씨의 해임을 부당했고 둘 다 복직시켜야 된다.²⁷

박진순과 조훈 간의 논쟁은 1937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조훈이 박진순을 비난하거나 스스로 변명하는 서류를 찾지 못하였다.

소련 인민에 대한 대숙청은 1937년도에 시작되었다. 10년 동안의 조훈을 비난하는 모든 서류가 재검토되었다. 함께 제시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내무인민위원회와 검찰청에서 상황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를 분쇄하였다.

26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1934-1938. Книга 17. М., 2019. С. 151-152. 정치적 탄압 한인 희생자들. 1934-1938년. 제17권, 모스크바, 2019년, 151-152쪽.

27 Ibid, 157쪽

총살당한 한인들의 명단. 모스크바, 모스크바주²⁸

스탈린의 명단	집행일자	성명	형벌
113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413 기록물, 제110-112장	22.11.1937.	박 게나디 페트로비치, 박신규	카테고리 1, 최고형
»_»_»	22.11.1937.	최선우	카테고리 1, 최고형
270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3 기록물, 제251-260장	07.12.1937.	김춘성, 즉 이성태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7.12.1937.	인다신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7.12.1937.	한 니콜라이 에레메예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86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3 기록물, 제293-296장	13.12.1937	오 양신	카테고리 1, 최고형
163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4 기록물, 제3-9장	03.01.1938	조훈	카테고리 1, 최고형
107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4 기록물, 220-224장	03.02.1938.	김단야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김철산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이전우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이중백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전민, 서초	카테고리 1, 최고형
156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4 기록물, 제357-362장	03.02.1938.	벵코브 미하일 쿠즈미치 (전 경찬)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박 니콜라이 아파나시예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3.02.1938.	유이 (유 황신)	카테고리 1, 최고형
60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5 기록물, 제5장	05.03.1938.	박진순, 이반 표도로비치 (주누)	카테고리 1, 최고형
»_»_»	05.03.1938.	주 표뜨르 안토노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218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5 기록물, 제12-19장	05.03.1938.	선우섭, 클리멘티 페트로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164 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5 기록물, 제192-197장	28.03.1938.	보스코브 아나톨리 파블로비치 (유우상)	카테고리 1, 최고형
»_»_»	28.03.1938.	마 바를라암	카테고리

28 Сон Ж.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власт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1920-1930. М., 2013. С. 292-293. 송잔나. 재소 한인들: 절대적 국가 권력 과 힘없는 약소 민족. 1920-1930. 모스크바, 2013년, 292-293쪽

327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6 기록물, 제10-17장.	19.04.1938.	이노켄티예비치 (마현명) 여신	1, 최고형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김주왕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김준-키모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김숙일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박 니키포르 알렉산드로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박수진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순양인 (즉, 김 정지)	카테고리 1, 최고형
»»_»	19.04.1938	황 동육 콘스탄틴 알렉 산드로비치	카테고리 1, 최고형
152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7 기록물, 제191장	10.06.1938.	김전 (즉, 김정)	카 테 고 리 1, 최고형
208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7 기록물, 제238-245장	20.08.1938.	김대범	카 테 고 리 1, 최고형
»»_»	20.08.1938	이태	카테고리 1, 최고형
340 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 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8 기록물, 제3-15장	12.09.1938	김 표도르 드미트리예비 치	카테고리 1, 최고형
66명의 명단.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관서, 제3 저장소, 제 24-418 기록물, 제21-23장	12.09.1938	이순조	카테고리 2, 수용소

출처: 스탈린의 명단 [전자]. 접속방법: <http://stalin.memo.ru/images/intro.htm>
04.06.2009. (저자에 의한 초록)

결론

1920년 말에 코민테른의 외교활동이 소련과 자본주의적인 선진국과의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은 정기적으로 코민테른 내부에서 반소련 스파이 활동의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 공산당원들이 자기보존을 위해 서로 고발하여 동지에 대한 기소를 꾸몄다.

쟁권, 개인적 및 단체적인 투쟁은 한인 공산당원간에 이루어지는 내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24년부터 1953년까지 7000명 이상²⁹의 한인들이 친일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체포

29 «소련 정치적 탄압 한인 희생자들. 1934-1938년» 17권에서 (저자 구-조가이 스베틀라나) 1924-1953

되었다. 그 중 50%는 총살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1937년 7월에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소련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소련 정부는 한인 시민 중 친일 스파이 활동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평의회는 «원동변강 접경지역의 한인 강제이주»라는 법령 제1428-36를 발령하였다: «원동변강에 일본 정보국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소련 공산당 원동변강 간부회, 변강 집행위원회 및 원동변강 내무인민위원회 사무국에 다음 조치를 권한다: 원동변강 접경 지역: 포시에트, 스파스크, 스마코브, 포스트셰브, 바클린스크, 바젠프스크, 수이푼, 키로브, 칼리닌, 라조, 아르하린, 스탈린스크, 블루헤로보에 거주하는 한인을 남 카자흐스탄 아랄 해와 발하시 지역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강제 이주. 강제 이주는 포시에트 지역 및 그로데코보 지역으로 부터 시작할 것.

2. 강제이주는 즉시 시작하여 1938년 1월 1일까지 완성할 것

스탈린은 모든 한인을 일본 스파이 활동에 기소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다. 군사적인 면에서 일본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인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었다.

1937년 11월 13일날 모스크바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한인 강제이주에 대하여 항의를 표했으나 스탈린에게 일본 항의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년도의 정치적 탄압 희생자인 7000명의 한인 복권에 대한 확인서가 소집되었다.

메 모

일본 지역에서 활동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이규수(一橋大學)

- I. 100년의 기억
- II. 일본 유학생의 추이
- III. 전북 출신 유학생과 3·1운동
- IV. ‘3·1운동 세대’의 군상과 유학생
- V. 동아시아 평화를 꿈꾸며

I. 100년의 기억

■ 3·1운동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다.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인 기념일이다. 조선인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독립 만세’를 외쳤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러시아 혁명의 소식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주창된 ‘민족자결주의’는 국내외 청년 지식인의 ‘독립 열기’를 자극했다. 1919년 2월 8일에는 제국의 심장부 동경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이 이루어졌다. 제국주의의 부당함에 대한 식민지 청년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이후 3·1운동은 1년여에 걸쳐 조선 국내를 비롯해 중국 동북 지역, 상하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 조선인이 거주하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운동이 전개되었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장기간에 걸친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다.

■ 제국 자존심의 실추

조선총독부는 한국 강점 이후 이른바 무단 통치 체제를 통해 식민지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했다. 헌병 경찰을 앞세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물론, 집회조차 금지시킨 폭압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종교 이외에는 없었다. 사전 정보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앞에 펼쳐진 3·1운동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2·8독립선언으로 잔뜩 경계 태세를 강화했지만, 조선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 대대적 탄압과 희생

지역 단위의 운동은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조직화되었다. 해외 유학생 등의 귀국과 함께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 관헌의 대응은 신경질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에서 파견된 증원 부대와 함께 군대와 헌병을 투입, 무차별 탄압으로

대응했다.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마을 사람 전원을 교회 건물 안에 모아놓고 출입구를 막은 채 사격을 가한 뒤 불태워버린 수원 제암리(堤岩里) 학살 사건은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월말 사이에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검거자가 46,948명에 달했다(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成進文化社, 1975). 일본의 무장 탄압은 일본 제국주의의 후진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었다. 특히 전북 지역 민중은 동학농민전쟁과 의병투쟁, 그리고 남한대토벌작전 당시의 참혹한 ‘학살의 기억’이 재생되었다. 일본은 비무장 민중을 향해 신속한 진압을 위한 ‘전쟁’을 벌인 것이다.

■ 운동에 대한 왜곡, 비난, 공격

본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주요 매스컴은 정부와 군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다. 조선의 ‘소요 사태’는 물지각한 일부 종교 지도자의 음모 또는 외국인 선교사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축소 보도했다. 조선인을 ‘폭도’와 ‘범인’으로 규정하고, ‘폭민의 경찰서 습격’, ‘헌병 참살’, ‘순사 학살’, ‘내지인 상점에 폭행’, ‘관계없는 내지인 남녀까지 살해’ 등 유언비어를 통해 운동을 비난·공격하기에 급급했다. 일본 언론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여론을 조성했고, 나아가 식민지 지배 정책과 일본인의 왜곡된 조선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재조일본인은 ‘자위단’을 조직하여 관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식민지 본국의 일본인들도 조선인이 외치는 ‘만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감이 증폭되었다. ‘폭동’의 조기 진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생명선’인 조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일본 사회에 팽배했다.

■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사 연구에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영역이다. 운동의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 운동의 전개양상, 일제의 통치 지배 정책, 운동을 둘러싼 국내외의 반향, 운동의 역사적 위치, 그리고 3·1운동 이후의 국내외 민족 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 깊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다 방면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 주제의 개발과 확장도 요청된다. 이 가운데 하나는 3·1운동을 체험한 청년 학생 계층이 이후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3·1운동 세대’는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 운동을 기억하고 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발판으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전개한 세대를 말한다. ‘3·1운동 세대’는 일본의 강력한 탄압 앞에서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는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1920년대 이후의 상황은 발전적으로 전개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내재적’으로 전개해나갔다. 3·1운동의 체험과 기억은 운동의 재출발을 위한 새로

운 전략과 전술을 몸에 익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일본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모색한 전북 출신 ‘3·1운동 세대’의 모습을 추적하고자 한다.

II. 일본 유학생의 추이

■ 일본 유학생 총수

- 조선총독부는 기본적으로 유학 억제 정책
- 관비(급비) 유학생 제도는 1929년 폐지
- 1920년대 유학생의 규모는 1,230명(1920년), 2,235명(1921년), 3,222명(1922년)으로 증가
- 1923년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
- 1933년 이후는 다시 증가 추세 (1943년에는 약 2만 명)

	동경	지방	합계
1912	444	91	535
1918	642	127	769
1920	1,090	140	1,230
1921	2,039	196	2,235
1922	2,993	229	3,222
1923	531	488	1,019
1924	991	539	1,530
1925	1,322	765	2,087
1926	3,086	859	3,945
1927	2,898	963	3,861
1928	2,703	1,050	3,753
1929	3,707	1,062	4,769
1930	2,590	1,203	3,793

裴始美,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學生の統計分析」, 『日韓相互認識』3, 2010, 34쪽 재인용.

■ 전북 출신 일본 유학생(동경)

- 초기에는 경남, 경기, 전남의 비중이 높음
- 전체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기와 경남북의 비중이 높음
- 후기에는 평남과 황해도의 비중이 높아짐
- 전북은 전체적으로 하위권
- 동경만이 아니라 지방 유학생도 다수(특히 1928년)

	전국	전북			
	합계	남	여	합계	비율
1920	988	57	2	59	6
1921	1,416	58	2	60	4
1922	1,812	106	3	109	6
1923	504	38	0	38	6

1924	991	73	1	74	7
1925	1,317	59	2	61	5
1926	3,086	166	3	169	5
1927	2,898	165	2	167	6
1928	2,703	157	1	158	6
1930	2,590	149	8	157	6
합계	21,219	1,184	25	1,209	6

裴始美,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學生の統計分析」, 『日韓相互認識』3, 2010, 40~41 쪽에서 재작성.

■ 전북 출신 일본 유학생(지방)

	전국	전북			
	합계	남	여	합계	비율
1926	859	32	9	41	5
1927	963	38	2	40	4
1928	1,050	149	2	151	5
1930	1,203	52	3	55	5
합계	4,075	171	16	187	4

裴始美,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學生の統計分析」, 『日韓相互認識』3, 2010, 41쪽에서 재작성.

■ 전북 지역 3·1운동과 유학생

- 유학생의 출신별, 학력별 특징
- 국내외 유학생들의 활동과 3·1운동의 확산
- 전북 지방 3·1운동은 3월 5일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전주 등지로 확산
- 전북 지방은 3~4월에 집중되었으며 5월부터 소강국면

Ⅲ. 전북 출신 유학생과 3·1운동

■ 2·8독립선언과 백관수(白寬洙)

- 고창 출신 백관수(1889~1951)
- 1915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중앙학교 교사
- 1917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 유학
- 1919년 2월 조선청년독립단에 참여하여 학생대표 11명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주요 인물은 장영규, 최팔용, 윤창석, 김철수, 백관수, 서춘, 김도연, 송계백, 정공균, 변희용, 강종섭, 이정훈, 이봉수, 김승민 등)
- 1년간 복역 후 메이지대학 법학과 졸업(이 과정에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와 인연을 맺음)
- 1924년 귀국, 조선일보사 취체역

- 1925년 5월 김준연(金俊淵), 안재홍(安在鴻), 백남훈(白南薰) 등과 조선사정연구회 조직
- 1927년 신간회 참여(조선일보사 대표)
- 1927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2회 태평양회의와 1929년 일본에서 열린 제3회 태평양회의에 민족대표로 참석
- 1932년 흥문사 설립, 『동방평론(東方評論)』 창간
- 1937년 동아일보사 제7대 사장에 취임
- 해방 이후에는 제헌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초를 담당(납북)

■ 일본인과의 연대

- 2·8독립선언 당시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전북 방문
- 1926년 3월 후세는 전주 지역의 이도전주청년회, 전주신문배달인조합, 전주양화직공조합, 전주철공조합, 전주여자청년회, 금요회, 전주인쇄공조합, 전북청년연맹과 면담(회원 수와 간부 등을 조사)
- 전북청년연맹 등 7단체는 환영회를 개최하고 ‘가슴을 열고 격의 없는 환담’
- 전북 출신 유학생과 양심적 일본인과의 연계

■ 민족 대표 33인과 박준승(朴準承)

- 임실 출신(1865~1927)
- 한문 수학
- 1890년 동학 입도
- 1894년 1월, 고부 기포를 계기로 동학농민전쟁에 참여
- 1906년 청응면 삼화소학교 건립추진위원
- 1912년 전남 장성군 천도교 대교구장 겸 전라도 순유(巡遊) 위원장
- 1916년 천도교 전라도 도사(道師),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에 참여
- 천도교 대표의 일원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 1920년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 1922년 천도교중앙총리원 종리사(宗理師), 감사정(監査正), 포덕사(布德師) 등으로 활동
- 1925년 천도교단의 신·구 양파로 분화 이후,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리원 종법사로 활동
- 민족 대표에 대한 평가 문제는 3·1운동사 연구의 쟁점

■ 민족 대표에 대한 평가 문제

- 3·1운동사 연구에서 민족 대표에 대한 평가 문제는 논점 가운데 하나이다. 민족 대표는 주지하듯이 3·1운동을 준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족 대표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전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민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의 지적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야마베는 민족 지도자는 3·1운동의 선두에 한 번도 나서지 못했고, 또 지하에서 운동을 지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대중 운동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존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가짜 지도자’라고 혹평했다(山辺健太郎, 「三・一運動について」, 『歴史學研究』 184, 1955).

-강덕상(姜德相) 역시 민족 대표가 3·1운동에서 수행한 역할은 실제로는 운동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비판적인 편이다. 민족 대표가 대중의 항일 투쟁을 기피하고 독립 운동의 지도를 포기한 반면, 민중은 많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봉기를 결행했다. 더욱이 민족 대표는 사대성·대외의존성·구 봉건귀족에 대한 환상·민중 멸시와 투항주의적인 태도 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투쟁의 계속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은 운동의 주도권 확립을 위한 공명심에서 움직였고, 결국 독립 운동의 억제 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姜德相, 「三・一運動における『民族代表』と朝鮮人民」, 『思想』537, 1969 ; 姜德相, 「日本の朝鮮支配と三・一運動」, 『岩波講座・世界歴史』 25, 岩波書店, 1970).

-이에 대해 박경식(朴慶植)은 강덕상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민족 대표를 둘러싼 평가는 한국 사회가 당시 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민족 대표의 계급적인 제약성 위에서 그들의 의식과 사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족 대표의 민족 주의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폭력주의·평화적 시위 운동은 대중적·창조적인 투쟁 형태이고, 운동의 주도력·지도성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자와 종교인의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불충분한 역사적 사실과 몰역사적 시점에 의한 평가는 단지 허무주의적·교조주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민족 대표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朴慶植, 「三・一獨立運動研究の諸問題」 『思想』556, 1970 ;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 정노식(鄭魯湜)

-김제 출신(1899~1965)

-1910년 김제 영명학교 졸업,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 입학

-1912년 일본 유학,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 졸업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정치경제과 입학, 중퇴

-1915년 장덕수(張德秀), 김철수(金鋹洙) 등과 비밀결사를 조직

-1916년 중국·대만의 운동가들과 신아동맹단(新亞同盟團) 결성

-1918년 조선인유학생학우회 평의원, 동경경시청의 요시찰인물 갑호로 지정

-1919년 1월 미국, 중국 간도 및 상해, 노령의 독립운동가들과 연락하기 위해 이광수(李光洙)를 북경에 파견, 3·1운동에 참가 체포

- 1920년 서울에서 사회혁명당에 참여
- 1921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서 국내 간부에 선임
- 1922년 조선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장
-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경리부원, 민립대학기성회 집행위원
-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창립에 참여(전형위원)
- 판소리에 관심을 쏟아 『조선창극사』 저술
- 1946년 2월 여운형(呂運亨), 허헌(許憲), 박헌영(朴憲永), 김원봉(金元鳳) 등이 구축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
- 1946년 7월 남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 결성대회에 의장단의 일원으로 참석, 12월 중앙상무위원 및 협조부장
- 1948년 월북

■ 임규(林圭)

- 익산 출신(1867~1948)
- 1895년 게이오대학(慶應義塾) 중학교 특별과를 거쳐 경제과 졸업
- 귀국 후 일본어 교사
- 3·1운동 당시 일본 정부와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에 조선 독립에 관한 의견서와 통고문 및 선언서 전달 임무
- 3월 1일 오후 4시경에 일본 동경에 도착, 3일 일본 수상과 의회에 우송
- 3월 9일 귀국 도중 일본 경찰에 체포

■ 김철수(金綴洙)

- 부안 출신(1893~1984)
- 1908년 화호보통학교를 거쳐 금산 금호학교에서 신학문 수용
- 1912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과 전문부 입학
- 1915년 열지동맹(裂指同盟) 조직
- 1916년 귀국, 곡귀단(哭鬼團)과 신아동맹단(新亞同盟團) 조직
- 1920년 사회혁명당 결성
- 1921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이동휘의 한인사회당과 결합하여 고려공산당(상해파 고려공산당) 조직
- 1923년 7월 국내 진입, 체포(거주제한령)
- 1925년 12월 조선공산당 입당(조직부장)
- 1926년 제3차 조선공산당 재건(책임비서), 12월 6일 제3차 조선공산당 제2회 대회에서 책임비서직을 사퇴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코민테른으로부터 제3차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받음
- 1929년 중국 길림성 돈화현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설 준비위원회’ 조직(위원장)

- 1930년 국내 진입, 당재건 운동 도중 체포
- 1938년 10월 출옥, 1940년 예방 구금, 해방

■ 김병로(金炳魯)

- 순창 출신(1887~1964)
- 1906년 창평 창흥학교(昌興學校) 입학
- 1910년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법학과,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야간부 법학과 입학
- 폐결핵으로 귀국
- 1912년 메이지대학 복학, 졸업
- 1914년 주오대학(中央大學) 고등연구과 졸업
- 일본 유학 중에 잡지 『학지광(學之光)』 편집장, 금연회(禁煙會)를 조직
- 1919년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개업
- 1923년 허헌(許憲), 김용무(金用茂), 김태영(金泰榮) 등과 형사공동연구회 창설
- 변호사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사건을 변론(여운형·안창호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김상옥의사사건), 광주항일학생운동, 6·10만세운동, 정의부·광복단사건, 조선공산당사건 등)
- 1927년 이상재의 뒤를 이어 신간회 집행위원장
- 1930년대 이후 해방까지 은둔 생활

■ 전북 출신 초기 유학생의 역할

- 3·1운동 이전의 유학생
- 3·1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세력
- 동아시아 차원의 활동 영역

IV. ‘3·1운동 세대’의 군상과 유학생

■ ‘3·1운동 세대’의 형성

- 3·1운동 이후의 새로운 활로 모색
- 민중의 조직화와 사회운동에 투신
- 일본 유학과 신사조의 유입
- 학생운동(비밀결사), 노동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

■ 심재순(沈載洵)

- 임피 출신(1899-1939)
- 임피보통학교(臨陂普通學校) 졸업 후 사립 구암영명학교(龜岩永明學校)에서 2년간

수업

- 서울에서 대동인쇄주식회사에 다니면서 부기학교에 통학
- 1925년 5월 부기학 연구 목적으로 일본에 도입하여 츠카하라(塚原)가 경영하는 춘양당(春陽堂) 인쇄소 취직, 인쇄소 폐쇄
- 1927년 9월경부터 일본인 가나자와(金澤)가 경영하는 인쇄소 동성사(同聲社)에 문선공(文撰工)으로 취업
- 인쇄소에서 주로 사상에 관한 문서를 출판하던 중 사회주의 사상을 유입, 독립 실현의 수단으로 먼저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단결력으로써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님
- 1927년 11월 말경 전북 옥구의 이엽사농장(二葉社農場)에서 소작쟁의 발생
- 1927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친애하는 동향 제군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으로 “자본주의 제도 아래 현대 사회의 유산자 생활의 호사로움과 노동자 생활의 궁핍을 비교하고 그것이 착취와 압박을 능사로 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적 소산물로 단정”하면서 항일 의식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격문을 작성하고 300매 가량을 인쇄
- 군산, 강경, 논산 등 비옥한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와사키(川崎), 오쿠라(大倉), 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흥업주식회사, 이엽사 등 자본가에 항거하고, 소작인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철저히 투쟁할 것을 촉구
- 격문을 국내의 신현국(申鉉局), 심상악(沈相岳), 심상호(沈相鎬), 황봉규(黃琫珪), 심호택(沈鎬澤)에게 발송
- 신현국은 이엽사 농장의 소작쟁의에 관련된 농민들에게 이를 배부
- 1928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김병우(金柄祐)에게 신간회(新幹會)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독려
- 1930년 9월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옥구로 귀향하여 활동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
- 1931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¹

■ 양일동(梁一東)

- 옥구 출신(1912-1980)
- 1929년 중동학교(中東學校)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동정시위를 주도, 퇴학
- 1930년 3월 오재덕(吳在德), 이영욱(李永昱)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백정기(白貞基), 정내동(丁來東) 등과 교류하며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
- 1931년 일본 동경으로 이주
- 1931년 4월 한하연(韓何然), 최낙종(崔洛鍾), 정찬진(丁贊鎭) 등과 함께 흑우연맹(黑友聯盟)이 주관하는 『흑색신문(黑色新聞)』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어 무정부주의 사상과 항일의식을 고취

1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31. 8. 19)

- 1932년 9월 동경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 활동
- 1933년 5월 오우영(吳宇永), 이윤희(李允熙) 등 재일본 무정부주의 단체의 대표들과 연합하여 반(反)파쇼, 반제(反帝), 반실업(反失業) 등을 투쟁 목표로 선정하고 항일운동에 진력
- 1934년에는 중국 상해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의 유자명(柳子明), 정화암(鄭華岩) 등에게 『흑색신문』, 『토민(土民)』, 『무궤도열차(無軌道列車)』 등의 출판물을 우송하며 연계투쟁의 방안을 모색
-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공사 암살미수사건으로 백정기, 이강훈(李康勳), 원심창(元心昌) 등이 일본에 압송되자 이들의 구호활동에 주력, 조선동흥노동동맹의 기관지인 『뉴우스』의 발행인으로 활약
- 1935년 출판법 위반으로 30원의 벌금형, 항일운동을 계속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3년 6월형을 언도²

■ 이두석(李斗碩)

- 남원 출신(1921-1947)
- 1929년 봄 고향에서 형인 이두현(李斗鉉) 등과 함께 야학을 세워 문맹퇴치 활동을 전개
- 비밀리에 수양전진계(修養前進契)를 조직
- 일장기와 일본 왕의 사진을 찢어 소각한 일로 관헌의 추적 대상
-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생고무 공장에 취업
- 일본 내의 좌익 운동 단체에 참가하여 일제 타도와 독립 쟁취를 주장
- 1933년 12월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日本勞動組合全國協議會)에 가입, 고베(神戸) 지구 노조재건운동에 진력
- 1933년 12월 13일에는 일본공산청년동맹(日本共產靑年同盟)에 가입, 고베시 위원회 서부지구 조직책임자로 선임, 청년동맹의 조직 정비와 확충을 위해 노력
- 1934년 1월 제2의 ‘쌀내놓으라회’를 결성한 뒤 건국제(建國祭), 실업반대투쟁, 기념일 투쟁 등의 시위를 주도, 4월 체포, 탈출
- 1937년 1월 오사카(大阪)에서 김인택(金仁宅) 등 10여 명과 함께 좌익극단(左翼劇團)을 조직
- 1937년 4월 김철산(金鐵山) 등과 더불어 경제학이론연구회(經濟學理論研究會)를 조직,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 지도
- 1938년 1~2월 오사카시에서 공산주의 그룹의 동지들과 함께 현 시국에 있어서 좌익 민족운동의 방침에 관하여 협의
- 1937년 7월 체포
- 1939년 11월 28일 고베 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³

2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150·488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777쪽.

■ 구호림(具浩林)

- 옥구 출신(1920-2008)
- 1933년 3월 대야공립보통학교(大野公立普通學校)를 졸업
- 1933년 4월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에 입학, 1938년 3월 졸업
- 1938년 일본 유학
- 1940년 동경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 입학, 1942년 졸업
- 1940년 6월 하순경 고담룡(高湛龍), 김운봉(金雲鳳) 등과 회합하여 조선독립운동의 방법으로 한민족의 단결심 양성, 자력 함양, 미국을 통한 독립운동 도모 등을 전개하기 위해 고문(高文) 그룹을 조직
- 고문 그룹은 표면적으로 학술 연구와 상호 친목 단체로 위장하여 일본의 감시를 피하면서 동지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사를 유지
- 조선 독립의 방법으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
- 1940년 10월 말경 구호림 등은 일본 정책에 편승하여 실력을 양성하며 자력 본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과 독립 후 통치 체제는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모방할 것을 협의
- 1940년 11월 이들은 모임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졸업 후 관계 혹은 재계로 진출하여 평생 독립을 목표로 헌신할 것을 협의
- 1940년 6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독립 쟁취 방법을 논의하다가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 취체법 위반으로 징역 2년⁴

■ 강석린(姜錫麟)

- 김제 출신(1919-1997)
- 1939년 2월부터 야마구치(山口)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유재우(柳在佑), 성창환(成昌煥), 민병구(閔丙九) 등과 함께 항일 투쟁에 투신하기로 결의하고, 교내 친목 단체인 '여우회'를 단순한 친목 단체에서 항일 투쟁 단체로 개조
- 조선인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해외 독립군과의 연결을 피하며 국내에서도 국외의 독립 운동 세력과 호응하여 일시에 봉기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구상
- 독립 투쟁에 투신할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내에서 비밀 결사 독서회를 결성
- 독서회를 통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당면한 현실 문제였던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창씨개명, 지원병 제도 그리고 조선어 폐지에 대하여 반대 투쟁을 전

3 판결통지문(1929. 12. 12. 신호지방재판소 검사국),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470·572·610·611쪽

4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44. 6. 5), 受刑人名簿(朝鮮總督府裁判所)

개

-1940년 7월 야마구치 현 당국에 의해 비밀결사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관련자 19명과 함께 체포, 1년 징역⁵

■ 강수원(姜壽元)

-고창 출신(1916-2003)

-1939년 3월 일본 유학, 고학생

-1941년 12월 센슈대학(專修大學) 졸업

-1940년 11월 동경 유학생인 임병학(林炳學), 강영석(姜永錫) 등과 함께 조선학생 동아연맹에 가입

-비밀 그룹인 '우리들' 조직

-졸업 후 시모노세키(下關)의 제1징병보험주식회사의 보험회사원으로 근무

-김창옥(金昌沃) 등과 함께 조선인과 접촉하면서 독립 운동을 계속하다가 1943년 6월 체포

-1944년 10월 6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 8월 15일 광복으로 출옥⁶

■ 고종근(高鍾根)

-옥구 출신(1923-2009)

-1939년 4월 8일 일본 동경에 소재한 대성(大成) 사립중학교 4학년에 편입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체험하면서 한민족의 참다운 행복은 조국독립 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독립운동에 투신

-겨울방학을 이용, 귀향하여 한대석(韓大錫), 김종철(金鍾喆), 전기배(田起培) 등에게 독립사상을 고취, 선전 중 체포

-1941년 12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음⁷

■ 원용학(元容鶴)

-고창 출신(1918-1976)

-1941년 6월, 일본 동경의 릿교대학(立教大學) 예과 2학년에 재학 중 주오대학의 배종윤(裴宗潤), 요코하마전문학교(橫濱專門學校) 강상호(姜相湖) 등과 함께 회합을 갖고 현재 조선의 실정을 토론

-일본의 식민지 정책, 그 가운데서도 특히 창씨개명과 한국어 폐지 문제 등을 집중

5 要視察人略名簿(特高課, 1945),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3輯 653쪽,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2卷 644~646쪽,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233~1236쪽, 特高月報(1943. 3月號) 88~91쪽,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松浦總三編) 第7卷 95~98쪽,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3卷 760쪽.

6 판결문(1944. 10. 6 산구지방법판소), 廣島형무소장증명서,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51쪽.

7 判決文(1941. 12. 30 全州地方法院),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78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749쪽.

논의

- 조선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민족의식을 고양하며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 것을 결의,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을 무시한 비인도적 식민지 정책의 발로이므로, 장차 미일전쟁이 벌어져 동경이 혼란에 빠지게 될 때 일제히 봉기할 준비를 갖추 뿐만 아니라, 조선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항할 것 등을 논의
- 1941년 10월 14일 배종윤, 강상호 등과 함께 체포, 기소유예 처분으로 1942년 9월 28일 석방⁸

■ 이옥동(李玉童)

- 진안 출신(1922-2009)
- 1941년 4월 일본 동경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비밀결사인 계미회(癸未會) 동경한국유학생 친목독서회(東京韓國留學生親睦讀書會)에 가입
- 1942년 2월 17일 체포되어 동월 22일 전주로 이송되어 전주형무소에 1년 4월동안 구금되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
- 1943년 6월 전주형무소에서 출옥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청년강제지원병반대를 위하여 친화회(親和會)와 혈맹회(血盟會)를 조직, 재동경 학병징발 반대투쟁위원장(在東京學兵徵發反對鬪爭委員長)
- 최남선(崔南善), 이광수(李光洙) 등이 조선인 학병의 일본군 입대를 권유하는 강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20일간 구금⁹

■ 홍영기(洪英基)

- 순창 출신(1918-1999)
-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3월 조치대학(上智大學)에 입학, 중퇴
- 1940년 11월경 세이소쿠 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재학 중, 동아연맹(東亞聯盟) 조선학생 좌담회에서 김창옥(金昌沃), 강수원(姜壽元), 박석우(朴錫祐)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협의
-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 원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혈맹적 동지를 규합하여 우리 민족을 지도, 계발하는 독립소지(獨立素地)의 배양에 노력하여 점차 독립 기운을 양성하고 태평양전쟁 말기에 들어 일본의 국력이 피폐해진 틈을 이용하여 일본에게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강요하여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킬 것을 결의
- 1940년 11월 동아연맹 좌담회 위원으로 선임, 김창옥, 박석우 등을 규합하여 독립

8 소화특고탄압사(명석박류) 제7권 310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340·134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699·700쪽.

9 아빠의 일기장(辛鎬) 271쪽, 동아일보 단상단하(壇上壇下)(1959. 3. 17)

- 운동을 추진할 비밀결사 ‘우리들’을 조직
- 1940년 12월 중순경 회원들과 회합하여 독립 달성을 위한 1단계로서 역사, 경제, 민족정치, 사회학, 철학 등 각 분야별로 민족운동의 지도 원리를 연구하기로 협의 결정
- 1941년 2월 초순경에는 그룹의 비밀유지와 동시에 연구 결과를 각각 취합하여 발표할 것을 협의
- 1941년 4월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법문학부에 입학
- 1941년 8월 귀국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昌平面) 창평리에 있는 그룹 회원 박석우의 집에서 회원들과 함께 연구 상황을 상호 보고하는 등 독립 정신 양양에 노력하다가 체포
- 1944년 10월 6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山口地方裁判所)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¹⁰

■ ‘3·1운동 세대’의 역사적 의의

- 유학생의 활약과 노동자의 성장
- 신사조의 유입
- 전북 지역과의 연계 투쟁
- 독립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V. 동아시아 평화를 꿈꾸며

■ 3·1운동의 현재적 의미

3·1운동 이후 10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100년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 모두가 극우 세력에 한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내의 소장 학자들, 수많은 시민 단체들은 얼룩진 과거 사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한국에게, 일본에게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3·1운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이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더불어 당시 일본의 조선 인식의 특징과 이후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 사회의 반민주적 언론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이라 일컬어지는 단체나 언론에 대해서도 각성된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의 반민주적 인식은 노골적으로 또는 교묘히 형태를 바꾸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771쪽, 판결문(1944. 10. 6. 산구지방재판소)

■ 3·1운동과 관동대지진

3·1운동은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의 탄압 앞에 진압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청년 지식인 계층은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꿈꾸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한다. 일본의 수탈 정책에 희생된 수많은 민중들은 생계를 위해 국내외 각지로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일본에 건너가 저임금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1923년 9월, 도쿄를 중심으로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다. 비극적인 역사는 또 다시 일본 관동 지역 일원에서 반복되었다. 4년 전 3·1운동 당시 관헌과 언론이 합세하여 조선인들이 관공서를 습격하고 민간인들을 폭행한다는 보도를 유포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태에 직면하자 치안 당국은 근거 없는 ‘조선인 폭동설’을 유포시켰다. 그리고 일본 관헌과 민중은 일체가 되어 6천여 명의 죄 없는 조선인을 학살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치안유지 담당자는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와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였다. 미즈노는 3·1운동 직후 총독부 정무총감에 임명되었는데, 3·1운동 진압의 책임자였다. 또 아카이케는 경무국장에게 기용되어 최선두에서 운동을 탄압한 인물이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이 두 인물은 3·1운동과 관동대지진이라는 사건에서 조선인을 탄압, 학살하는 책임자로서 활약했다.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허구

3·1운동과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3·1운동 당시 조선인의 독립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듯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불령선인내습’(不逞鮮人來襲)이란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다. 경시청과 군대는 통신망을 통해 전국에 이 정보를 흘렸고, 일본인 민간도 무비판적으로 이에 편승했다. 3·1운동이 확대되어 가던 1920년대 전후 시기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고양기에 해당한다.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타자의 외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부에 따라 그 진가가 발휘된다.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일본의 가혹한 탄압 체제 속에서 조선인의 내재적 요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일본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관동대지진의 경우 역시, 사회 소요의 원인을 조선인에게서 찾으려는 관헌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방조했다. 일본인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거나 지배 권력의 여론 조정에 휘말림으로써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의미는 거의 없었다.

■ 한국과 일본 민중의 연대

2019년 2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 226명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만이 한반도와 일본 관계 개선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식인들은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로, 서로 협력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이 과거 25년간 여러 노

력을 해 왔지만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징용공 배상 문제에 관련해 전시 노무 동원 피해자 문제 역시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 진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 해라며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10년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선 민족은 이날 일본인들에게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고 설득했음을 강조했다. 일본인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조선 민족의 이 위대한 설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화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3·1운동 100주년! 동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민중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요즈음이다.

메 모
